과거와는 사뭇 다른 왕실의 분위기. 왕실의 분위기는 왕위에 등극하는 각 국왕들의 분위기를 따라 왕실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법이었다. 그리고 현재. 과거의 왕실 분위기가 평화로움 속에 뒤섞인 난잡함이었다면 현재의 왕실 분위기는 고요하며 한 여름임에도 겨울의 날씨처럼 사뭇 차가운 왕실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한 어스름한 새벽. 아직은 완전한 해가 떠오르지 않았음에도 왕이 머무는 본성은 이미 시녀와 하녀들이 서둘러 국왕의 아침준비를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이 잠든 침실의 문 앞에 한 시녀가 멈춰 섰다. 그러자 이미 이 흐름이 익숙한 문지기들은 시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손수 문을 열어주었다. 환한 등불로 아직까지 밝은 복도와는 달리, 침실의 안쪽은 빛조차 없는 깊은 어둠마냥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 속의 눈이 익숙해졌는지 시녀는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쭉 걸어가 제자리에 멈췄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빛을 쭉 삼키고 있던 암막의 커튼을 쳐냈다.

착 소리가 나는 동시에 아직은 어스름한 새벽임에도 어둡기 만하던 침실에는 금방 빛이 퍼져나갔다. 침실 곳곳을 퍼져나가는 빛을 보며 마무리로 커튼까지 완벽히 정리한 시녀는 다시금 뒤를 돌아 제일 먼저 눈에 닿는 가장 큰 침대를 볼 수 있었다. 커튼뿐이면 다행이라지만 시녀는 침대를 완벽히 가린 붉은 캐노피를 보며 서둘러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단숨에 커튼을 쳐낸 것처럼 익숙한 동작으로 붉은 캐노피를 쳐낸 시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하나 뿐인 주군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기침하셨습니까, 폐하.”

“...욕탕의 물은?”

“예, 폐하. 바로 욕실로 향하시면 됩니다.”

이미 오래 전,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보다 일찍이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주군은 씻을 준비를 위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노피를 열었음에도 어둠속에 가려져 있던 국왕이 드디어 빛이 퍼진 침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시녀, 아니. 정확히 오랜 전속시녀가 된 라즐리는 빛이 내리 쬐고 있는 창밖을 무심히 보는 헤르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벌써, 헤르세인이 왕위에 앉아 집권한지도 7년. 7년 동안 입이 마를 새도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라즐리가 잊을 수 없는 건, 왕위에 앉은 헤르세인과 왕위를 앉고자 무시무시한 피의 반란을 일으킨 헤르세인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라즐리가 보았던 헤르세인은 살짝 밀기만 해도 어딘가 부서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절정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이 무색할 만큼, 현재의 그녀는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현재 왕실은 물론이고 귀족들 사이에서 퍼진 그녀의 별명은 ‘얼음 여왕’ 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은날의 여왕’ 얼음의 여왕이라 불리는 건, 그녀의 감정이 워낙 얼음처럼 차갑고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을 만큼 냉소적인 군주이기에 ‘얼음 여왕’이란 별명은 이미 왕실에선 흔히 퍼진 별명이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별명인 ‘은날의 여왕’의 뜻은 감정적인 모습보다 군주로서의 검을 든 모습을 빗댄 무서운 별명이나 다름없었다. 7년 전, 반란을 일으켜 위스턴 국왕의 일족을 모두 처형시킨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왕권을 잡게 되면서 헤르세인은 왕실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작했다.

특히나 갖은 뇌물과 카타리아 왕후의 뒷배로 재력을 넓힌 가문은 모조리 재산을 몰수하고 작위를 박탈했으며 아주 오래 전, 에른스트 왕태자를 몰아내고자 위스턴 왕자에게 가담한 가문들을 전부 색출하여 작위 박탈과 함께 사형과 징역을 내려 폭군이나 다름없는 공포 정치로 몰아붙였다.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소위 말하는 이름뿐인 왕녀가 그 일이 가능했던 건, 그녀를 왕위로 앉힐 수 있게 도와준 온건파와 중립파의 귀족들. 또한 세력대립으로 유명한 귀족파들까지. 그리고 막강한 병권을 가지며 한때는 위스턴 국왕의 가장 많은 신임을 얻었던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녀의 ‘혈통’ 때문에 더더욱 가능했던 건지도 몰랐다.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왕위에 앉기 전, 가장 큰 힘을 가진 라인하르트 가문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무언가의 거래로 그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줬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알고 싶다 해도 자신은 일개 시녀일 뿐. 더 이상의 호기심은 시녀로서 넘지 말아야할 선이기에 아무리 궁금해도 그 호기심을 억지로라도 억눌러야만 했다. 그래야 이 왕실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폐하, 어서 가시지요.”

국왕의 아침 일정은 일찍이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나는 어미새보다 빠듯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는지 어스름하던 하늘이 노란빛으로 물들자,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라즐리의 말을 따라 몸을 돌려 작게 단 답 했다.

“가지.”

라즐리를 따라 욕실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자신을 맞이하는 여럿의 하녀와 시녀들의 인사를 받으며 거대한 욕탕 앞에 멈춰 섰다. 위로 솟아나 그 안에 물을 받아 몸을 씻는 형태의 욕조가 아닌, 두 발이 지탱하고 있는 바닥을 뚫어 온천수를 끓어 올린 정사각형의 거대한 욕탕. 헤르세인은 미끄러지듯 아래로 떨어지는 실크 잠옷을 벗어 맨 몸으로 뜨거운 수증기를 느꼈다.

느릿한 걸음으로 욕탕에 들어가 완전히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그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녀들이 팔을 걷어붙여 본격적으로 헤르세인의 몸을 도자기 다루듯 마사지와 함께 씻겨내기 시작했다. 귀족가의 부인들이나 또는 사치를 즐기는 여인들이라면 이미 장미꽃을 풀어낸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 마사지까지 여유롭게 즐겼겠지만, 헤르세인은 그 모든 것을 즐길 생각도, 욕탕에 앉아 몸을 노곤하게 풀 시간조차 없었다. 적당히 몸을 씻기고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실만큼 마사지를 받은 헤르세인은 욕탕에서 일어나 라즐리가 가져다준 가운으로 갈아입어 곧바로 욕실 바깥으로 나갔다.

욕실 바깥을 나가자 헤르세인을 기다린 건 군주로서의 모습을 완벽히 갖출 치장의 시간. 이미 침실에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는지 그녀가 입을 적당한 드레스와 장신구들, 그리고 왕으로서 빛낼 왕관들이 시녀들의 손에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몸에 두르기 전, 헤르세인은 시녀들의 손짓에 몸을 맡겨 본격적으로 여러 겹의 속옷 드레스와 머리치장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전신 거울을 통하여 지켜보았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치장과 현재의 모습이었다. 비쩍 말라 시든 꽃 마냥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고, 하물며 제대로 된 드레스조차 입을 수 없던 왕녀의 시절. 애초에 화려한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알기에 스스로 거부한 것도 있었지만, 이름뿐인 왕녀이기에 제대로 된 드레스를 갖춰 입던 때는 거의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런데 과거와는 상반될 만큼 지금과 비교하자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자신의 한 마디면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원하지 않아도 귀족들이 제게 잘 보이고자 장신구란 이름의 뇌물을 바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쌓이는 재물들과 수 십 벌의 드레스. 그리고 값비싼 장신구를 볼 때면 ‘왕’이란 자리가 귀족들이 설설 길만큼 실로 대단한 자리임을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폐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얼굴 치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 여러 겹의 속옷 드레스가 입혀졌는지, 가볍던 가운과는 다르게 헤르세인은 속옷의 무게만으로도 묵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시녀의 말처럼 얼굴 치장을 위해 준비된 의자에 앉자, 곧바로 얼굴 치장의 분담을 맡은 시녀가 불쑥 나와 분이 칠해진 붓과 퍼프를 톡톡 두드리며 헤르세인의 피부를 더욱 백옥처럼 만들어주었다.

“폐하, 눈을 감아주십시오. 이번엔 눈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녀의 시절 때만 해도 헤르세인은 치장이란 자체가 썩 내키지 않았다. 맨 얼굴에 분을 이것저것 발라 괜히 답답하게 만드는 분칠이 싫었고, 분칠만큼이나 몸을 옥죄는 화려한 드레스 역시 좋을 리가 없었다. 제 아무리 남들의 눈엔 수수하기 짝이 없는 드레스일지라도 헤르세인에겐 수수한 드레스조차 그저 화려한 치장용 드레스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왕이 되고, 헤르세인은 곧 깨달았다. 제 자신의 모습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귀족들의 드높은 콧대를 꺾기 위해선 싫어도 제 모습을 가꿔야만 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치장이었지만, 수수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귀족들 앞에 나름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 봤자, 귀족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현 국왕이 꾸밀 줄을 모른다며 비웃을 것이었고 더더욱 얕잡아 볼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국왕이 수수한 것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귀족들은 대체로 평민들처럼 평범히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늘 아름답거나 화려한 것을 보고 자란 자들이었으며, 특히나 귀족들은 왕족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그들이 감히 보지 못한 왕족만의 우월함을 보여줘야만 했다.

“폐하, 화장이랑 머리치장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눈을 치장하는 중에 머리치장까지 한꺼번에 끝냈는지, 헤르세인은 눈을 떠 거울에 비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화장과 머리치장 때문인지 몰라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7년 전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비쩍 말라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었던 어렸던 과거.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사람 몰골이라 불릴 만큼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비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자, 과거를 밟고 올라선 왕국을 다스리는 단 한명의 군주일 뿐이었다.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라즐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주군의 신호를 받은 라즐리는 서둘러 근처에 있던 시녀들에게 또 다른 신호를 보냈고, 침실에서 오랫동안 한 벌씩 드레스를 맞고 있던 시녀들이 빠르게 움직여 헤르세인의 앞에 섰다.

“최대한 화려한 색은 배제하고 폐하께서 원하시는 어두운 색으로 신중히 선별하여 골랐습니다.”

“오늘은 저 드레스로 입겠어.”

고민할 것도 없이 헤르세인이 빠르게 고른 드레스는 짙은 암청색과 검은색으로 어우러진 맞춘 드레스였다. 오래전부터 수도에서 정평 난 디자이너 ‘알렌드로’를 왕실 수석 디자이너로 고용한 뒤로 헤르세인은 역대 국왕들과 전혀 다른 군주의 옷을 입게 되었다.

우아함을 강조하되 화려함을 어느 정도 버리지 않으며,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국왕의 옷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았다. 더욱이 헤르세인은 사브레 왕국, 건국아래 최초로 여인의 몸으로 왕위에 앉은 인물이라 매번 남성 군주의 옷을 만들었던 왕실 디자이너들은 여왕의 옷을 만든 경험이 없었고 완성을 해도, 그 결과물은 왕후나 왕비가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의 결과물뿐이었다.

처음에는 화려하기만 한 드레스를 입을까도 싶었지만 헤르세인은 최초의 여왕으로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었고, 더욱이 그때 당시만 해도 루드비카를 아직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던 때라 완전한 화려함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고 싶지 않았다. 물론 대관식까지 촉박하긴 했으나 헤르세인은 알렌드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의뢰를 부탁하게 되었고 다행이 알렌드로는 순순히 의뢰를 받아들여 군주로서 위엄이 갖춰진, 하지만 너무나 화려하지 않은 동시에 우아함을 갖춘 절제된 드레스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대관식의 날. 공녀들은 물론 귀부인들 사이에서 헤르세인이 입은 드레스는 여전히 화자 될 만큼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알렌드로가 만든 드레스만을 입게 된 헤르세인은 그를 왕실의 명예 수석 왕실 디자이너로 임명하여, 아직까지 그가 만든 드레스가 아니면 다른 드레스는 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녀들의 손에 빠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겉옷의 드레스를 완벽히 갖춰 입은 헤르세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시녀들을 손길을 흘끔 보며 다시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작게 가슴께 부분이 패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등 부분이 작게 패인 것을 빼면 완벽히 몸을 감싼 드레스였다.

하지만 어두운 색감과 은색의 수로 포인트를 주어 무늬를 새긴 드레스는 알렌드로의 또 다른 걸작이라 할 만큼 선대 국왕들 보다는 화려함이 덜했지만, 위엄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왕에게 맞춰진 드레스나 다름없었다. 암청색 안쪽 드레스 색을 포인트로 코트 형식으로 몸을 감싼 검은 겉옷은 길게 늘어져 언뜻 뒤에서 보면 망토 형식과도 같아 이보다 더 헤르세인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는 없었다.

어느새 헤르세인의 양쪽 검지 손가락엔 원석 에메랄드로 세공된 반지가 시녀들을 통해 끼어져 있었다. 더욱이 드레스와 어울리는 검은 계열의 푸른 구두가 신겨진 것은 물론, 마지막으로 완벽한 군주의 모습으로 장식될 사파이어가 여럿 박힌 은빛의 왕관과 귓불에는 오랫동안 함께한 루비 귀걸이가 걸려 있자 헤르세인은 더 이상 거울을 볼 필요도 없이 등을 돌려 차분한 음성으로 라즐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조식은 건너뛰겠다.”

“예, 폐하. 수석 조리장에게 그리 일러두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침 회의실로 갈 테니, 라즐리 지금 바로 내 말을 전갈에게 전하도록.”

“어느 분에게 말씀이신지...”

거의 문 앞까지 다가가 멈춰선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틀어 라즐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갈이 향할 행선지를 알려주었다.

“라인하르트 공작에게.”

“...예?”

“라인하르트 공작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오늘 아침 회의엔 공작이 전혀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전갈을.”

라즐리에게 전달할 말을 전부 남긴 헤르세인은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문을 열고 시녀와 하녀들을 대동하여 침실 밖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홀로 침실에 남게 된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남긴 말을 어떤 식으로 전갈에게 전해야할지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아침 조식을 건너 뛴, 아침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서 헤르세인은 본격적으로 일에 몰두 했다. 집무실에 앉아 무더기처럼 쌓인 서류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했으며 점심 먹을 시간조차 아까운 나머지, 점심까지 건너뛰려 했으나 라즐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간단하게 먹기를 선택해야 했다. 적당히 배를 채운 뒤, 잠시 소화를 시킬 겸 왕실 내부를 시찰 겸 산책하듯 돌아다니던 헤르세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한 인물을 마주할 수 있었다.

“폐하.”

“공작, 그대가 여긴 어쩐 일이지?”

“제가 폐하의 앞에 선 이유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헤르세인은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어느 귀족들조차 이런 대담한 발언을 하는 귀족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귀족은 지금 헤르세인의 앞에 있는 공작만이 유일했다.

“라인하르트 공작.”

“예, 폐하.”

헤르세인이 완전한 왕위를 받을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준 라인하르트 가문. 라인하르트 가문은 그때의 공으로 작위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후작 가문이 아닌, 현재 가장 주축이 되는 ‘공작 가문’이 되었다, 또한 과거 라인하르트 후작이 미처 이루지 못한 왕실의 병권을 현재 새로운 가주가 된 그의 장자이자 후계자였던 클로드가 쥐게 되면서 라인하르트 가문은 그야말로 박쥐와도 같은 귀족들에겐 황금 동아줄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가문으로 승승장구 중이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 배를 탄 사이였을 사이라도 헤르세인이 왕위에 오른 지도 7년. 헤르세인과 클로드와의 정치적 대립은 어느새 부턴가 어긋나고 있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면에서 일 뿐. 사적으론 서로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는 관계이기에 헤르세인은 치켜뜨고 있던 눈썹을 내려 클로드에게 잠시 동안의 티타임을 권유했다.

“공작, 괜찮다면 잠시 차 한 잔 어떻겠나? 아무래도 서서 얘기하기엔 마땅한 장소가 아닌 듯싶군.”

“폐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티타임이 생겼으나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클로드 역시 그 뒤를 쫓았다.

고요한 적막으로 감싸인 집무실에서 갖는 티타임의 시간. 라즐리는 이미 이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헤르세인과 클로드, 이 두 사람이 있는 실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빈 찻잔에 뜨거운 찻물을 따라낸 라즐리는 헤르세인의 눈짓 없이 스스로 자리를 비켜 완전히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사람 한명 빠졌을 뿐임에도 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 물끄러미 찻잔을 바라보고 있던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을 먼저 깨버렸다.

“라인하르트 공작.”

“예, 폐하.”

“그대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오늘 보낸 전갈은 물론이고, 내가 그대의 청을 계속 묵살하는 이유 말이네. 그리고 그대와 계속 대립하는 것 역시.”

찻잔엔 손끝조차 대지 않는 헤르세인과 달리, 무표정임에도 차 한 잔 마신 클로드의 행동에는 불만보다 여유로움이 묻어나 있었다. 어느새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며 가끔씩 이야기를 나눈 지 7년의 시간. 그러나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오래였기 때문에 헤르세인도 클로드도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정치적인 대립과 사적인 인연을 떠나 두 사람에겐 아직까지 어색한 점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차마 입을 열기 어려운 한 사람의 존재.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에게 다시 찍어내는 상처임을 알기에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클로드가 먼저 꺼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기에 클로드는 최대한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야 했다.

“한 번도 폐하께 그런 불충한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불충이라… 반대로 그대가 권력을 이용해 내 옆자리를 은근히 노리는 것은 아니고?”

“폐하!”

방금 전까지도 한결 여유롭게 앉아있던 클로드의 목소리가 살짝 노기를 띠우자, 헤르세인은 오히려 클로드보다 평온한 얼굴로 그것도 무표정을 고수하며 방금 대답한 말은 단순한 농담임을 대답했다.

“농담이네. 그대의 충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어째서 제 간곡한 청은 계속 묵인하시는 것입니까?”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을 뿐이지. 내가 이토록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어째서 그대가 다른 귀족들보다 재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군.”

이미 클로드의 손에선 찻잔은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다. 더 이상 찻잔에 손을 댈 생각도 없이 클로드는 가장 진중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헤르세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힘을 써야 했다.

“폐하께서 집권을 하신지가 어느덧 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계속 치세가 이어지실지 몰라도, 결국 사람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폐하께서 갑자기 무너지신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은 왕권이고 그 다음이 귀족들입니다. 그러니 폐하, 부디 간청하건데 ‘국서’를 들이십시오.”

현재 헤르세인은 사브레 왕국의 중심축이자 가장 권력구도의 정점인 국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헤르세인 나이 때쯤의 젊은 왕들은 일찍이 정실 왕후를 들여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후사를 일찍 보지만, 아직까지 헤르세인에겐 그 뒤를 버텨줄 ‘왕의 남편’이 없었으며 국서가 없기에 왕권을 더욱 굳건히 강화시킬 후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온 귀족들이 어서 헤르세인이 국서를 맞이해 후사를 보아 왕권을 안정시키길 바랐지만, 정작 그 일의 당사자인 헤르세인은 국서를 맞이하길 누구보다 꺼려했다. 말로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그 옆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클로드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에 더더욱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

“라인하르트 공작.”

클로드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부른 헤르세인의 시린 코발트빛의 푸른 눈과 마주쳤다. 그 푸른 눈 속에 담긴 그녀의 물음이 클로드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다. 어째서 이토록 자신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냐는 간절함과 배신감이 뒤 섞인 원망의 눈동자. 그 눈빛을 쏘아붙이며 헤르세인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자리가… 특히 군주에겐 감정적인 마음으론 혼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네. 국서. 그대의 말처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 왕권을 이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선 나에겐 내 피를 이은 적통의 후계자가 필요하고, 내 뒤를 받쳐줄 국서와 국서의 가문의 힘 역시 필요하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

“그럼, 무엇을 망설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허를 찌르는 클로드의 목소리에 미묘히 미간을 좁히고 있던 헤르세인의 얼굴은 단숨에 일그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표정과 관계없이 클로드의 가시 같은 말은 결국, 오랫동안 아물어져 가고 있던 헤르세인의 상처를 건드리기엔 충분했다.

“7년입니다. 이미, 제 동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폐하. 언제까지 죽은 이의 망령을 붙들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닥치시오. 공작.”

“7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폐하께선 더 이상 혼자의 몸이 아닌, 사브레 왕국을 지탱하는 존재이시자 더 이상 연심 하나로 한 사람만을 품을 수 없는 몸이십니다.”

“닥치라 했소, 라인하르트 공작.”

“아뢰옵기 송구하나, 루드비카라면 폐하께서 평생 혼자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라인하르트 공작! 닥치라는 말이 안 들리는 가!!”

더 이상 두 귀로 듣기를 거부한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벌떡 일어섰다. 그 반동으로 그녀의 앞에 놓여 있던 찻잔이 엎어지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찻물이 테이블 위로 그 밑의 카펫 아래로 흥건히 적셨지만, 헤르세인의 시선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제 앞에 루드비카를 언급한 클로드를 원망이 노려보며 헤르세인은 온몸을 떨어내며 주먹을 그러쥐었다.

“내 심기를 건드릴 작정이었다면 성공했소, 공작. 하지만! 내 앞에서 그 사람을 언급한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일. 설령! 날 위한 충언일 지라도 공작! 그대만은 그 이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어!”

“폐하! 저는 단지─!”

“변명 따위! 내게… 내세우지 말게. 아무리 그대가 그 사람의 형제 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게 그런 말을 해선 안 됐어. 라피스! 라피스!!”

헤르세인의 큰 호령이 집무실 바깥까지 울려 퍼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색의 제복을 입은 호위기사인 라피스가 빠르게 들어왔다. 라피스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헤르세인은 눈짓 한번 없이 여전히 클로드를 노려보고 있는 시선 그대로 싸늘히 명령을 내렸다.

“호위기사인 라피스는 라인하르트 공작을 본성 입구까지 정중히 모시도록 해라. 지금 당장!”

“예, 폐하. 공작각하. 제가 본성 입구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모습을 탈피하고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라피스는 정중한 목소리로 클로드가 먼저 일어나주길 기다렸다. 아무리 호위기사라 할지라도 상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 귀족중의 귀족 라인하르트 공작. 더불어 공작의 자리를 이어받기 전엔 기사로서도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오래전부터 그를 향한 동경을 갖고 있던 라피스는 호위기사라는 명분으로 공작을 거칠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제 자신이 큰 상처를 건드렸다는 점을 인지한 클로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새 완전히 등을 돌린 헤르세인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죄를 해야 했다.

“제가 잠시…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왕국의 안정을 생각하시어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실언으로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혔으니 당분간 저는 자택에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

끼익,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어느덧 집무실에는 완벽히 헤르세인 혼자 남게 되었다. 어수선하게 들리는 복도의 발소리도 목소리조차 완벽히 차단된, 그야말로 고립의 결정체인 왕의 집무실.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헤르세인은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창밖의 석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다시 떠올리게 된 한 사람.

헤르세인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제 아무리 손을 뻗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석양을 손끝에 그리며 오랫동안 입에 담아내지 못한 한 사람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다.

“루드비카...”

클로드의 말처럼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연인. 오래 전 그의 묘비 앞에 푸른 꽃에 맹세했던 그 말을 헤르세인은 다시금 떠올렸다.

"이 꽃의 꽃말처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 내 속죄이자 당신이 내게 바란 소원이니까."

어찌 못 잊을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의 인연과 그에게 만을 모든 것을 받친 자신의 연심을.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의 얼굴을, 그가 제게 남긴 연심을 잊지 않으려 할 때면, 머릿속은 이기적이게도 시간의 흐름 따라 점차 제 머릿속에서 그의 흔적들을 지워내려 했다. 더욱이 왕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헤르세인은 수 십 번이고 국왕으로서의 냉정한 판단과 그를 잊지 못한 연심 사이에 매번 저울질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서서히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매번 국서를 들이라는 귀족들의 끊임없는 간청과 어떡해서든 국서에 들고자 자신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 젊은 귀족가의 후계자들. 또는 일찍이 가주의 자리에 앉은 미혼의 귀족들까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제 자신이 사사로운 감정에 결코 휘둘려선 안 될 국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가슴만큼은 냉정해질 수가 없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기로 맹세 했는데… 아직도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나는 결국, 당신을 내 기억 속에만 남긴 채로 국혼을 선택해야하는 걸까?”

이런 선택을 언젠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젠 뒤로 한발자국 물러설 수조차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았다. 여인으로서의 선택. 그리고 국왕으로서의 선택의 갈림길. 헤르세인은 눈을 감아 오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 자리에 앉고자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버리고 군주로서의 길을 걸으려는 제 자신의 과거를.

루드비카의 죽음으로 라인하르트 후작은 수도에 있는 별장이 아닌 본가가 있는 영지로 떠날 예정이었다. 아비로서의 모습과 후작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가문에 대해 천천히 되돌아볼 생각으로 후작은 마음을 정리하고자 며칠 동안 바쁜 일들을 모두 내려놓았지만 어수선한 별장에 뜻밖의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

“저는 전하께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군요.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찾아온 건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냉철하던 후작의 눈은 한명의 자식을 잃어 그 냉철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비록 그 냉철함은 잃었으나 지금 눈앞에 있는 손님을 향한 냉정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후작의 잿빛의 눈동자는 책망을 담아 고요히 헤르세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드비카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기란 헤르세인에겐 쉽지 않았다. 과연 이 발걸음이 옳은 것인지, 현재의 자신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라인하르트 가문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헤르세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수 십 번을, 수 백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해진 답은 없었으나 방법은 이것뿐. 염치없음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임을 알면서도 헤르세인은 이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염치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후작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정도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까지 찾아온 건 후작의 도움이 제겐 절실히 필요해서입니다.”

“제 도움이라 하셨습니까?”

“…예. 저는 후작의 힘을, 라인하르트 가문이란 이름의 힘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후작은 잠시 미간을 좁혀 뚫어질 정도로 헤르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제 아들이 그토록 목이 멜 만큼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이뤄질 수 없었던 여인이자 사랑해선 안 됐을 여인. 후작은 한 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만약, 헤르세인 왕녀가 그저 ‘사생아 왕녀’가 아닌, 평범한 귀족가의 여식이었다면 어땠을 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러나 결국 생각은 생각. 현실은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다름을 후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 하필 루드비카가 헤르세인 왕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젊은 시절 자신 역시, 로자르나를 한때 열정적으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지 않던가.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귀족일수록 가문의 힘이 거대하고 위세가 드높은 가문일수록 감정만으로 사랑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혈통을 위해서라도 가문과 가문의 화합이 귀족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것을 저버릴 만큼 감정이란 것에 특히나 사랑을 더욱 중요시 했으며, 그 끝은 결국 파멸이었다. 그리고 제 자식의 파멸을 이끈 여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후작은 작게 한숨을 토해내며 헤르세인에게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절의 뜻을 밝혔다.

“제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왕녀전하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시지요.”

후작이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헤르세인이 떠나길 기다리자,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이 일을 예상했기에 더욱 물러날 수 없는 눈으로 숨을 들이키며 가까스로 입을 뗐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후작께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모습일지. 하지만…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라. 가뜩이나 후작의 머릿속은 정리해야할 것들이 넘쳐났다. 그런데 그 복잡한 머릿속에 저를 붙잡는 왕녀의 간곡한 목소리에 후작은 다시금 옅은 한숨이 나왔다. 원래라면 이미 자리를 박차 나가고도 남았을 무의미한 시간. 그러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꿋꿋한 모습에 후작은 제자리에 도로 앉을 수밖에 없었다.

“길게는 듣지 않겠습니다. 단,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 앉는 시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 왕녀전하의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후작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접객실에 나온 헤르세인은 텅 비어버린 복도를 쓸쓸이 걸어갔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서 나 홀로 걸어 들어온 라인하르트 가의 저택. 분명, 이 저택이 루드비카의 오랜 흔적이 남아있는 저택임을 알면서도 이곳은 한 겨울처럼 너무도 차가웠다.

그렇게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텅 비어버린 복도를 지났을 무렵. 이제 막 계단에서 발을 떼던 헤르세인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후작의 모습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후작을 빼닮은 라인하르트 가의 장자인 클로드였다.

“만찬회 때 이후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루드비카의 형이자 라인하르트 가의 장남인 클로드라 합니다.”

만찬회 때는 워낙 경향이 없어 루드비카의 형인 클로드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또 루드비카의 하나 뿐인 형제이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그의 인사를 받았음에도 어쩐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가 아니십니까. 루드비카의 형으로서 아우가 사랑하는 여인을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

그 역시, 후작처럼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후작의 깊은 잿빛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헤르세인은 단번에 그의 책망어린 눈동자를 읽어낼 수 있었다. 아니, 읽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자신은 루드비카를 전쟁터로, 죽음으로 내몰아낸 원인이 아니던가. 거기다 뻔뻔히 얼굴을 들이민 것 까지. 후작이 그런 눈을 제게 하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아무리 마주하고 있어도 제 스스로 볼 낮이 없음에도 헤르세인은 쉽게 읽어 내린 후작의 눈과 다르게 루드비카의 형인 클로드의 눈은 읽어낼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는 후작과 닮은 잿빛의 눈동자. 그래서 일까. 왠지 모르겠지만 차마 후작에게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헤르세인은 물어보고 싶었다.

“제가… 원망스러운가요?”

왜 이런 질문이 하고 싶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가까운 형이기 때문이어서? 하지만 클로드에게서 나온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다.

“원망… 제가 감히 왕녀전하께 원망이란 감정을 어찌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원망이란 자체를 품을 처지가 못 됩니다. 물론… 한때는 자꾸만 어긋나는 루드비카의 행동에 도대체 전하께선 어떤 분이시기에 제 동생을 그렇게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전하로 인해 자꾸만 어지럽혀지는 가문의 일로 전하를 향한 미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느 귀족들처럼 왕녀전하를 좋지 않게 본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왕녀전하를 원망할 처지가 못 됩니다. 비록 어머니의 핏줄이 서로 다를지라도 루드비카는 저를 한 가족으로서 형으로서 대해줬지만, 저는 루드비카를 그렇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아버지의 핏줄로서만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헤르세인은 힘없이 펴있던 그의 손이 입을 떼는 동시에 강하게 주먹을 움켜쥐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처음이었습니다. 루드비카가 그토록 절실히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제 아무리 감정이 풍부한 동생이라 해도 저를 어느 정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게 무언가 부탁을 한 적이 없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루드비카가 처음으로 제게 절실히 부탁하더군요. 제발 전하의 곁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제게 말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루드비카를 형으로서 제대로 보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요.”

분명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는 표정을 읽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색할 정도로 감정조차 담겨있지 않는 잿빛 눈동자가 저를 볼수록 온 몸이 굳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내고 있는지, 비록 표정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그가 얼마나 루드비카를 제 방식대로 아꼈는지를 그 말 속에 알 수 있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다고. 저는 지금에 와서야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루드비카의 빈자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컸는지….”

그는 진심으로 루드비카를 제 방식대로 아꼈던 건지도 몰랐다. 만약, 루드비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형의 모습을 보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하지만 헤르세인 역시 클로드의 마지막 말이 가슴깊이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자신 역시, 루드비카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느새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돌아온 클로드는 숨을 작게 들이키곤 헤르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서서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무례를 용서해주시길.”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어 괜찮다는 뜻을 보이자, 곧바로 고개를 세운 클로드는 정중히 부탁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전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무엇일까. 전혀 짐작되지 않았지만 왠지 그 부탁을 거절하면 영영 그가 보여주고 싶은 곳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드의 뒤를 따라 수 십 개의 계단과 기나긴 복도를 지나 헤르세인이 도착한 곳은 굳게 닫힌 어느 문이 있는 장소였다. 앞장서있던 클로드가 그 문을 열어줌으로서 어느 장소인지 모를 열릴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헤르세인은 곧바로 이곳이 침실임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푸른 실내의 모습. 얼핏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긴 했으나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로 침실 용도로만 사용될 뿐, 사람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틀어 바로 근처에 있던 클로드에게 물었다.

“여기는 침실 아닌가요?”

“예. 이곳은… 루드비카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침실입니다. 루드비카의… 모든 흔적이 담긴 장소입니다.”

루드비카의 하루의 시작이자 하루의 끝을 보내는 유일한 장소. 가문의 별장보다 이 침실의 온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 건 착각이 아니었다. 어째서, 왜, 클로드가 자신에게 루드비카의 침실을 보여주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실에 발을 딛고 침실의 풍경을 보는 순간, 헤르세인의 두 눈에 루드비카의 허상이 이곳저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저는 잠시 나가 있을 테니 편히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달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소리는 헤르세인에겐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분명 두 눈에 비치는 것이 허상임을 알면서도 헤르세인은 그 허상을 쫓아 그가 멈춰 선 곳, 그가 앉은 곳, 그가 바라보는 곳곳에 두 다리를 멈춰 탁자를 쓸고 창가를 바라보고 의자에 앉으며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루드비카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루카….”

이제는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 분명, 그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맹세를 했거늘 그 맹세는 배신처럼 헤르세인의 두 눈엔 이미 뜨겁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매일 내가 있는 곳에 와줬는데… 정작 나는 당신이 있는 장소에 와본 적이 없었네….”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랑하는 이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성역처럼, 금단의 구역처럼 그의 유일한 안식의 장소에 자신의 두 다리가 멈춰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이렇게 흔적을 쫓음에도 기다리고 있음에도 이곳의 주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 여기에 있어… 당신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곳에… 루카….”

어떻게 후작가에서 나와 왕성으로 돌아왔는지 헤르세인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 부탁을 하고자 라인하르트 후작을 만나고자 갔던 발걸음이었거늘, 루드비카의 공간에 발을 들인 후로 헤르세인은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왕성에 도착하고 나서 제대로 기억나는 거라곤 클로드에게 주려했던 루드비카의 루비 귀걸이. 그의 모친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루드비카가 자신에게 준 가장 소중한 귀걸이. 그에 대한 애정과 연민, 그리고 귀걸이를 볼 때마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리움 탓일까.

루드비카가 자신에게 준 선물들은 다양했지만, 헤르세인은 유일하게 루비 귀걸이만큼은 사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루드비카를 떠올리고자 루비 귀걸이를 볼 때면 미칠 듯이 사무치는 그리움 탓에 밤을 지세길 몇 번이던가.

잊어야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의 무덤 앞에 맹세를 했음에도 그와 함께 했던 기억이, 마음이 생각처럼 냉정하게 이성적이게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린 결단.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귀걸이를 클로드에게 주고자 마음먹었다. 어차피 자신은 평생 귀를 뚫을 수도 없었으며, 귀걸이를 갖고 있어봤자 루드비카를 향한 그리움만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러나 헤르세인의 바람과는 달리, 클로드는 그 귀걸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왕녀전하, 이건 제 것이 아닌 루드비카가 모든 마음이 담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디 루드비카의 것이었고 비록 어머니의 피는 다를지언정 처음부터 그 귀걸이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무슨 생각으로 제게 이것을 주시려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 귀걸이를 볼 때마다 루드비카를 떠오르시겠지요. 하지만 전하. 지금의 슬픔과 그리움을 애써 피하고자 루드비카가 진심을 담아 전하께 드린 그 귀걸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하께서 어떻게 쓰실 지는 전하의 손에 달려있으나 이미 그 귀걸이는 왕녀전하의 것입니다."

헤르세인은 탁자에 덩그러니 놓아진 귀걸이가 담긴 케이스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케이스만 보기를 십여 분. 헤르세인은 작게 숨을 들이켜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그리고 푸른 눈동자위로 전부가 담긴 붉은빛의 루비 귀걸이가 빛을 냈다.

“루카….”

역시나, 귀걸이의 붉은 루비를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은 이미 루드비카의 모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루드비카를 완전히 잊으려 한건 아니었다. 단지, 이 귀걸이를 볼 때마다 그의 무덤 앞에서 한 맹세가 무너질까봐, 자신의 마음이 나약해질까봐 그저 밀어내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가 큰 결심을 하고 그것도 모친의 유품을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던가. 그것도 자신을 향한 모든 마음을 담아내서.

왜 이토록 자신은 어리석은 걸까….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는 없는데, 이렇게 두 눈으로 현실을 가득 담아 보고 있음에도 정작 보고 싶은 사람은 옆자리에 없는데. 루드비카가 떠난 뒤로 헤르세인은 온전히 그를 향한 미안함 뿐이었다.

“당신의 형의 말처럼 이 귀걸이는 당신이 모든 마음을 담아, 내게 준 것인데… 난 내 마음이 나약해질까봐 당신이 준 이 귀걸이를 외면하려 했어.”

아직까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잘게 흔들리는 손을 들어 귀걸이의 끝을 만지작거렸다. 당장 양쪽 귀에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지금의 현실. 헤르세인은 이내 귀걸이의 케이스를 닫아 두 손 가득 케이스를 쥐었다. 그리고 가슴께에 품어 다시 한 번 루드비카를 향해 맹세하듯 이번엔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고자 나지막이 속삭였다.

“맹세 할게. 이건 당신의 모든 흔적이자 당신이 내게 남긴 소중한 마음이 깃든 것. 두 번 다시 내 마음이 나약해졌다는 핑계로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어. 그리고 약속할게. 내가 바라는 일이 만약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이 귀걸이를 내 귀에 걸겠어. 그러니 지켜봐줘 루카. 내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 강해지겠어. 아니… 강해질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도.”

드문 기억 속에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약속이나 맹세를 말하는 순간, 그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령’이란 것이 있다고. 그때 당시 헤르세인은 단순히 그가 재미로 뱉어낸 말이 아닐까 싶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겐 반드시 이뤄져야할 무언가의 힘이 필요했다. 그것이 기도로 이뤄낸 신의 힘이든, 언령의 힘이든.

그리고 반드시 언령의 힘이 아닐지라도 헤르세인은 이 말을 꼭 실현시켜야만 했다. 그래야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의미가 있으니까….

갑작스런 전쟁이 끝나 조용한 평화는 찾아왔으나 왕실내의 분위기는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점점 다른 의미로 미쳐가고 있는 위스턴 국왕의 모습으로 인해 귀족들은 서서히 차기 국왕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윌리스 왕태자가 서 있었다.

국왕의 다음으로 가장 서열이 높은 윌리스 왕태자. 그동안 왕태자로서 차근차근 왕실의 입지를 다져놓은 윌리스 왕태자로서 당장 왕위에 오른다 해도 반기를 드는 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위스턴 국왕과 카타리아 왕후의 사이에서 태어난 적통의 서열 1위의 왕태자이며, 윌리스 왕태자만큼 다음 왕위에 어울리는 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스턴 국왕이 오로지 왕후만 보았다면 다음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게도 윌리스 왕태자겠지만, 위스턴 국왕에게는 또 다른 핏줄이 존재했다. 바로 윌리스 왕태자보다 한참 서열이 아래이자 아직 어린 축에 속하는 빈센트 왕자의 존재. 국왕의 피는 같을 지언정 모친 쪽의 핏줄이 다른 빈센트 왕자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국왕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총애 쪽의 힘이 막강했기에 어느 순간, 빈센트 왕자에게도 작은 세력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스턴 국왕이 미치지 않은 제정신일 때의 상황과 아라네아 왕비가 살아있었을 과거. 전쟁이 끝난 뒤로 또 다시 칩거하듯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 위스턴 국왕으로 인해 현재 왕실을 장악하고 있는 이는 카타리아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였다.

때문에 카타리아 왕후는 위스턴 국왕이 혹시라도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서둘러 왕위를 윌리스 왕태자에게 넘기고자 자신의 편인 귀족들을 모아 일을 서두르고 있었다.

“요즘 귀족파, 중립파, 그리고 온건파 귀족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혹시, 다른 움직임이라도 있는 겐가?”

그녀의 날카로운 물음에 현재 왕당파에서 독립적인 왕후세력 쪽으로, 즉 윌리스 왕태자의 세력으로 전부 돌아선 귀족들 중 한명이 고개를 저으며 왕후에게 대답했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파의 귀족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왕실 내부 상황이 어떤지 말입니다. 올해 안으로 폐하께서 혹여라도 왕태자 전하께 선위를 하지 않으면 왕국 전체가 전쟁 때보다 더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지. 지금 폐하께선 완전히 미쳐버리시기 일보직전이니 말이지. 폐하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라 한 일은 어찌 되었는가?”

“저어… 그것이….”

기대와는 달리, 꾸물거리며 자신의 눈을 은근히 피하는 귀족들의 모습에 왕후는 결국 혀를 찼다.

“설마, 아직도 ‘왕의 증표’를 찾지 못한 겐가? 도대체 어찌 일을 하길래 아직도 증표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인가?”

“송구합니다, 왕후폐하. 하오나 왕의 증표가 ‘그 사건’이후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지라… 또, 워낙 오래된 일이고 어디서부터 찾아야할지 막막하여….”

카타리아 왕후는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왕실 내의 작은 회의실에 모인 귀족들을 쏘아봤다. 그럼에도 헛기침을 내며 은근히 왕후의 시선을 피하는 귀족들의 모습에 왕후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이번엔 강하게 소리쳤다.

“어디서부터 찾을지가 아니라 어떡해서든 왕국을 뒤져서라도 찾아야하네! 그대들은 지금의 국왕폐하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하오나, 왕후폐─!”

“찾지 못하겠다는 말 따윈 듣지 않겠네. 그리고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도 알고 있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결국 핵심의 문제는 대관식이 아닌가? 그 대관식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전 말일세! 그때 당시 지금의 폐하께선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교황이 눈감아 줌으로서 지금의 자리에 폐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셨지만 그때랑 지금의 상황은 다르단 말이네!”

왕후는 불안을 표현하듯 검지 손가락으로 탁자를 계속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야 했다. 지금의 위스턴 국왕을 강압적으로 움직여 선위 공표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었다. 안 그래도 전보다 이 세상에 없는 아라네아 왕비를 찾는 일이 더 심해졌으며 그것에 도를 넘어 현재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상태. 술이 없으면 잠을 들지 못하고 술이 있어야 진정되는 국왕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왕후는 속이 쓰리나 미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문제는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증표가 필요했다. 사브레 왕국은 건국 이래 오랫동안 왕의 증표라 불리는 특이한 펜던트를 만들어 오로지 왕위를 이어받는 국왕만이 걸 수 있는 목걸이라 하여 왕의 증표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당연하게도 그것은 왕의 일부분 중 하나와도 같아 사브레 왕국의 역대 국왕들 중, 왕의 증표를 목에 걸고 초상화를 남기지 않은 국왕들은 없었다.

다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초상화를 남기지 않는 국왕이 현재의 위스턴 국왕일 뿐.

카타리아 왕후는 순간, 아주 오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갈며 손톱이 박히도록 주먹을 그러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곳이 모든 귀족들이 모인 회의장임을 생각하자 왕후는 그러쥐고 있던 손을 풀어 다시 한 번 귀족들에게 고압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당장은 못 찾더라도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린 그 증표만 찾으면 되는 일이네. 그러니 반드시 그 증표를 찾아야 할 것이네. 그대들이 그 증표만 윌리스 왕태자에게 고스란히 바치면

나는 물론이고 왕태자 역시 그대들의 공을 잊지 않을 거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대들의 작위는 물론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세.”

마지막 말이 귀족들의 욕심과 탐욕을 일으켰는지 쉽지 않은 표정을 보인 귀족들은 단숨에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모두가 눈을 빛냈다. 그들에게서 있어, 이보다 더 유혹적이고 욕심적인 일은 결코 없었다.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귀족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후에게 예를 갖추고 그들만의 회의를 끝마쳤다.

귀족들이 우르르 몰려 회의장을 전부 떠나갈 때까지 아직까지 자리에서 미동조차 않던 왕후는 점점 자신 쪽으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어 눈앞의 익숙한 인물을 볼 수 있었다.

“여긴 어인 일이냐. 윌리스.”

“또, 제가 없는 사이 귀족들을 모두 불러들이셨더군요. 어머니.”

“네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란다. 다 널 위한 일이니. 설마… 이 어미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의자를 끌어 어느새 자리에 앉은 윌리스는 자신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왕후를 향해 표정 없이 담담히 대답했다.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 뿐인 아들로서, 제가 어찌 어머니를 믿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 네 표정은 어찌 내 행동이 탐탁지 않아 보이는 것 같구나.”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폐하대신 제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다 보니 잠시 피로가 쌓인 지도 모르겠지요.”

“...그래?”

왕후는 말없이 제 아들의 옆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평소라면 작은 농담이라도 주고받았을 그야말로 흔한 모자지간이건만, 어째서인지 카타리아 왕후는 윌리스 왕태자에게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다. 제 아들이 국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해서가 아닌, 정확히 아라네아 왕비가 죽은 그 시점부터.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던가. 결국 최후의 승자는 죽은 그녀가 아닌, 자신이었으며 끝까지 살아남아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 까지, 더 나아가 왕태후까지 되는 것이 카타리아 왕후의 바람이자 최후의 꿈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왕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윌리스 왕태자를 이제 막 지나치기 전, 제자리에 멈췄다. 그리고 반드시 자식을 왕위에 앉히겠다는 욕망을 드러냈다.

“윌리스, 너만은 이 어미를 배신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를 꼭 이 나라를 통치할 꼭대기에 앉히게 해주마. 내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각, 또각, 하고 넓은 회의장을 울리는 왕후의 구두소리는 순식간에 메아리 퍼지듯 사라졌다. 그러나 왕후의 구두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윌리스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일 뿐, 윌리스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을 밝히는 은빛의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깊게 로브를 눌러 쓴 두 명의 여인이 바짝 주변을 경계하며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사람이 밀집 되어 있는 수도 중심을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드문 수도의 어두운 외곽. 빛이 가득한 수도의 중심과 달리, 외곽은 유령이 나올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음침하고 으스스했으며 함부로 어느 골목마다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두 여인은 기필코 이 골목을 지나 누군가를 찾아야할 이유가 분명했는지 위험을 무릎 쓰고 더더욱 깊숙이 외곽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서야 마침내 두 여인이 도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허름하기 짝이 없는 정체불명의 집. 벽에 붙어 문을 밝히고 있는 불꽃은 평소에 보던 붉으면서도 노란 불꽃이 아닌, 음산해 보이는 보랏빛의 불꽃이 허름한 집 문을 작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찾아내던 장소이건만, 어째서인지 두 여인은 선뜻 문을 두드리기가 겁이 났는지 몇 번이고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오래 기다릴 수 없었던지 뒤에 있던 한 여인의 강한 압박의 목소리에 결국 앞장서 있던 여인은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어서, 문을 두드려라.”

“…예.”

똑, 똑, 똑 하고 일정한 음정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정확히 문을 세 번 두드린 순간, 기괴할 정도의 듣기 싫은 소리가 끼이익하고 낡은 소리를 내며 지옥의 문처럼 열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서 두 여인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등이 굽은 늙은 노파. 깊게 주름이 페인 것은 물론, 눈 밑에는 검게 짙어진 그림자가 드리웠으나 눈빛만큼은 기묘히 빛내며 마치 두 여인이 올 것을 이미 예상한 듯 정중히 맞이했다.

“어서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니. 내가 찾아올 것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말처럼 들리는 구나.”

뒤에 서 있던 여인의 날카로운 물음에도 노파는 듣기 싫은 쇳소리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다듬어지지 않은 긴 손톱의 손을 정중히 내밀며 안으로 안내했다.

“이 세상에 제가 모를 것은 없지요. 하지만 서 있는 채로 얘기를 나누기엔 기나긴 얘기가 될 것 같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제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에 이곳까지 어려움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방지구나.”

깊게 로브로 가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이미 목소리에는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하지만 노파의 말처럼 이렇게 문 앞에 서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간단한 잡담 같은 것이 아니기에 먼저 뒤에 있던 여인이 앞에 서 있던 여인을 재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밖이나 안이나 초라하고 으스스한 건 똑같군.”

“빛 속에 계신 분에겐 외람된 말씀이나, 이 늙은이에겐 빛은 치명적인 무기와도 같습니다.”

“무기?”

“예, 시체를 다루는 ‘강령술사’에게 있어서 빛은 어둠의 주술을 파괴하는 유일한 약점과도 같지요. 그럼 로브를 벗어 제게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게 될 인연일터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서로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파의 말이 유독 우스웠는지 여인은 기가 찬 목소리로 코웃음을 쳤지만, 틀린 말은 없기에 여인은 떨떠름한 손짓으로 로브를 벗고자 이제 막 움직이던 찰나였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령술사라 해도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실 수는 없습니다. 후에 이 일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다른 여인의 말림에도 노파에게서 유독 시선을 떼지 않던 여인은 제 팔을 잡은 손을 냉정히 내치며 가볍게 로브를 벗어냈다. 그리고 보랏빛의 불꽃 사이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어둠 속에 죽음의 영혼을 보는 강령술사일지라도 본질은 주술사. 젊었을 적의 주술의 힘에 비하면 미약하나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그 어느 누가 감히 왕녀전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늦었지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모르가나’라 합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케시아는 늙은 노파, 아니 왕국의 유일한 강령술사라 할 수 있는 모르가나를 보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다급히 입을 열었다.

“정말로 네가 내 ‘바람’을 이뤄줄 수 있는 것이냐? 한 치의 거짓 없이 말해라. 정말로 네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냔 말이다.”

케시아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루드비카, 그가 죽은 이후로 한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 제정신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가. 하지만 이제 그 눈물로 지새우는 밤은 끝날 것이었다.

그토록 백방을 알아보며 찾고 또 찾아 간신히 찾아낸 강령술사. 지금 이렇게 두 다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케시아에겐 간절했다. 이대로 그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사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이 있더라도 왕실에서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케시아는 오직 하나만을 바라고 또 바랐다.

그를, 루드비카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이젠 사랑이고 집착이고 전부다 상관없었다. 설령 그의 육신이 껍데기인 채로 되살아날지라도 케시아는 게의 치 않았다. 그의 껍데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같은 지옥을 느낄 수는 없었으니까.

어금니가 맞물리며 까드득하는 소리가 케이사의 주변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손톱이 박히도록 그러쥔 주먹까지.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고 이 기회가 아니면 루드비카를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케시아는 모르가나를 노려보듯 다시 한 번 되물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정말로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냐.”

모르가나는 집요하게 저를 눈으로 쫓는 반쯤 미쳐버린 왕녀를 보며 기괴한 쇳소리의 웃음소리를 냈다. 죽은 이를 살려내는 건 강령술사에겐 무척이나 쉬운 일이었다. 다만, 죽은 이를 살려낼 의뢰인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죽은 이를 살려낼 수 있을지 없을지 반반의 확률이 달려 있을 뿐.

하지만 모르가나는 케시아의 눈빛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분명 그녀를 통해 죽은 이를 반드시 되 살려낼 수 있음을.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집착과 일그러진 사랑이 죽은 이를 되살리기에 이토록 적합한 의뢰인이 아닐 수 없었다. 모르가나는 다 터버린 입술을 움직여 음산한 눈빛으로 케시아에게 대답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고자 찾아오신 게 아니십니까. 그리고 왕국의 고귀하신 왕녀전하의 부탁이신데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전하께서 아시다시피, 강령술은 죽은 이를 살리는 금지된 술법. 전하께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구… 라고?”

케시아가 눈썹을 꿈틀거리자 모르가나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혼자서는 죽은 이를 살리기는 힘이 듭니다. 본질적인 술법의 일은 저의 몫이지만, 죽은 이를 살리기 위한 외적인 일은 전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고 말하신다면 이유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금지된 술법으로 사람을 되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님, 손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감히 루드비카를 저울질하며 거래를 하려하다니. 케시아는 당장에라도 뒤를 따른 기사가 있었다면 노파의 목을 쳐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뒤를 따른 기사는 없었으며 기껏해야 전속시녀인 루네즈 한명 뿐. 순간의 욱함으로 노파의 목을 쳐낼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비밀로 움직였던가. 오라비에게도 어머니에게조차 비밀로 붙인 채, 겨우 찾아낸 강령술사.

이미 이곳까지 찾아온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었다. 케시아는 마지막 고고함까진 버리지 않고자 턱을 치켜세워 나지막이 입을 뗐다.

“좋다. 그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도록 하지. 단, 반드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전하의 바람을 이뤄드리지요.”

케시아는 반드시 따위의 말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선 그 누구보다 강령술사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두 눈앞에 눈을 뜨고 살아 숨 쉬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디, 그 말이 진짜인지 두고 보면 될 일이겠지.”

극비로 모르가나를 만나고 왕성으로 돌아온 케시아는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손목에 새겨진 표식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르가나와의 계약은 성사되었으나 모르가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또 다른 계약을 바랐었다.

"전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예, 또 다른 계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부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일에 관해 단단히 발을 붙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케시아는 또 다른 계약을 하기 전, 그 계약 내용을 알기 위해 모르가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계약이란 것이 뭐지?"

"그저 간단한 계약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살리고 싶은 분을 살리는 도중,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계약이지요. 죽은 이를 살리는 일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또한 쉽지가 않지요. 때문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 중, 도중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요. 그리고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일을 맡을수록 중간에 포기를 하면 더더욱 힘이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중간에 괜히 포기할 수 없겠끔 만드는 이중계약. 하지만 케시아에게 있어 상관없는 일이었다. 더불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중간에 포기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어머니와 오라비를 속이고 비밀리에 이곳까지 찾아올 일도 없었다.

케시아는 작게 코웃음 치며 모르가나에게 포기하는 일은 없음을 대답했다.

"좋다. 네 말대로 그 계약까지 기꺼이 해주지."

"감사합니다. 전하.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그럼 제게 잠시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계약의 증표를 새겨드리도록 하지요."

어쩐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으나 케시아는 조금 머뭇거린 뒤에 모르가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귀하게 자란 티가 역력한 백옥 같은 상처하나 없는 왕녀의 피부. 모르가나는 흡족한 얼굴을 하며 케시아가 내민 손을 잡아 손목의 정맥이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뒤집었다. 그리고 품속에 고이 두고 있던 아주 작은 단검을 꺼내들자 바로 옆에서 모르가나를 주시하고 있던 루네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지금 전하께 무슨 짓을─!"

루네즈가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말리려 했지만, 무슨 일인지 그런 루네즈를 말린 건 케시아였다.

"그만. 루네즈. 너는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시작된 모르가나의 알 수 없는 행동들. 루네즈는 물론, 계약의 당사자인 케시아는 모르가나가 제 손목에 한 행동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정맥을 교묘히 피하며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날카로운 단검의 끝으로 새긴 계약의 증표. 그리고 증표를 새긴 동시에 모르가나는 신신당부했다.

"이것은 영혼의 계약. 일종의 증표이자 주술사들 사이에서 금지된 저주이기도 하지요. 말은 저주라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술사에게 위험한 일을 의뢰한 의뢰인이 나 몰라라 도망칠 수 없도록 새기는 일종의 계약 증표이지요."

"그럼, 이 증표가 새겨진 채 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 마십시오, 저도 사람으로서 그런 옛날 방식의 저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시거나 도망치시면 약간의 악몽은 시달리실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표는 왕녀전하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표와도 같습니다. 죽은 이를 살리기 위해선 의뢰인이 죽은 이를 향한 강렬한 정신과 영혼이란 매개체가 필요하니까요."

"즉, 계약 증표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술법의 힘이기도 하다는 그 말이군."

기묘하게 새겨진 술법의 증표. 한참 동안이나 손목에 새겨진 붉은 증표를 보던 케시아는 곁에 있던 루네즈를 불러 명을 내렸다.

“루네즈. 당분간 손목을 가릴만한 것을 구해 오거라.”

“예, 전하.”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어머니에게도 오라버니에게도 절대로 두 사람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물론입니다. 전하.”

이제부터 손짓, 표정은 물론이고 발걸음 하나하나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들켜선 안 되며 한 나라의 그것도 왕녀가 사람을 살리고자 강령술사를 고용했다는 말이 퍼지는 순간, 자신은 그야말로 나락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변 경계는 물론이고 제일 문제점은 바로 ‘헤르세인’

헤르세인에게 만큼은 결코 들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루드비카를 되살릴 지라도 두 번 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다. 케시아는 피가 맺히도록 아랫입술을 깨물며 광적인 집착의 눈빛을 드러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루드비카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르세인에게 또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지독한 이기심을.

몇 주가 흐른 시간. 카타리아 왕후는 수도에 있는 귀족들은 물론, 지방에 있는 귀족들까지 전부 끌어들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그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왕실의 예산이 연회로 인해 큰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왕후는 연회를 밀고나갔다. 갑작스럽게 열린 거대한 연회에 소수의 귀족들은 의아했지만 이미 왕후의 편으로 돌아선 대다수의 귀족세력들은 이 연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윌리스 왕태자를 왕위를 이어받게 하기 위한 전초의 움직임. 비록 위스턴 국왕은 현재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국왕을 움직여 당장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기에 왕후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자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수도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솜씨를 자랑하는 악사들을 불러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한 것은 물론, 거대한 홀에는 사람 한명 제대로 서있기 벅찰 정도로 수많은 귀족들이 왕성에서 온 초대장을 경비병에게 보이며 차례대로 입장하고 있었다.

“아직 이 인원이 전부는 아니겠지?”

홀에 입장하기 전, 반대편에 마련된 응접실에 한껏 치장을 하고서 대기를 하고 있던 왕후는 마차들이 줄지어있는 창밖을 내다보며 붉게 칠해진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력 중 가장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다빈느 후작이 멋들어지게 다듬어진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왕후폐하께서 마련하신 성대한 연회일터인데 어찌 이 자리를 마다하는 귀족들이 있겠습니까.”

“다빈느 후작.”

“예, 왕후폐하.”

손으로 몇 번이고 부채를 툭툭 치기를 반복하던 왕후는 뒤를 돌아 자신을 보고 있는 후작을 향해 대답했다.

“윌리스 왕태자가 무사히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면 나는 제일먼저 그대의 공을 치하할 것이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작위를 후작에서 공작으로 올려주도록 하지.”

“황공하옵니다. 왕후폐하.”

“하지만 착각은 말게. 그대의 공이 워낙 뛰어나서가 아닌 지금의 세력들 중, 그나마 그대가 왕태자의 도움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러니 공작 작위에 오르고 싶거든 절대적으로 그대는 왕태자의 힘이 되어줘야 해.”

사람의 마음은 간사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 바로 귀족들이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그들이면서도 가장 빨리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왕당파와 귀족파였다. 온건파와 중립파와는 달리 왕당파와 귀족파들은 대체로 국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빨리 줄을 바꾸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 줄이 동아줄이 아닌 썩은 동아줄임을 알게 되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들이었으며, 아무래도 세력이 가장 큰 무리세력에 속한 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술히 행동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었다.

하지만 그 많은 귀족들과 여러 파 중에서도 오직 국왕만을 지지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귀족세력이자 귀족파와는 완전한 대립관계라 할 수 있는 왕당파.

나라가 바뀔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정치는 변하고 정치를 하는 귀족들의 세력 역시 많은 파가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각 정치의 세력들. 왕당파, 귀족파, 온건파, 중립파 등 귀족들의 세력은 시대가 변할수록 많이 흩어졌으나 세력이 분산될수록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국왕의 힘이 어떠 하느냐에 따라 귀족들은 뭉치기도 하며, 또는 더더욱 분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핵심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왕당파의 중심인물인 라인하르트 후작과 전쟁이후로 또 다른 왕당파 사이에서 새로운 핵심인물로 떠오른 다빈느 후작. 여전히 온건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다프네아 백작과 중립파의 핵심 수장인 그레이스 공작.

하지만 이제부터 어떤 파이든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국왕은 점점 미쳐만 갔고,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결국 귀족들은 새로운 국왕을 선택해야 했으며, 그 왕좌에 앉을 사람은 오로지 윌리스, 제 아들뿐이니까.

“그럼 가지.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한 첫 번째 계단으로.”

헤르세인은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췌하기 짝이 없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라즐리의 유일한 손길로 꾸며진 얼굴과 머리, 그리고 드레스까지. 왕비의 죽음으로 왕비의 궁전에 소속된 하녀와 시녀들까지 모두 카타리아 왕후의 소속이 되어버려 그 어떤 하녀에게 조차 도움을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르펜소 백작가에서 잡일은 물론, 그 집안의 백작 딸을 몇 번이고 곁에서 다양한 손재주로 꾸며본 적이 있던 라즐리의 덕으로 헤르세인은 겨우겨우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왕비의 죽음으로 그녀의 재산과 보석들은 전부 빈센트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됐지만 왕자인 빈센트가 여인의 옷을 입을 수는 없기에 원래라면 왕비의 드레스 역시 왕후의 손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빈센트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신히 왕비의 드레스를 몇 벌 정도 챙길 수 있던 빈센트는 그 드레스들을 헤르세인에게 넘겨주었고 거의 드레스가 없다시피 한 헤르세인에겐 어찌됐든 유품이나 다름없는 드레스를 물려받게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왕비의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귀에 들어온 왕후의 성대한 연회. 현재 위스턴 국왕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않은 뒤로 카타리아 왕후는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국왕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세력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의 두 번째가 바로 왕실의 연회.

수도의 귀족은 물론, 지방의 귀족들까지 전부 왕실로 초대한 왕후의 행동. 짐작이 아닌, 그것은 누가보아도 모든 귀족들 앞에서 윌리스 왕태자를 굳건히 다음 왕위로 앉히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헤르세인은 결코 두고 볼 생각은 없었다. 마치 복수의 신이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라도 한 것처럼 헤르세인은 이 기회를 삼아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생각이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왕가의 사람은 물론 모든 귀족들에게 초대장을 뿌린 왕후였으나 유일하게 헤르세인은 그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라즐리.”

“예, 왕녀전하.”

“초대장도 받지 않은 내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면 왕후는 어떤 표정으로 날 쳐다보게 될까. 아니, 모두가 이제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게 될까?”

헤르세인은 아름다운 목걸이 대신 걸려있는 펜던트를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차가운 금속의 표면을 쓸었다. 사람처럼 감정하나 담기지 않았을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전부인 펜던트. 하지만 이 펜던트는 수많은 국왕들의 목에 걸려 있었으며 얼굴조차 보지 못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는 특별한 펜던트나 다름없었다.

타인의 눈엔 그저 다음 세대의 왕을 인정하는 왕의 증표일지 몰라도, 헤르세인에게 있어 펜던트는 왕의 증표도 단순한 금속의 목걸이가 아닌, 과거와 추억, 그리고 슬픔과 미련, 상처가 담겨 있는 차가운 펜던트였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이 펜던트가 내 손에 있는 이상…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난 반드시 모든 걸 되돌려 놓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모든 감정들이 펜던트에 남겨진 과거의 파편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감정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나 다름없었다. 반드시 왕위를 손에 넣기 위한 무기이자, 틀어져버린 과거를 되돌릴, 그리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낼 죽음이란 또 다른 증표.

“하지만 빈센트는….”

아직까지 빈센트에게 전하지 못한 진실. 머릿속은 계속 빈센트에게 진실을 밝히길 외쳤지만 막상 그 입을 열기까지 헤르세인은 쉽지 않았다. 여태까지 왕비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군지 조차 모를 핏줄로, 사생아 누이로 알고 있는 빈센트. 그런데 이 연회를 계기로 자신이, 그것도 현 국왕의 형제인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인 것을 알게 되면 빈센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아무리 똑같은 어머니의 핏줄이라 해도 아버지가 다른 빈센트에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다. 빈센트조차 몰랐던 모든 과거가 드러나고 어머니가 본래는 에른스트 왕태자의 왕태자비였으며, 가장 현 국왕을 그저 복수의 상대로, 또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빈센트는 과연 받아들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한 건 불안하고 무서워서일지도 몰랐다. 이제 온전히 자신의 곁에 남아 있어주는 사람은 같은 혈육인 빈센트 뿐. 그 유일한 빈센트마저 헤르세인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무섭더라도… 이제 평생을 혼자 남을지 몰라도… 난 해야만 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을 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설령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때, 머리까지 완벽히 준비를 마쳤는지 라즐리의 목소리로 헤르세인은 갇혀 있던 상념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왕녀전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헤르세인은 다시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단순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히 준비를 마쳤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헤르세인은 제 모습이 아닌 왕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정말로… 난 내 어머니를 쏙 빼 닮았구나…,”

머리에 쓰여 있지 않은 왕관을 제외한다면 이 거울에 비치는 사람은 틀림없는 왕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완벽히 바뀌기를 요구한 것은 헤르세인 자신.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이 허리를 펴 턱을 세우곤 그리고 가장 또렷한 눈동자로 앞을 보며 붉게 칠해진 입술을 열었다.

“가자, 라즐리. 내가 반드시 가야할 장소로.”

모든 귀족들이 모여든 연회장의 거대한 홀. 빈공간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사람이 가득 찼으나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자리를 참석하지 않은 위스턴 국왕 대신, 왕의 자리에 앉은 카타리아 왕후. 본래라면 왕후조차 감히 앉을 수 없는 왕의 자리이나 이미 위스턴 국왕이 제정신이 아니란 소문은 수도는 물론, 머나먼 지방조차 퍼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또한 위스턴 국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이가 윌리스 왕태자란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귀족들은 윌리스 왕태자보다 한 계단 더 위에 있는 카타리아 왕후가 현재 왕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어떤 귀족들조차 왕후에게 반기를 드는 이는 없었다.

한참 동안이나 진행된 연회의 연주와 가장 사교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왈츠의 시간. 서로 발을 맞추는 왈츠의 시간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샴페인이 든 유리잔을 들어 종을 치듯 은색의 나이프로 잔을 두드리며 모두를 주목시켰다.

“모두 주목!”

가장 맑은 유리잔의 소리가 홀 전체에 퍼지자 웅성거리던 귀족들의 입과 주변을 탐색하던 귀족들의 눈이 일제히 왕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된 왕후는 가장 화려한 미소를 그리며 윌리스 왕태자에게 눈짓을 하곤 입을 열었다.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주어 기쁘기 그지없네. 설명을 덧붙이자면 본디 이 연회는 왕실의 자금을 생각하여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하는 연회나 다름없지. 하지만 그대들도 알다시피 우리 왕국은 벌써 타국과의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우리가 몬테올 왕국에 피해를 입은 손해는 무척 큰 것이 사실이네. 허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단합해야 하며, 전쟁으로 인해 흔들리는 왕실역시 바로 잡아야 하네.”

귀족들은 왕후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자 모두 숨을 죽이며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왕후는 숨 한번을 토해낸 다음, 이번엔 비장한 표정으로 제 곁에 있는 윌리스를 보며 입을 뗐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왕폐하께선 몸이 좋지 않아 계속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 또한 이미 폐하께선 오래 전부터 윌리스를 왕태자로서 왕제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물론, 현재 수많은 악제가 겹쳐 윌리스 왕태자는 폐하의 대리청정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이지. 그래서 나는 불안정한 왕실의 왕권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전쟁으로 인해 흔들리는 왕국의 기반을 다시 안정시키고자 올해 안으로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아직 편치 못한 폐하와 의논하여 서둘러 윌리스 왕태자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자 하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들며 이의를 제기하는 귀족들은 없었다. 온건파는 물론 중립파, 그리고 귀족파 세력의 모든 귀족들까지 그들은 끝내 손을 들지 않았다. 그만큼 현재 상황으로서 왕실은 불안정했고 위스턴 국왕의 빈자리가 클수록 제 아무리 윌리스 왕태자가 대리청정을 한다 해도 국왕만큼이나 큰 힘을 발휘하기란 어려웠다.

“지금의 내 말을 그대들은 이해하겠다는 건가?”

왕후는 재차 물었다. 그 누구의 이의 없이 이곳에서 윌리스 왕태자에게 반드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왕후의 질문은 어찌 보면 강제적이면서도 말속에 숨어 있는 권력행사나 다름없었다. 결국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귀족들이 없자 왕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연회를 즐기려던 순간이었다.

장내를 시끄럽게 울리는 문이 열린 소리와 함께 등장한 한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을 본 순간, 방금 전까지 바짝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왕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라… 네아…? 설마… 살아있을 리가….”

하지만 눈에 비친 익숙한 모습과 달리, 목소리에서 나오는 전혀 다른 맑고도 얼음 같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왕후는 착각이 아닌, 현실을 볼 수 있었다.

“헤르세인 왕녀… 네가 여긴 어떻게...”

“왕후폐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왕위 문제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만.”

전혀 생각지 못한 존재. 왕후는 이미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헤르세인을 노려보고 있으나, 허공에 마주친 푸른 눈동자는 가장 아라네아를 닮았으면서도 가장 시린 눈동자로 왕후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하찮은 왕녀의 발언. 왕후는 처음엔 얼굴을 일그러트리다가 이내 표정을 풀어 장내가 떠나도록 크게 웃음소리를 냈다.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대신 찢어지도록 거대한 회장에 울리는 왕후의 웃음. 그렇게 한참을 웃던 왕후는 이내 진정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고서 헤르세인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헤르세인 왕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송구합니다, 왕후폐하. 하지만 이 연회를 참석할 수 있는 초대조차 주지 않으셨으니 제가 직접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라?”

설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나 생각보다 더 대담히 나오는 헤르세인의 행동에 왕후는 방금 전 회장이 떠나도록 웃었던 그 모습을 잊은 지 오래였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는 것이냐? 헤르세인 왕녀.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하는 법. 그리고 이곳은 수도는 물론 지방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모여든 자리다.”

“알고 있습니다, 왕후폐하. 그렇기에 더욱,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왕위 관련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모두의 손이 무거워 보여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만… 그게 잘못 된 것입니까? 아직 제가 왕실 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어느 부분에서 손을 들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본 사이… 네가 아주… 재미있어 졌구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연회장에 난입하여 저딴 망발을 지껄이는지 당장에라도 왕후는 헤르세인을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왕후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며 상대는 아무런 권력조차 힘조차 없는 애송이 왕녀. 비록 아라네아와 너무도 닮은 모습이 영 신경을 거슬리게 했으나 그럼에도 자비로운 왕후의 모습을 보이고자 왕후는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입꼬리를 어떡해서든 끌어올려야 했다.

“그래, 헤르세인 왕녀. 어디 그 손을 든 이유를 말해 보거라. 무엇이 문제이기에 윌리스 왕태자가 아직 왕위를 이어받아선 안 되는지 내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보거라.”

왕후는 물론 모든 귀족들의 시선이 헤르세인에게로 향했다. 슬럼가 출신의 왕녀, 또는 사생아 왕녀라 불리는 아라네아 왕비의 반쪽의 핏줄. 그리고 치부. 모든 귀족들의 공통된 생각이자 인식, 그리고 가장 왕실에서 하찮은 존재. 귀족들은 저마다 비웃는 표정을 하며 헤르세인의 말을 기다렸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헤르세인 왕녀가 이런 난리를 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아라네아 왕비의 죽음으로 더 이상 왕실 내에 보호받지 못할 왕녀라 생각했는지 단순히 관심을 끌고자 벌인 일이라 생각하며 귀족들도, 왕후조차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헤르세인은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일로 과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조차 헤르세인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건 한발 나아감으로서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직감이었다.

“왕후폐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도 윌리스 왕태자전하는 틀림없는 다음 왕위의 후계자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왕태자전하께서는 현재 국왕폐하의 대리청정을 하고 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어 그야말로 차기 국왕에 걸 맞는 후계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모두가 당연하다 듯이 헤르세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 바빴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틀린 것은 없었고 그 누가 봐도 차기 국왕은 윌리스 왕태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라네아 왕비의 핏줄인 헤르세인. 왕후는 집요하게 헤르세인을 쫓아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헤르세인 왕녀. 너는 그것에 의문이 있어 손을 들었을 터. 내 말이 틀리느냐?”

왕후의 손에 검이 들려 있었다면 그 검은 당장에라도 자신의 심장을 향해 박혀있을 거라 헤르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후가 저토록 노려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존재자체가 그녀에겐 달갑지 않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후폭풍을.

“저는 윌리스 왕태자전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 왕위에 어울리는 적합한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어울리는 것을 떠나, 처음부터 그 자리는 원래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헤르세인 왕녀! 아무리 네가 아라네아 왕비의 핏줄이라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망발을 하는 것이냐!!”

“정말로 제가 망발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님 손에 넣은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감히… 감히! 일개 사생아 따위인 네가!!”

지금 당장 왕후에겐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에라도 눈에 가시 같은 헤르세인을 치워내고자 왕후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눈앞에서 치우게 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목에 걸린 무언가를 떼어내고서 모두가 보는 앞에 팔을 들어 올린 헤르세인의 행동에 왕후는 어쩐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왕후폐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왕후폐하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까지. 이 펜던트가 왕가의 하나 뿐인 가보이자 왕을 선정하는 증표임을.”

“거, 거짓말… 어찌 그게 네 손에...”

순식간에 장내는 소란스럽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 왕후 역시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며 헤르세인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봐야만 했다.

“저게 정말 왕가의 가보란 말인가?”

“세상에 왕의 증표가 나타나다니?!”

“그런데 어찌 왕의 증표가 헤르세인 왕녀의 손에….”

“저게 정말로 진짜 왕의 증표란 말이오? 가짜가 아니고?”

카타리아 왕후, 그녀가 왕자비이던 시절. 그녀는 몇 번이고 선대 국왕을 통해서 왕국의 가보라 할 수 있는 또한 오직 다음대의 국왕만이 목에 걸 수 있는 왕의 증표인 펜던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펜던트의 모양 역시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희귀 광석인 문스톤으로 새긴 초승달 문양과 알렉사트라이트로 새긴 태양의 문양. 그리고 완벽히 세공하여 탄생된 오랜 사브레 왕국의 보물 ‘솔루에’

그 어떤 금속으로도 왕의 증표를 가짜로 만들 수 없으며 설령 가짜로 만든다 해도 들키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것은 바로 솔루에 펜던트는 사브레 왕국의 단 하나 뿐인 문스톤과 알렉사트라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가짜가 아닌 진짜 펜던트. 더불어 그 목걸이를 오랜 왕자비 시절 몇 번이고 봐왔던 왕후의 눈엔 그것은 결코 가짜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짜로 만들어야 했다. 설령 헤르세인의 손에 들린 목걸이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목걸이라 할지라도 왕후는 결단코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내야 했다.

“저건… 가짜다. 어찌하여 네가 그 가짜를 들고 감히 왕실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저는 왕실을 능멸할 생각도 하물며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모습을 드러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허면! 네 손에 든 그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가짜가 아니고서야! 왕실에서 그 펜던트가 사라진 이후 그 누구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찾았다 이 말이더냐? 그것은 틀림없는 가짜다! 그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어찌 네가 찾았다 할 수 있단 말이냐!!”

“정말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누구보다 이 펜던트를 잘 아시는 왕후폐하께서?”

감정조차 담겨있지 않는 서릿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그 어린 눈과 마주친 순간, 왕후는 다시 한 번 기억에서 지워내고 싶은 아라네아 왕비가 떠올랐다. 왜 또 다시 그녀가 떠올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당장 병사를 움직여 헤르세인이 가지고 있는 펜던트를 어떡해서든 손에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직 헤르세인의 목소리는 더 남아 있는지 여전히 시린 푸른 눈동자는 왕후를 향해 응시하고 있었다.

“이 왕의 증표가 제 손에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아라네아 왕비전하 덕분입니다.”

“하! 왕비가 어찌하여 사생아인 너 따위에게 그딴 것을 아무런 말도 없이 줄 수 있단 말─!”

“그리고 얼굴조차 보지 못한 돌아가신 내 아버지, 에른스트 왕태자전하께서 오직 제게 물려주신 왕의 증표… 이거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제가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왕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뭐… 라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이름. 왕후는 제 두 눈이, 두 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지금 당장 헤르세인의 입술에서 언급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사고가 멈춰버린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얀 백지장이 되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왕후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헤르세인은 자신의 핏줄이 혈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두의 앞에 낱낱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에른스트 칼 레자르 라그디알. 그리고 내 어머니의 이름은 내 아버지의 반려이자 왕태자비… 그리고 위스턴 국왕폐하의 왕비이셨던 아라네아 드 라니아 미르세니안. 난 두 사람의 하나 뿐인 딸이자 적통의 왕녀. 또한 오늘 이후로 국왕폐하 다음,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를 왕녀인 헤르세인! 이제 알겠습니까?”

귀족들은 물론 왕비의 곁에 있던 윌리스 왕태자마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단상 아래에 있는 헤르세인을 봐야만 했다. 제 아버지인 위스턴 국왕으로 인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왕태자이자 백부이기도 했던 에른스트 왕태자. 워낙 어렸을 때의 일이라 더 이상 백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지금 다시 헤르세인의 얼굴을 본 윌리스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 눈빛, 저 표정, 기억 속에 다시 되살아난 백부의 얼굴과 많이 닮았음을. 윌리스 뿐만이 아닌, 중년의 귀족들은 대다수 에른스트 왕태자의 생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마다 헤르세인의 얼굴을 보며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금 다시 보니, 확실히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얼굴이 묻어 있어….”

“아라네아 왕비의 얼굴만 닮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에른스트 왕태자와 많이 닮았습니다.”

“잠깐 이러면 대체 서열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란 말인가?”

그때, 모두의 의문을 종식시킬 생각으로 헤르세인은 냉정히 다물려 있던 입술을 열었다. 이 말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말 하나로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헤르세인은 더욱 뜨거운 복수가 들끓었다. 하지만 너무 복수에 눈이 멀어 자칫 하단 제 자신이 다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일. 헤르세인은 최대한 냉정히 머리를 식히며 이 자리에 가장 높은 서열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있었다.

“가장 진한 혈통이 이어져 있고, 가장 왕위의 서열에 가까운 자는 바로 접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 있는 이상, 윌리스 왕태자전하는 결코 나를 제쳐 왕위를 물려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이 왕의 증표를 내 아버지인 에른스트 왕태자에게 물려받은 이상! 왕위는 결단코 내가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왕좌에 앉을 주인은 오직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자 갑작스럽게 나타난 또 다른 적통의 후계자. 이로서 왕실은 본격적인 후계자 싸움으로 돌입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헤르세인이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임을 받아들일 생각도, 여전히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라 믿고 싶은 카타리아 왕후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아라네아 왕비는… 그때 당시 뱃속의 아이가… 거짓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다… 사실일 리가 없어! 전부! 저 미친 왕녀가 헛소리를 지껄이는 소리다! 전부 거짓이란 말이─!”

“와, 왕후폐하!!”

“어서 왕후폐하를 모셔라!!”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왕후가 결국 쓰러지고 장내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으나 헤르세인 만큼은 쓰러진 왕후의 모습을 여전히 싸늘히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핏 눈이 마주친 윌리스 왕태자까지. 하지만 오늘은 이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회장에 있을 생각이 없던 헤르세인은 냉정히 뒤를 돌아 회장을 빠져나갔다. 또한 헤르세인이 회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라인하르트 후작과 클로드는 놓치지 않았다.

조용한 집무실의 실내. 라인하르트 후작은 다 식어버린 찻잔을 물끄러미 보며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다. 카타리아 왕후의 윌리스 왕태자의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의 걸음.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귀족들의 모습까지. 그야말로 잘 짜인 각본이나 다름없었다. 왕후를 위한, 왕태자를 위한 그들만의 자리. 그러나 후작은 그 자리가 일부로 왕후가 만들어낸 자리임을 알면서도 갈 수 밖에 없었다. 저택으로 온 초대장을 떠나, 현재 왕실의 안정을 다질 왕족은 윌리스 왕태자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현 국왕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나 아라네아 왕비의 핏줄인 빈센트 왕자 역시 왕족이나, 결국은 정실의 소생이 아닌 왕자이며, 나이는 물론 고작해야 힘없는 어린 왕자. 제 아무리 빈센트 왕자를 윌리스 왕태자와 맞붙을 또 다른 후계자로 다른 귀족들이 나선다 해도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윌리스 왕태자가 올해 안으로 왕위를 이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후작의 머리에 헤르세인의 선전포고는 그야말로 망치로 크게 머리를 내리친 예상치 못한 일이나 다름없었다.

‘설마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이었을 줄이야. 그리고 없어진 왕의 증표까지 헤르세인 왕녀가 갖고 있을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 모두가 생각한 일개 사생아에 불과한 왕녀가, 사실은 가장 고귀한 피를 이어받으며 가장 서열이 높은 왕녀일 줄은.

‘그래서 그때 나를 찾아온 거였군….’

후작은 제 저택에 찾아온 그때의 헤르세인 왕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모질게 대했음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으려던 그 모습. 그때 당시엔 그 모습이 워낙 뻔뻔스러워 후작은 두 눈 부릅뜨고 왕녀를 오랫동안 마주보고 싶은 생각 따윈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녀가 굳이 이곳을 찾아와 왜 그토록 절실히 부탁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고 있었다.

“…버지. 아버지.”

너무나 깊게 생각한 탓에 후작은 몇 번이고 자신을 부르는 클로드의 목소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진중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후작은 작게 헛기침을 하며 살짝 말라버린 입을 뗐다.

“잠시, 생각 좀 하느라 못 들었구나. 그래, 내게 할 말이 있느냐?”

“예, 다름이 아니고… 그날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저는 처음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분은 오직 윌리스 왕태자전하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생각이 다르단 소리이냐?”

클로드는 잠시 미간을 좁히다가 이내 애매히 고개를 저으며 부정도 그렇다고 긍정도 아닌 대답을 했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존재로 서열구도가 바뀐 것은 물론, 그날 이후 귀족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 그러겠지. 은근 왕후의 세력에 불만을 가진 귀족들이 이때다 싶어 분명, 세력을 모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다. 모두가 하나같이 직진으로 만 걸을 단 하나 뿐인 실크로드만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샛길이 나타난 셈이지. 그것도 보통 샛길도 아닌 또 다른 실크로드 길 말이다.”

에른스트 왕태자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 뿐인 왕좌를 차지한 위스턴 국왕.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왕의 길만을 걷기 시작한 윌리스 왕태자. 윌리스 왕태자가 오직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단 하나의 길만을 걷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 왕국 내의 귀족들까지 오직 윌리스 왕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미래만을 생각하며 뒤를 받치고 단 하나의 길만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또 다른 샛길이자 전혀 다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번째 길. 하나 밖에 없는 길을 앞만 보고 걷던 귀족들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갈림길이 그들 앞에 생긴 것이었다. 그것도 윌리스 왕태자 보다 가장 적통성이 있으며, 가장 서열을 앞지른 헤르세인 왕녀란 길을 말이다.

이제 귀족들은 편을 갈라서고 누가 더 왕위에 어울리는 재목인지 가리고자 그야말로 피가 튀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다. 한 번 왕족으로 태어난 이상,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후계자 싸움. 그리고 후작 역시, 그 갈림길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다.

“아버지께선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대로 우리가문은 왕족을… 특히 국왕폐하를 지지하는 왕당파 가문이 아닙니까. 역시, 윌리스 왕태자전하를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클로드, 어찌 내게 그것을 묻는 것이냐. 마치 내가 왕태자전하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투처럼 들리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윌리스 왕태자전하께선 왕당파 귀족 세력은 물론 귀족파 세력의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는 입장이시나, 결국 왕태자전하의 뒤엔 왕후폐하가 계시지 않습니까.”

윌리스 왕태자는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 흠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다만, 클로드의 말처럼 카타리아 왕후가 그 뒤를 버티고 있었으며 왕태자가 왕좌에 앉는 순간, 왕후는 왕태후로서 점점 더 세력을 넓혀 어쩌면 제 아들의 권력까지 넘볼지 모를 인물이었다.

왕후, 그리고 왕자비가 되기 전 그녀의 뒤를 단단히 버티고 있던 외가 바트로벨른 공작가. 하지만 위스턴 국왕의 패악으로 아라네아 왕비의 외가인 미르세니안 공작가가 어떻게 되었던가. 마찬가지로 바트로벨른 공작가 역시 위스턴 국왕의 즉위 후, 2년 뒤. 끝내 바트로벨른 공작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바트로벨른 공작가가 위스턴 국왕의 손에 사라진 건 그야말로 단순할 정도였다. 위스턴 국왕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아라네아 왕비를 카타리아 왕후가 질투에 눈이 멀어 며칠 동안 지독한 굴욕과 벌을 세웠단 이유만으로 왕후의 드높은 외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가 공녀이던 시절에도 공작가문의 공녀다운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으나 왕자비가 되고, 왕후가 되며 또, 외가가 바로 눈앞에서 국왕의 손에 사라진 순간 그녀는 증오와 질투의 화신이자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왕후로 뒤바뀌게 되었다. 그 속을 아는 건, 왕후 세력의 귀족들 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왕후는 더더욱 가만있지 못할 것이었다. 어떡해서든 헤르세인 왕녀를 제거하고자 손을 뻗을 것이고 끝내 제 아들을 왕위로, 그리고 자신은 왕태후로 사브레 왕국의 권력 중심이 될지도 몰랐다.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 건 좋지 않구나.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클로드. 조금 더 우린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그땐 정말로 전쟁이 될지 모르니.”

예전만큼의 위상은 떨어졌을 지언정, 라인하르트 가문은 가장 큰 병권을 지니고 있는 대 귀족 중의 귀족. 하지만 클로드의 생각은 달랐다. 과연 그 갈림길에 후작이 헤르세인 왕녀를 선택을 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루드비카… 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과연 전처럼 왕녀전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젠 너에겐 너무나도 머나먼 분이 되어버렸구나.’

루드비카는 과연 알고 있을까. 그토록 저가 사랑했던 여인이 알고 보니 가장 고귀한 존재이자 이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케시아 왕녀의 궁에 소속된 시녀는 물론 하녀들 역시 교대 근무를 하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잔업을 해야만 했다. 모두가 피곤한 시간임에도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고 있던 시녀무리 중 한명이 무언가 생각났는지 마침, 기분 전환 겸 입을 뗐다.

“아, 그러고 보니 너네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무슨 얘기?”

그 작은 신호탄의 시작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자, 먼저 입을 연 시녀가 이때 다 싶어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입을 열었다.

“요즘, 이 궁에서 시녀는 물론 하녀 할 것 없이 한명씩 사라진다고 하잖아.”

“뭐? 에이, 설마. 휴가 가거나 아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얼굴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 왜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시녀 있잖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마리… 였던가? 아무튼 걔가 저번에 케시아 왕녀전하께 한번 불려간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 그 뒤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쩐지 오싹한 괴담과도 같아 대부분의 시녀들이 팔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중 또 다른 시녀가 또 다른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손뼉을 치며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루네즈님도 계속 시녀나 하녀들한테 언제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자꾸 생일을 묻고 다니시더라?”

“맞아! 저번에 나한테도 한번 물으신 적 있었어. 어느 날에 태어났냐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날 아르테가르의 6월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은근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듣기론 계속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난 사람을 찾고 있다나 뭐래나….”

“헉! 그러고 보니 나,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났는데?!”

“뭐? 진짜?”

이걸 좋아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났음을 알린 시녀 에블린은 썩 표정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가지 않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케시아의 전속시녀인 루네즈가 시녀들 앞에 멈춰 서게 되면서 몇 번을 시녀들을 훑고는 정확히 에블린을 지목했다.

“거기 너, 에블린.”

“예?! 예! 루네즈님.”

“따라와라.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널 부르신다.”

“저, 저를요?”

“그래, 그동안 시녀로서의 네 공로를 치하하고 싶다 하시어 널 데려오라 하셨다. 아마, 이번 공로를 받게 되면 국왕폐하가 계신 궁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겠지. 그러니 어서 따라 오거라.”

그래서 왕녀의 부름에 따라갔던 시녀나 하녀들이 전부 본궁에 소속되어 안보였던 걸까? 어느새 시녀들 대다수가 에블린을 부럽게 보며 배웅을 해야 했다. 그리고 루네즈를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에블린은 자신이 출세를 했다는 생각에 기쁜 발걸음을 하며 본성에 소속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기 바빴다.

“왕녀전하, 시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 루네즈. 수고했구나. 그래 네 이름이 에블린이라지?”

“예! 왕녀전하! 저를 어여삐 봐주시어 황공하옵니다!”

에블린이 가장 기쁜 목소리로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케시아는 찻잔 속에 은근히 숨겨진 묘한 미소를 그리며 에블린에게 물었다.

“네가 그리 기뻐해주니 나 역시 기쁘기 그지없구나. 그런데 네 생일이 정확히 어찌 되느냐.”

“예? 제 생일은 왜...”

“아아, 별거 없다. 네 생일에 맞춰 특별히 내가 고른 시녀들에겐 한때 내 소속이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기념 선물을 주고자 함이니. 왜… 탄생석으로 만든 액세서리들이 있지 않느냐.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해주고 싶어 그렇단다. 그리고 앞으로 본성에 들어가 내 아버지, 폐하를 모시게 될 터인데 기념 선물 정도는 당연히 너희의 주인인 내가 해줘야지.”

“세상에… 왕녀전하….”

에블린이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짓자, 케시아는 마시고 있던 찻잔을 내려 에블린에게 앉을 것을 권유했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앉거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차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떠느냐.”

“예?! 제, 제가 어찌 감히… 왕녀전하와 차를 마실 수가…”

“난 괜찮으니, 어서 앉아 차를 마시거라. 너도 좋아할 달콤한 맛일 거다.”

결국 케시아의 권유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얼떨결에 왕족과 마주앉게 된 에블린은 달달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루네즈가 따라주는 붉은 찻물을 봐야했다. 그리고 다시 케시아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어서 마시라는 그 눈빛에 못 이겨 에블린은 겸허한 자세로 찻잔을 들어 올려 조금 씩, 찻물을 들이켰다.

첫 맛은 최상의 찻잎으로 우려냈을 만큼의 달달함과 상큼한 과일의 향이 입안으로 퍼져 감을 에블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혀가 그 맛을 전부 잊기 전에 완전히 찻물을 목에 넘긴 순간, 에블린은 이상함을 느껴야 했다. 점점 무겁게 감기는 눈꺼풀과 몸이 녹초마냥 늘어지는 무거운 몸. 결국 제 몸을 가누지 못한 에블린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의 한 가닥을 간신히 잡으며 누구에게 묻는지 조차 모를 입을 열었다.

“이… 이게… 대체...”

끝내 중심을 잡을 수 없던 몸. 에블린은 어떡해서든 두 다리를 버티고 서있기 위해 힘겹게 서고자 했지만 중심을 잃는 동시에 테이블보를 생명줄처럼 잡듯, 카펫위로 쓰러져야 했다. 테이블보가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요란스럽게 떨어져 깨져버린 찻잔들. 하지만 케시아는 미동조차 없이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까지 지으며 붉은 입술을 움직였다.

“에블린… 이라 했느냐? 뭐 오늘내로 잊어질 이름 따위 내가 알게 무엇이냐. 지금 네가 마신 그 찻물은 사막의 대륙에서 구한 가장 강력한 수면제가 든 찻물이지. 성인남성조차 그 수면제의 한 방울이면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할 만큼의 가장 강력한 수면제. 네가 마신게 바로 그 수면제란다. 그리고 그 수면제의 다량이 몸에 퍼진 순간, 온 몸이 마비되어 해독제를 먹지 않는 이상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지. 고맙구나, 끝까지 오해해줘서. 덕분에 너로 하여금 ‘제물’의 수가 늘어났구나.”

에블린이 카펫 위로 쓰러진 순간부터 더 이상의 잡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에블린이 차를 마시고 죽기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까. 하지만 케시아는 에블린을 단순한 시체가 아닌, 온전히 제물이 될 중요한 물건 보듯 냉정히 내려다보며 루네즈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어서, 모르가나에게로 다음 제물을 보내거라.”

“예, 전하.”

벌써 몇 명의 시녀와 하녀가 이곳에 소리 소문 없이 제물이 되었는지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물의 숫자를 전부 채우기 위해서라도 케시아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생각은 없었다. 반드시 이 제물로 하여금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 그리고 지독한 독초 또는 약초의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 찬 이곳에 모르가나는 낡은 욕조 안에 정체모를 흑 빛의 약물들을 쏟아 부어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몸을 씻어낼 도구 중 하나이나 이 욕조만큼 제대로 된 의식을 치룰 방법이 없기에 모르가나는 서둘러 케시아 왕녀에게서 전달 받은 산 제물을 욕조에 대충 눕히고서 그리고 그 품에 하얀 단지를 끌어안게 만들었다.

“이정도면 충분하겠군.”

언뜻 멀리서 보면 욕조에 가득 찬 약물에 목욕을 재개하는 모습과 다름없겠지만 현실은 달랐다. 욕조 아래로 둥글게 술법을 그린 기괴한 문장과 핏빛으로 착각 할 만큼 붉게 새긴 알 수 없는 문양. 그 모든 준비가 끝나자 모르가나는 가장 날카로운 단검을 들어 욕조로 다가가 제물의 손목을 들어 케시아에게 했던 방식처럼 증표를 새긴 후, 충분한 피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상처를 냈다.

그리고 약물 위로 퍼져가는 핏물과 독초의 냄새가 섞인 지독한 향.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모르가나는 서둘러 원이 그려진 술법 밖으로 나가 바로 발밑의 원에 제물에게 상처를 냈던 것처럼 자신의 피부에 상처를 내어 그 피를 떨어트리며 주문을 읊었다.

“태양은 어둠에 삼켜지고, 달은 그림자에 숨으며 길을 잃은 영혼은 방황하리라.”

그 순간, 모르가나의 주문이 시작된 동시에 그녀가 그린 원이 붉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지하 곳곳을 음산히 비추던 촛불들의 빛이 전부 꺼져버렸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지 원의 빛은 더욱 강하게 빛을 내며 더욱 붉게 원의 증표를 나타냈고 모르가나는 이때를 노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땅에 내려쳐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길을 잃은 영혼은 어둠에 붙잡혀 또 다른 어둠의 제물이 될 지어니, 순수한 처녀의 피를 제물로 하여금 영혼은 다시 의식을 찾고 피를 생명으로, 흙을 살점으로 원혼을 먹어 다시 숨을 쉬리라──.”

주문이 끝나자 미동조차 없던 욕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도치듯 약물과 핏물로 뒤섞인 물이 출렁거리며 그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안개처럼 퍼지더니 큰 구처럼 합쳐진 검은 물체는 욕조를 완전히 뒤덮으며 다시 한 번 빨려 들어가듯 제물이 품고 있던 하얀 단지 안으로 흡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물도 핏물도 심지어 단지를 안고 있던 제물조차 사라진 후. 욕조에는 마치 처음부터 하얀 단지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서 5명 째 인가?”

어둠속에 몸을 한참 동안 숨기고 있던 케시아가 모습을 드러내며 당연한 발걸음으로 욕조에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하얀 단지를 품에 들어 올린 케시아는 마치 아기처럼 소중히 껴안듯 품에서 놓지 않은 채, 조심히 단지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흥미롭게 쳐다보던 모르가나는 음산한 웃음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내리곤 대답했다.

“예, 전하. 하지만 제물의 횟수를 채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이지요.”

“정녕… 개기일식이 뜨는 7년까지… 이 짓을 하고 계속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케시아가 아직까지 내키지 않은 얼굴로 불만을 토해내자 모르가나는 여유롭게 주변을 정리하며 반드시 그 개기일식까지 기다려야함을 상기시켜야 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까지 아무 제물도 쓸 수 없는 법. 7년 뒤에 뜰 개기일식에 맞춰 강령 술을 진행하려면 죽은 자의 태어난 날이 비슷한 처녀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왜, 하필 7년이지? 고작 사람한명 살리기 위해 7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느냐? 그리고 7년 동안이나 나보고 계속 이 짓을 하라고?”

반년까지 이 짓을 참을 순 있어도 무려 7년 동안 이딴 짓을 계속해야한다는 것이 케시아는 굉장한 불만이 있었다. 아니, 불만을 넘어 이런 짓을 벌인다는 자체가 마음에 들턱이 없었다. 모르가나와의 계약이 맺어지는 동시에 모르가나가 제게 내린 부탁. 그것은 바로 루드비카와 똑같은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난 처녀를 제물로 삼는 것. 절대로 혼인을 한 처자는 제물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처녀만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모르가나의 말에 처음엔 얼마나 기가 막혔던가.

하지만 모르가나는 오히려 당연하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처녀만큼의 큰 제물효과가 있는 제물은 없다고 했다.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난 처녀를 제게 넘겨주시지요. 그게 바로 전하께서 맡으셔야할 역할이자 죽은 이를 살리기 위해선 처녀만한 제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혼인을 올리지 않은 처녀여야만 합니다."

"어째서 처녀여야 하지?"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순수한 영혼이자 처녀만큼 깨끗한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케시아는 물론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악마’란 존재를 믿을 사람 따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모르가나는 오랜 강령 술을 익힌 자이자 몇 번이고 악마란 존재를 믿지 못한 케시아에게 ‘대악마’는 아니더라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소악마’를 소환하여 보여준 적이 있었다. 대악마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 소악마를 본 케시아는 당장에라도 토하고 싶던 심정이었었다.

이 세상의 존재라 할 수 없을 만큼 구역질나고 끔찍한 생김새를 가진 존재. 심지어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 소악마가 있었으며, 대다수의 소악마는 지능이 없다고 할 만큼 그야말로 ‘괴물’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다.

그 끔찍한 존재를 보고난 후, 케시아는 여전히 모르가나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믿어야만 했다. 유일하게 루드비카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강령술사였으며 더 이상, 케시아가 잡을 동아줄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케시아는 본격적으로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에 태어난 시녀와 하녀들의 정보를 캐내어 제물을 만들어 모르가나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벌써 모르가나에게 보낸 제물의 숫자는 5명.

대악마를 소환하기 위해선 4가지의 조건 중, 가장 첫 번째로 100명의 제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야 5명을 채운 제물. 분명 처음엔 무슨 일이든 제 손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가나가 원하는 대로 하려 했지만 미약하게 남아있던 양심의 탓이었을까. 아님, 7년 가까이 기다릴 수 없는 인내심의 탓인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정작 다급한 마음인건 케시아 스스로였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령술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제물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하여금 인간의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악마를 소환해야 합니다.”

“굳이 악마가 필요한 이유는?”

“일종의 거래이지요.”

“…악마 따위가 거래라고?”

현실 같지 않은 말. 케시아는 코웃음을 쳤지만 이미 끔찍한 모습의 소악마를 본 이상,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생각하며 모르가나의 다음 말을 기다려야 했다.

“소악마는 약간의 피와 썩은 고기 살점이 있으면 충분히 소환할 수 있지만, 대악마는 다릅니다. 소환하는 조건이 무척 까다롭지요. 가장 태양이 높이 떠오른 날, 그리고 그 태양을 가릴 음기가 가득한 그림자. 대악마를 소환하는 첫 번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은 가장 음기가 가득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양기를 흡수하는 그야말로 사악한 어둠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가정 적합한 소환의 날이지요. 하지만 개기일식뿐만이 아닌, 대악마는 본디 순수한 처녀의 피와 영혼을 탐닉하는 존재. 처녀 한명의 제물 가지곤 대악마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께 100명의 제물을 부탁한 것입니다. 7년이면 충분히 제물을 모으기엔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는 또 뭐지?”

“7년이 되고 개기일식이 뜬 날. 만에 하나 그날 대악마를 소환하지 못하면 전하께선 영영 죽은 이를 두 번 다시 살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케시아는 눈을 부릅뜨며 모르가나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 사람을 살리는 금지된 술법이라 했으나 악마와 제물만 있으면 사람 한명 살리는 것쯤은 간단한 것이라 생각한 케시아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말이었다. 또한 그 얘기를 지금에서야 꺼낸 모르가나의 뻔뻔한 모습에 케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기껏 너를 돕고 있거늘! 뭐라? 그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다니! 어째서 그 얘기를 지금에서야 하는 것이야!!”

“진정하십시오, 전하. 아직 제 얘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르가나는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는 케시아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킬킬 웃으며 마저 이야기의 다음을 이어갔다.

“개기일식이 뜨는 건 앞으로 7년 후. 그때 동안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내고 전하께선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개기일식이 뜬 그때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 개기일식이 뜨는 건 그 다음의 50년 후.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없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하께선 50년 후를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때가 되면 전하께서 살아계실지가 무척 궁금하군요.”

“모르가나. 한번만 더 그딴 망발을 지껄인다면 너의 그 입을 꿰매버릴 것이다. 감히 천한 노파 따위가 왕녀를 우롱해?!”

하지만 뱉어내는 말과는 다르게 케시아는 모르가나를 노려만 볼 뿐, 서 있는 것이 전부였다. 유일한 강령술사. 그리고 루드비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두 가지만 아니었다면 이미 모르가나는 케시아의 명령으로 단칼에 처형당했을지도 몰랐다. 그것도 왕족모독 죄로. 그럼에도 케시아는 모르가나가 저를 놀리듯이 그딴 망발을 했음에도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야만 했다. 그깟 강령술사가 대체 뭐라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참아야한단 말인가.

“송구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전하의 반응이 재롱처럼 보여 제가 조금 도가 지나쳤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지요.”

저 속에 과연 능구렁이 얼마나 가득 차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케시아는 혀를 차며 품에 안고 있던 하얀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화가 났건만, 이 하얀 단지를 봤을 뿐임에도 케시아는 눈이 녹듯 금방 화를 가라앉히며 아주 소중히 다시금 하얀 단지를 끌어안아야 했다.

“루드비카….”

한참 동안 케시아의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루네즈의 표정은 썩 좋지 못했다. 모르가나가 시녀인 에블린을 제물 사용한 것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일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현재 제 주인의 품에 안긴 하얀 단지를 본 루네즈의 표정은 착잡할 따름이었다.

케시아의 품에 있는 하얀 단지는 바로, 루드비카의 무덤을 파내어 그 흙과 그리고 뼈를 골라 가루를 내어 담겨져 있는 유골함. 모르가나가 반드시 죽은 이의 뼛가루와 흙이 필요하단 이유로 케시아가 도굴꾼들을 고용하여 간신히 담아낸 유골함이라지만, 거기에 제물까지 들먹이며 멀쩡한 시녀들을 제물로 보낼 때면 루네즈는 그때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 루네즈에게 있어 제 주인은 오직 케시아 뿐이었으며 주인을 위해서라도 루네즈는 이 일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것이 주인의 행복을 바라는 길이라면.

“왕녀전하, 이제 왕성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루네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참 동안 유골함을 끌어안고 있던 케시아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에게 들키지 않고자 비밀로 움직이는 이상 서둘러 왕성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케시아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했으나 이내, 모르가나에게 유골함을 넘기며 언제나 그렇듯 경고와도 같은 주의를 남겼다.

“소중히 다뤄야 하며 결코 헛된 곳에 써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어디라도 잘못된다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왕녀전하의 소중한 것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마시고 편히 돌아가시기를… 또한 다음 제물을 기다리도록 하지요.”

그 마지막 말이 영 거슬렸으나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던 케시아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케시아와 루네즈가 지하실을 빠져나가고 한참 뒤. 모르가나는 제 손에 들려 있는 하얀 단지를 보며 음산히 웃기 시작했다.

“고작 제물을 5명 받쳤을 뿐인데 상당한 어둠의 기운이 이토록 감싸고 있을 줄이야… 왕녀역시 불길할 정도로 악한 기운이 넘쳐나거늘… 이 단지 내에 들어있는 이는 대체 어떤 자 이길래 이토록 살고 싶은 집념이 왕녀보다 더 악하단 말인가.”

평범한 인간의 눈으론 볼 수 없으나 모르가나의 시선에 비치는 하얀 단지는 이미 시커멓게 먹이 칠해질 정도로 짙은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원혼이 주변에 맴돌기라도 하는지 모르가나는 얼핏 하얀 단지가 미세하게 흔들린 건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충격적이었던 연회이후로 이미 온 성안에는 헤르세인의 이야기로 끊이지 않았다. 그저 단순한 사생아 일줄 알았던 왕녀는 본디 고귀한 핏줄이었으며, 더불어 과거의 왕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수재라고 알려진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 호사가들은 물론 시녀나 하녀, 일개 병사들 할 것 없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대대손손 이야기 거리로 가지기엔 충분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가 아닌, 우연히 복도를 지나 지나가던 기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빈센트는 현재 눈앞이 고요히 앉아있는 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물어야할지 쉽게 작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빈센트.”

“예… 누님.”

쉽게 떨어지지 않은 입술을 알고 있어서 일까. 그 모습을 일찌감치 눈치 챈 헤르세인이 먼저 빈센트의 입을 떼기 쉽도록 부르자, 아무것도 없는 덩그런 탁자만을 보고 있던 빈센트의 눈동자가 누이를 향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선을 마주한 헤르세인의 굳게 닫힌 입술이 드디어 열렸다.

“네가 무슨 이유로 날 찾아왔는지는 알고 있어.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고자 날 찾아왔겠지. 빈센트. 이 성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물론, 네가 귀로 들은 이야기 모두 거짓이 아닌 진실이란다.”

거짓이 아닌 진실. 연회장의 충격적인 선포와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 후, 카타리아 왕후가 현재 자리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빈센트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누이가 그것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어색해지고 어려워지는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애당초 누이의 아버지에 관한 일을 빈센트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누이란 존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어머니의 피가 이어진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뿐.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피는 같을 지언정 아버지의 피가 그것도 자신의 친부인 위스턴 국왕의 피가 아닌, 아버지의 형제이자 아버지가 죽인 에른스트 왕태자가 누이의 친부임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죄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빈센트였다. 그리고 얼굴에 한가득 불안과 미안함을 보이고 있는 어린 동생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과연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모든 사실들을 말해야 할지 입술을 달싹이던 찰나, 빈센트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시선을 붙잡았다.

“누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누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르다 해도 제가 지금의 폐하의 핏줄이라 해도… 누님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핏줄인 것을 떠나 제겐 누님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누님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빈센트….”

빈센트의 그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더 이상의 고민 따윈 할 수 없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그 일기장의 내용은 오히려 죽음과도 같은 지독한 독일지도 몰랐으니까. 헤르세인은 평생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빈센트의 이야기를 썼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사랑을 받아 자라난 아이. 물론, 처음엔 그것이 헤르세인에겐 질투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빈센트의 순수함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선 그런 비밀의 이야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상처는 어머니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기억하고 있니? 너와 이 침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날을.”

“예…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날 누님께 큰 잘못을 했는걸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 생각했건만, 시간은 어느새 빈센트와 이런 이야기 거리를 나눌 과거이자 추억이 되어버렸다. 헤르세인은 씁쓸히 미소를 그려 그날 있었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듯 입술을 나직이 움직였다.

“그때는 네가 너무 미웠어. 질투하고 화가 났었지. 난 이토록 죽을 고비를 매번 넘기며 살아왔는데 넌 너무 티 없이 해맑게… 그 누구보다 예쁨 받는 걸 보여주듯 순수한 미소를 보여주며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처음 받아본 선물이란 걸 네가 멋대로 집어 들어 혼자 착각하고 먹으려 했으니까.”

“누, 누님 그때는 제가 너무...”

“그때도 지금도 이제 미안해 할 건 없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걸로 너에게 화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 했으니까. 차라리 그때 내가 별거 아닌 표정으로 너에게 그 마카롱을 내어줬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겠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게 처음으로 가져본 내 욕심이자 누군가에게 받아온 선물이었으니까. 그때의 나는... 이런 과거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어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까. 빈센트는 물기어린 푸른 눈을 헤르세인에게 고이 두며 거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몇 번이고 누님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이해할 겁니다.”

“내가… 왕좌에 앉고자 반란을 일으킨다 해도?”

“…예?”

온화했던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서늘한 공기로 바뀌어 빈센트를 당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빈센트의 모습에도 헤르세인은 여전히 곧은 자세로 등을 더욱 곧게 핀 채, 빈센트를 똑바로 마주하며 다시 한 번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부딪쳤다.

“난 내 아버지 에른스트 왕태자가 앉지 못한 왕좌를 되찾으려 한다. 그리고 본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거고.”

“누님...”

“그러니 빈센트, 날 도와주겠니? 서로의 아버지가 다를 지언정, 너와 나는 결국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핏줄이자 끊어낼 수 없는 혈육, 그리고 단 하나 뿐인 가족… 난 이제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 너마저… 잃고 싶지 않구나.”

누님, 이라고 끝내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빈센트의 그 모습이 이토록 가엾고 연약해보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냐는 여린 모습은 사라지고 빈센트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한 굳은 의지의 눈으로 저를 마주한 누이를 향해 대답했다.

“제가 누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왕의 자질이 아닌 몸. 누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은 이상, 저는 언제나 누님의 곁에 있을 겁니다.”

본디 왕족이란 제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도 본능이란 것이 왕좌를 탐하는 법. 때문에 그 어떤 역사 기록을 보아도 왕좌를 차지하고자 제 혈육을 죽이고 형제를 밟으며 왕좌에 앉는 왕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본능이 있다 해도, 한 치의 욕심 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춘 어린 왕자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옅게 미소를 그려냈다.

“결코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너는 내 하나 뿐인 가족이자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그리고 소중한 내 동생이니까.”

현재 헤르세인은 귀족들은 물론, 윌리스 왕태자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의 뒤를 따라 하늘의 신전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평소라면 갈일이 없는 신전이지만 갑작스럽게 신전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혈통이 정말로 왕실의 혈통인지에 대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헤르세인이 왕의 증표인 진짜 솔루에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거짓임을 자처하는 이는 없으나 왕의 증표가 진짜라 해도,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 아직까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런데 진짜로 헤르세인 왕녀가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서열구도가 뒤집어 지는 게 아닌가?”

“반대로 헤르세인 왕녀가 가짜라면 그건 그거대로 왕실 능멸 죄로 능지처참이겠지. 아무튼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왕녀가 저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인 거면 결과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귀족의 일이 아닌가.”

귀족들의 최대관심사는 서열구도와 헤르세인 왕녀의 혈통성. 몇 번을 들어도 귀족들에게 있어 이만큼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과연 그녀의 혈통이 어떻게 드러날지 반신반의로 기대를 하며 웅성거리기 바쁜 와중, 반대로 그들이 무슨 말을 오가던 상관없이 무심히 여신의 조각상을 보고 있던 윌리스는 바로 근처에 서 있는 헤르세인에게 시선조차 없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뗐다.

“헤르세인.”

“…예.”

“네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처음이구나.”

“...”

처음엔 당황스럽기 보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어 헤르세인은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헤르세인의 반응 따윈 처음부터 궁금하지 않은 무심한 얼굴로 윌리스는 여신의 조각상을 한참 보고 있던 시선을 떼어 이윽고 헤르세인의 서늘한 푸른 눈동자와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네가 정말로 그분의 핏줄인 것이냐.”

귀족들,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와 다른 애매모호한 호칭. 하지만 헤르세인에겐 상관없었다. 윌리스 왕태자가 어떤 식으로 부르던 자신이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이 틀림없음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예, 저는 제 아버지 사브레 왕국의 왕태자 에른스트 칼 레자르 라그디알의 핏줄이자 하나 뿐인 딸이지요. 그리고 윌리스 왕태자 전하께선 결코 왕좌에 앉지 못하실 겁니다. 그 자리는 본래부터 제 것이었으니까요.”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임을 자신하는 대답은 예상했으나, 사브레 왕국의 왕좌가 당당히 자신의 것임을 대답한 헤르세인의 대담함에 윌리스는 실로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코웃음도 그렇다고 기가 찬 웃음도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의문의 웃음. 하지만 본인이 이토록 자신감 넘치게 나온 이상, 윌리스 역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와는 다르게 이미 어린 시절 부터 왕좌를 잇기 위해 제왕의 길을 쭉 걸어온 몸. 에른스트는 서늘히 헤르세인을 향해 처음부터 그 왕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님을 대답했다.

“처음부터 그 왕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앉고 싶다고 해서 앉을 수도 없는 자리. 왕좌란 그런 것이다. 내 것도 그렇다고 네 것도 아닌… 하지만 왕족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쟁취하여 앉아야할 자리. 헤르세인 너는 그 자리에 앉을 무엇이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앉을 합당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느냐?”

누구나 앉고 싶으나 아무나 앉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리. 반드시 쟁취하고 앉아야할 의미와 자격이 있는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정점의 자리이자 무게의 자리. 자격. 윌리스 왕태자의 말처럼 어쩌면 자신에겐 자격은 없을지도 몰랐다. 역사에 기록된 여느 왕족들처럼 직계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이 전부일수도 있으나 자격은 없다 해도, 명분은 있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의미와 명분.

“명분이라면 있습니다.”

“명분?”

서로의 두 눈을 마주보고 있음에도 지향하는 미래가 다른 시선의 엇갈림. 헤르세인은 위스턴 국왕의 빼다 박은 에메랄드빛의 눈동자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똑바로 보며 입술을 열었다.

“예, 명분. 왕태자전하의 아버지이신 위스턴 국왕폐하께선 이미 정신을 놓으신지 오래이죠. 그런 분께서 온전히 왕국을 돌볼 여력 역시 없으실 터.”

“그런 건 명분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는 명분은커녕 이 수도에 있는 모든 귀족들에게 조차 먹히지 않을 얘기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다른 명분이라면 귀족들도 저자거리의 백성들조차 제 명분에 동의할 것입니다. 형제이자 무고한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좌를 차지한 죄. 그리고 내 어머니를 겁탈하여 오랫동안 첩실과 다름없는 왕비란 것을 내세워 속박한 것은 물론, 나의 외가를 몰살시킨 죄. 또, 내 어머니를 죽이고 결국 자신까지 미쳐버려 나라를 패국으로 만들 뻔한 죄. 이 정도의 명분이면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이유는 충분하겠지요.”

그 순간, 지금까지 헤르세인을 마주하던 윌리스 왕태자의 두 눈동자는 스산하게 빛을 내며 살기를 띄워냈다. 처음으로 그가 내 비친 적의. 윌리스는 그 적의를 그대로 헤르세인을 향한 채 자신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그 명분이란 것이 네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힘이라면 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너를 정면으로 맞서주마. 허나, 나는 너와는 달리 오랫동안 왕족으로서 왕태자로서 자란 몸. 내 밑으로 붙어 있는 수많은 귀족들은 결코 네 편으로 돌아서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와 내가 피를 튀기는 쟁탈을 한다 해도 너 따위에게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새겨듣지요. 저 역시 왕태자전하의 힘에 밀리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이 다 한다 해도. 당신과 나의 전쟁으로 이 왕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둘 중 누군가는 죽어야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마.”

그때, 실내의 정문이 활짝 열리면서 교황이 입장했다. 교황의 입장으로 자리에 착석해 있던 귀족들은 물론, 카타리아 왕후까지 자리에 겨우겨우 일어나 예를 갖추자 단상위로 올라선 교황의 근엄한 목소리의 시작으로 헤르세인의 혈통 증명이 시작되었다.

사브레 왕국의 선대의 직계 핏줄임을 증명하는 자리. 수도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왕후, 그리고 윌리스 왕태자까지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는 중요한 자리임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윌리스 왕태자와 함께 단상에 선 헤르세인은 교황의 진중한 목소리를 들으며 검지손가락의 생체기를 내어 한 치의 더러움조차 없는 성수에 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저 보이는 것만이 거창할 뿐인 증명. 그러나 그 속은 그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하고 간소할 뿐인 모습이나 다름없었다.

혈통의 증명은 보기보다 간단했다. 깨끗한 성수 아래로 조부이자 선대 국왕의 핏줄을 이은 윌리스 왕태자의 피와 조부의 장자인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임을 자신하는 헤르세인의 피를 떨어트려 두 사람의 핏방울이 과연 하나가 되는지 혹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헤르세인의 예상대로 증명해냈다. 자신의 핏방울과 윌리스 왕태자의 핏방울이 한 대 뒤섞여 투명하던 성수를 서서히 붉게 물들이는 것을.

분명 핏방울이 한 몸인 것처럼 뒤 섞여 성수의 투명한 물을 붉게 물들였음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누가보아도 뻔히 증명을 했음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카타리아 왕후는 이번 일 조차 전부 꾸며진 일이라며 소리쳤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귀족들은 더 이상 헤르세인의 핏줄을 혈통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니야! 저 간교한 년이!! 감히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이다!! 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어!!!”

핏대가 서도록 왕후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왕후처럼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귀족은 아무도 없었다. 하물며 하늘의 신전을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나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 누가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간소하고 빨랐던 증명의 의식이 끝이 나고, 교황은 다시 한 번 귀족들에게 그리고 신전에 있는 모든 사제와 수녀들에게 고했다. 헤르세인은 틀림없는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이자 조부인 선대 국왕의 직계 혈통임을.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버린 며칠 후. 헤르세인에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던 레인 궁에 서서히 귀족들이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잡아 본적 없던 각종 값비싼 장신구들과 보석들. ‘뇌물’이란 것들의 각종 함들이 끊임없이 헤르세인에게 받쳐졌다.

“그럼 헤르세인 왕녀전하, 그저 변변치 않은 성의라 생각해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로서 몇 번째 얼굴인지, 이젠 가문의 성조차 머릿속이 따라가기 벅차 헤르세인은 이제 막 한숨을 돌리던 찰나였다. 입술 바깥으로 튀어나온 한숨과 동시에 두 눈앞에 덩그러니 보이는 수많은 보석함들. 여인이라면 필히 눈이 뒤집어질 만큼 좋아할지 모를 반짝이는 돌덩이 천지겠지만 헤르세인에겐 그저 돌로 밖에 보이지 않을 무감각한 것들이었다.

“라즐리.”

“예, 왕녀전하.”

“너는 지금까지 이 궁을 거쳐 간 귀족들의 머릿수를 세워봤니?”

그녀의 무심한 물음에 곁에 있던 라즐리는 그래도 전속시녀로서의 본분을 하고자 인지 헤르세인조차 끝까지 세지 못한 다녀간 귀족들의 숫자를 어림잡아 기억하며 대답했다.

“오늘까지 계산한다면 통틀어 백 여명은 가뿐히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수도에 널리고 널린 것이 귀족이라지만 이토록 많은 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기에 헤르세인은 잠깐의 숨 돌릴 틈이 필요했다. 요 며칠간 자신을 찾아온 귀족들마다 그들은 똑같이 입을 열고 무언가를 바라는 눈을 마주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 자신은 어떤 가문의 누구이며, 선대 가주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왕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동맹을 맺은 가문은 어디인지 등등, 물어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줄줄이 읊으며 헤르세인을 고단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백이란 숫자를 넘는 귀족 가문들 중 인상에 남는 귀족들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인상에 남는다 해도 찾아온 귀족들은 기껏해야 중소귀족들. 괜찮다 싶은 귀족을 찾았다 싶으면 가문과 사람은 멀쩡하나 자신의 뒤를 받쳐줄 힘이 없는 그런 소수의 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헤르세인은 이젠 신물이 난 보석함의 뚜껑을 덮으며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듯 움직였다.

“역시… 어느 정도 내게 힘이 되어줄 대 귀족들이 필요해. 하지만 그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테지. 가문이 클수록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많을수록 내게 오는 건 일종의 도박이나 다름없으니까.”

“하지만 전하… 그래도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왕좌에 앉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지요?”

중소 귀족들과는 달리, 대 귀족들은 애초에 중소 귀족들과의 또 다른 신분개념이 달랐다. 그들에게 있어 명예란 곧 가문이고 얼굴이며, 끝없는 재산과 영토는 그들의 권력이며 자부심. 그리고 작위란 것은 그들의 또 다른 이름과도 같았다. 그런 그들을 무엇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만든단 말인가.

“라인하르트 가문….”

잇새 사이로 어렵사리 나온 가문의 이름. 그녀에게 있어 라인하르트 가문은 이름을 뱉을 때면 마치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심장이 아릿하게 아파오는 그런 것이었다. 가장 사병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가문이자 어쩌면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만으로도 왕좌에 앉는 건 쉬울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라인하르트 가문을 선뜻 선택할 수 없었다. 후작과의 대면, 그리고 도움의 요청. 그러나 후작은 쉽사리 대답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거절도 그렇다고 승낙도 아닌 모호한 대답만을 헤르세인에게 내놓았었다.

"전하께서는 제 가문의 힘을 이용해 왕좌에 앉고 싶으신 생각이십니까."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니, 예… 설사 이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왕좌에 앉고 싶습니다. 아니, 앉을 것입니다."

"뒤늦게 권력이라도 탐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님, 무엇을 얻고자 왕좌에 앉으려 하시는 겁니까? 그저 그 자리가 거대하고 명령과 손짓하나만으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겁니까?"

처음 대면했을 때도 헤르세인은 후작은 겨울처럼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는 루드비카와의 헤어짐을 강요했으며 아비로서 그렇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후작의 모습을 떠나 가주로서의 무게를 지닌 라인하르트 후작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려는 매서운 눈으로 한 치의 인정 없이 헤르세인에게 쏘아붙이듯 물었다. 아버지로서의 원망도 증오도 그 어느 감정하나 치우치지 않는 가주이자 후작으로서의 서늘하던 눈빛. 그런 식으로 후작을 마주한 것도 처음이었으나 헤르세인은 그때서야 왜 후작이 철혈의 후작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만약 다시 저를 찾아오시거든 제가 움직일 수 있을만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으로선 저는 전하의 도움을 도와드리고 싶지 않을뿐더러 제가 전하를 도와드려야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헤르세인은 라인하르트 후작을 찾아 간 적이 없었다. 후작의 마음을 움직일 무언가를 찾지 못한 것은 물론, 그것을 다 떠나 라인하르트 란 이름을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단 한사람의 기억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이 죄책감으로 뒤덮어 헤르세인은 라인하르트 가문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왕녀전하. 어디 편찮으신 건…?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라즐리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헤르세인은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아릿한 통증을 계속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어 자리에서 일어나 라즐리에게 빈센트의 궁으로 갈 것을 알렸다.

“빈센트가 있는 궁으로 가야겠어.”

“지금 말씀이십니까? 이제 곧 저녁식사가 준비될 텐데요?”

벌써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는지 헤르세인은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수 있었다. 어느덧 해가지고 있는 붉은 노을의 풍경.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노을이 지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던 헤르세인은 완전히 몸을 돌려 움직였다.

“그럼 빈센트랑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전하.”

쉴 틈 없이 드나드는 귀족들 덕분에 요 며칠사이 편히 있지 못한 그녀였다. 헤르세인은 단 하루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빈센트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서 답답하고 꽉차버린 머릿속을 어느 정도 비워내고 싶었다. 헤르세인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녁공기가 차서인지 겉옷을 준비하고 채비를 마친 라즐리의 기다림에 헤르세인은 아무 말 없이 빈센트가 있는 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중립파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의 가문이자 그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레이스 후작가의 저택. 평민이자 일개 가문의 기사에 불과한 길버트와 후작의 외동딸인 그레이스 공녀와의 혼인으로 여전히 귀족들, 특히나 귀부인들 사이에선 간간히 입에 오르는 가십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던 헛소문을 부풀이던 그레이스 후작은 물론, 공녀 아니 이제 가문의 작은 안주인이 된 아이르리스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평소처럼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던 때였다.

“아버지, 정말로 그분… 아니, 헤르세인 왕녀전하가 돌아가신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핏줄이 사실입니까?”

포크와 나이프 질을 멈추며 대담히 후작에게 궁금증을 물은 아이르리스의 목소리에 후작은 여전히 나이프 질을 멈추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래, 사실이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늘의 신전에서 그분이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핏줄임을 확인했단다.”

“세상에… 그럼 정말로 이제 서열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바람이 불고 그러는 걸까요?”

늘 무난히 조용하던 그레이스 가의 식탁위로 아이르리스의 목소리가 후작은 물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던 길버트까지 고기를 썰던 나이프 질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레이스 후작은 냅킨으로 입 주변을 대충 닦아 와인을 가볍게 마시며 무겁게 입을 뗐다.

“이제 모두가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을 테지만, 카타리아 왕후만큼은 아닐 게다. 어떡해서든 제 아들을 왕좌에 앉히고자 제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갖은 술수를 쓸 테니.”

“그럼, 헤르세인 왕녀전하는 어찌 되는 건가요?”

무슨 일인지 오늘따라 유독 궁금한 것도 말도 많은 것 같은 딸의 모습에 후작은 제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자, 그것을 눈치 주는 것이라 착각한 길버트가 아이르리스를 제지했다.

“부인, 일단 그 이야기는 식사를 다 끝낸 다음 하는 게 어떻겠소?”

자신의 낭군이자 그레이스 가의 데릴사위로 작은 가주가 된 길버트. 하지만 아버지의 곁에만 있다하면 저토록 단호하고 뻣뻣한 모습을 보이는 낭군의 모습에 아이르리스는 살짝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살며시 올렸다.

“어머나, 길버트. 뭘 모르나 본데 이런 자리일수록 중대한 이야기는 식탁에서, 특히나 식사중일 때 말하는 것이 우리 그레이스 가의 풍습이란 걸 아직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부인, 부인 할 건가요? 그냥 평소처럼 ‘나의 아이르리스’라고 아버지 앞에서 불러도 괜찮은데.”

“부, 부인!”

길버트의 보기 드문 당황한 모습에 아이르리스는 재미나는 표정으로 낭군의 토마토마냥 빨개진 얼굴을 봤지만, 그 재미는 얼마가지 않아 진지한 표정으로 뒤바뀐 아이르리스로 인해 식탁의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어찌됐든 아버지,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째서냐. 아이르리스.”

후작의 물음에 아이르리스는 바로 맞은편에 있던 와인을 한 모금 입안을 적시고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야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야… 우리 가문이 언제까지 중립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오랜 중립파 가문이긴 했다 해도 아버지가 가문을 잇던 젊은 시절에는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께선 돌아가신 에른스트 왕태자전하를 지지하던 왕당파셨잖아요.”

“아이르리스… 아무리 넌 내 딸이라 하지만, 가끔 보면 아픈 구석을 은근 찌르는 구나.”

“그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 뿐 이에요.”

후작은 작게 신음을 삼키듯 피로해진 눈을 감으며 아이르리스의 말처럼 젊은 과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수재라 불리던 에른스트 왕태자. 혼기가 꽉 찬 젊은 영애들에겐 동화 속 같은 백마 탄 왕자의 그림과도 같았으나 실제로 에른스트 왕태자를 잘 아는 귀족들에겐 평가가 갈리는 그런 왕태자이기도 했다. 수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정치적 감각이 날카롭고 남달랐던 것은 높이 사나 본디 성격이 귀찮아하고 누구를 대하든 무심하던 성격이라 그런 왕태자의 말투에 오해를 하고 또는 은근한 적을 지어 왕태자를 싫어하던 한창 피 끓는 귀족자제들에겐 완전한 적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성격이 이상함에도 적이 있음에도 그를 따르고 지지하던 공자들이 많던 황금의 시절. 그 공자들 중, 그레이스 후작도 아직 가주를 잇기 전 에른스트 왕태자를 따르던 열렬한 지지자중 한명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의 폭풍과도 같았던 위스턴 왕자의 반란. 그리고 붕괴된 권력구도와 세력가들. 당시 가주를 잇는지 얼마 되지 않아 후작은 선택해야 했다. 죽은 에른스트 왕태자를 여전히 충심으로 따르거나, 가문을 위해 왕좌에 앉은 위스턴 국왕의 편에서거나 혹은 중립파로 돌아서거나. 결국 죽음과 목숨, 선택은 하나.

그리고 목숨의 선택으로 지금의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된 현재, 후작에게 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다. 가문명맥 또는 참회. 후작은 마지막 와인 한 모금을 짧게 삼키고서 여전히 제게 시선을 주고 있는 딸을 향해 선택의 시간이 왔음을 알렸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이르리스.”

처음엔 그저 친절하거나 아님 오지랖이 있거나, 또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그저 경계해야할 왕녀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단한 큰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다. 첫 인연의 시작이자 악연. 운명의 신은 지독한 저주를 헤르세인에게 남긴 것인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에게 있어 케시아의 존재는 카타리아 왕후만큼이나 또 다른 복수의 대상자.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악연의 존재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케시아 왕녀전하.”

“...헤르세인.”

루드비카의 죽음이후, 헤르세인은 단 한 번도 케시아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 일부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몇 번은 본 성을 한 바퀴 돌아 자신의 궁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다. 일부로 피할 이유도 마치 도망자 마냥 자신이 본 성을 한 바퀴 돌아갈 이유도 이젠 없었으니까.

현재 헤르세인의 눈에 비친 케시아의 모습은 루드비카의 죽음 이후로 뒤바뀌었다 생각될 만큼,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평소나 지금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것은 변함없으나 밤잠을 설치는 것인지, 혹은 악몽에 시달리는지 케시아의 두 눈엔 검은 그림자가 띄어져 있으며 한 때는 잘 익은 과실처럼 보였던 살구 빛의 두 뺨은 비쩍 말라 있었다. 헤르세인은 처음엔 흠칫하다, 어느새 분노로 일렁이며 독기 오른 두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케시아를 향해 먼저 담백한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군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한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감히 그딴 모습으로 당당히 여길 지나갈 수가 있는 거지!?”

“꼭, 이 성이 전하의 것 마냥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지나가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너 따위가 감히! 천한 사생아 따위가 감히!!”

예전이라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던 입을 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아주 많이 달랐다. 그땐 자신의 출생을 몰랐을 뿐이고, 그저 인내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던 과거. 빼앗길 때로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눈앞에서 잃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했던 과거.

헤르세인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빠르게 낚아 챈, 케시아의 손목을 뿌리치며 더욱 허리를 곧게 피고 한발자국 앞으로 다가갔다. 반대로 자신이 다가옴에 따라 한발자국 뒷걸음질 친 케시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톨 씨 하나 틀리는 것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1왕녀 케시아 엘 미네르 라그디알.”

“무엄하다! 감히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그녀는 알고 있을까. 오히려 지금 가장 무례한 것이 그녀임을.

“무엄이라니. 오히려 지금 가장 무례한 것이 케시아 왕녀, 그대가 아닙니까?”

“뭐, 뭐?”

헤르세인은 또 다시 한발자국 케시아의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제게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압박감에 잔뜩 긴장했는지 케시아는 또 다시 뒷걸음을 쳤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뒷걸음을 칠수록 헤르세인은 케시아의 앞으로 한발, 또 한발 다가갔다.

“당장 멈추지 못해?! 당장 멈추라고! 왜 자꾸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냔 말이다!!”

그 어떤 말도 행동도 없이 무미건조히 헤르세인이 다가올수록 점점 거리의 사이가 좁혀질수록 케시아는 발악하듯 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한발 뒷걸음질을 치기도 전에 어느새 공간조차 없는 꽉 막힌 단단한 벽의 느낌. 케시아는 등 뒤로 닿은 단단한 대리석 벽의 가로막힘에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을 깨달았다.

“너 이게 대체 무슨─!”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단히 붙잡힌 턱과 턱을 잡은 가는 힘에 케시아는 숨을 들이키며 허공에 눈이 마주친 헤르세인을 볼 수 있었다. 아니 오만하게 내려 보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기처럼 차가운 푸른 눈동자. 처음 보는 헤르세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까, 케시아는 이상하리만큼 추운 혹한의 겨울이 온 것 마냥 피부도 몸도 오한처럼 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들리는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케시아는 모든 감각이 저를 찌르는 가시마냥 불편하고 두려웠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일부로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님, 온실에서만 자란 순진한 잡초마냥 지금의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멍청한 왕녀라서 그런 걸까? 내가 왜 이러는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

“뭐… 라고?”

“똑똑히 들어. 난 더 이상, 네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던 천한 왕녀도 사생아 따위도 아니야. 네 어미가 아무것도 아닌 왕자비 시절, 난 이미 내 아버지 에른스트 왕태자의 뒤를 이을 하나 뿐인 핏줄이자 조부인 선대 국왕폐하의 직계 혈통이자 왕손. 그리고 이젠 그 서열구도를 뒤바꿀 왕녀이지.”

이제부터 뒤 바뀔 서열구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케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상대가 헤르세인이기에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어떡해서든 그럴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하! 그래서? 네 까짓 게 감히 왕좌를 앉겠다는 것이냐? 그래,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잘난 고귀한 왕녀의 신분일지라도! 결국 그 자리는 내 오라버니의 자리이고! 결코 너 따위가 그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거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왕녀가 왕좌에 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 어떤 왕국에서도 제국에서도 왕녀도! 황녀도! 왕좌에 앉은 전례 따윈 없어! 넌 절대 그 자리 못 앉아! 절대로!!”

그녀가 무엇을 믿고 이토록 발악하듯 외치는지 헤르세인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왕국의 실세는 명실상부 카타리아 왕후였으며 그녀의 뒤를 받쳐주는 대 귀족들과 오래전부터 왕좌에 앉을 준비가 된 윌리스 왕태자까지. 자신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그 왕좌의 주인은 윌리스 왕태자가 누워서 받을 만큼 모든 힘이 그들에게 가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그것을 그들에게 편히 줄 생각도 그 왕좌에 앉게 할 생각도 털끝만큼 없었다. 그 왕좌는 본디 아버지가 이어야할 자리였으니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에른스트 왕태자.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조부의 피로, 아버지의 피로, 어머니의 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은 위스턴 국왕과 지금의 힘을 가진 윌리스 왕태자와 케시아 왕녀. 반드시 빼앗으리라. 이번엔 자신이 그들의 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고야 말 것임을 맹세한 헤르세인은 케시아의 턱을 잡고 있던 손을 이번엔 손짓을 바꿔 압박하고 협박하듯 두 뺨을 잡아 끌어올리며 자신의 두 눈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절대 따윈 없어. 내가 그 슬럼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악착같이 버텼는지 너 따윈 모를 테지. 그래서 난 무서운 게 없어. 그리고 전례라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왕좌란 한번 왕족의 피를 이은 이상, 뺏고 빼앗는 게 왕족의 핏줄이란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 테지? 장자이기 때문에 물려받는다? 아니,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그 자리를 빼앗아 내가 앉을 거니까. 내 어머니를 죽인 네 어미가 했던 고문 그대로 내가 돌려 줄 것이고, 내 아버지의 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은 네 아비, 내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나 역시 똑같이 되갚아 주겠어. 그리고 또, 나한테서 그 사람… 루드비카를 빼앗아간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겪은 그 고통 그대로 너한테 돌려주고야 말겠어.”

서로에겐 어쩌면 이젠 금기와도 같은 이름. 그리고 먼저 그 금기의 이름을 깬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더욱 눈이 뒤집힌 케시아는 두 눈에 핏줄과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그 사람을 빼앗아간 거잖아!! 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너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내 것이었어! 내가 먼저 봤고! 먼저 사랑한 것도 나였어!!!”

악에 바친 케시아가 제 뺨을 억누르듯 잡고 있는 헤르세인의 손을 뿌리치며 핏대를 세워 소리치자 근처에서 타이밍을 노리던 그녀의 전속시녀 루네즈가 헤르세인을 떼어내고자 두 사람의 사이로 끼어들 때였다.

“라즐리.”

“예, 왕녀전하.”

헤르세인의 부름에 조용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라즐리가 빠른 걸음으로 루네즈의 곁으로 다가가자, 순식간에 속박하듯 두 팔이 붙잡혀 뒤로 끌어당겨진 루네즈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이게 대체 무슨─! 와, 왕녀전─!”

찰싹, 하고 살과 살이 부딪친 경쾌한 마찰음. 자신의 뺨이 언제 돌아갔는지 조차 몰랐는지 루네즈는 멍한 시선으로 헤르세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물론, 순식간에 루네즈의 뺨은 선명히 붉은 자국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루네즈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케시아는 금방 제정신을 차렸는지 이번엔 제대로 헤르세인의 뺨을 노렸지만 결국 이번조차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다. 단숨에 낚아 챈 가늘면서도 단단한 위압적인 손, 헤르세인은 바닥으로 내치듯 힘으로 케시아의 손을 뿌리쳐내며 마치 두 사람에게 경고를 하듯이 은근한 압박의 목소리로 토해냈다.

“일개 시녀 따위가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다시 시녀로서의 예법을 익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것도 아님, 감히 왕녀의 몸에 손을 대고 내 앞을 막아서려던 어리석은 벌을 받아야겠느냐.”

“그, 그게 무슨...”

뺨을 맞았다는 상황은 이미 루네즈에게도 케시아에게도 잊혀진지 오래였다. 시녀들이 지켜야할 규칙과 예법을 읊으며 경고를 읊조리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루네즈도 케시아도 선뜻 나설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없는 건 사실이나 다가설 수도,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는 헤르세인의 감히 건들 수 없는 싸늘한 분위기에 케시아는 이를 악물며 두 손을 움켜쥐었다.

“내 시녀를 네 멋대로 때린 것은 물론, 이런 식으로 날 욕보이게 만든 걸 내가 가만둘 줄 알고?! 헤르세인! 기어이 네가 미쳤구나!!”

마치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케시아의 목소리가 복도를 크게 울리자 서늘히 케시아를 쳐다보고 있던 헤르세인은 다시 다리를 움직여 천천히, 또 빗겨 가듯 이번엔 케시아의 곁에 바로 멈춰 섰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숙여 케시아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네가 먼저 사랑했다고? 네가 먼저 발견했다고? 어리석은 케시아 왕녀. 결국 그 사람이 택한 것은 나이며, 그 사람이 그토록 사랑에 목을 맨 사람도 나란 것을. 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할까? 그래… 그 대단한 고집 제가 인정하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건 결국은 나니까. 하지만 단단히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너 같은 걸 사랑하지도 않았고, 벌레 보듯이 너 따윈 안중에도 없었지. 왜냐고? 그 사람한텐 오직 나 밖에 없었으니까. 늘 내 귓가에 다정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달콤히 속삭여줬지. 사랑한다고… 언제나 내 옆에 평생을 있고 싶다고.”

“…닥쳐.”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그런데 케시아 왕녀, 당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나한테서 빼앗아 간 것은 물론, 가엾은 그 사람을 절망에 밀어 넣은 것도 자유로부터 속박한 것도 전부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 난 절대로 잊지 않아. 나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간 케시아 왕녀, 너를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트릴 테니까.”

나직이 속삭이던 고개를 들어 헤르세인은 허리를 꼿꼿이 피어 하얗게 얼굴이 질려버린 케시아를 볼 수 있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외 사랑에 대한 부정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을.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설령 썩어빠진 시체조각 조차 내 것이란 말이야!”

만약, 그가 자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헤르세인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케시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외 사랑을 이해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족도 아닌 ‘평범한’ 수도 어딘가에 살법한 지나가는 사람일 정도의 그런 무심함이지, 평범함이 아닌, 왕족으로서 태어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헤르세인에겐 털끝만큼의 이해심 따윈 영원히 없을 것이었다.

그를 만나버렸고 또한 자신이 사랑했으니까. 또 그 사랑으로 인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헤르세인은 케시아의 비틀린 집착을 비틀린 사랑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케시아는 그를 사랑한 적이기 이전,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원수 핏줄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예전처럼 천박한 말투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지요. 케시아 왕녀.”

또각또각. 점점 멀어지는 구두 굽의 소리. 마치 이 복도에서 아무 일 따윈 없었다는 듯이 무심히 지나치는 헤르세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이 완전히 사라진 동시에 간신히 제자리에 버티고 서있던 케시아는 바닥에 무너지고 말았다. 분노로 치욕으로 일그러져 버려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과 입술이 뜯기도록 꽉 깨문 아랫입술. 케시아는 고개를 틀어 헤르세인이 지나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듯 노려보며 다짐했다.

“절대로 네년 따위에게 루드비카를 또 다시 빼앗기지 않겠어. 반드시 살리고야 말거야! 반드시… 반드시! 보란 듯이 네 년의 앞에 그와 입을 맞추고 그의 품에 안겨 오늘의 이 굴욕을 되돌려 주고야 말겠어!!”

점심이 지나갈 무렵. 헤르세인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중년의 귀족. 분명 그레이스 후작도 헤르세인이 서로 찾아가야할 목적이 있었으나, 설마 그 본인이 직접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대면한 그레이스 후작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왕녀전하.”

“아닙니다. 한번쯤 뵙고 싶은 것도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찾아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왕녀전하. 그건 좋은 생각은 되지 못합니다.”

라즐리가 후작의 빈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던 도중, 생각지 못한 대답에 헤르세인도 라즐리도 덩그러니 후작에게로 시선이 멈춰버렸다. 그러다 재빨리 먼저 정신을 차린 라즐리는 찻잔에 물이 넘치기 전에 적정한 선에 물을 따라내며 한발자국 물러섰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무표정으로 후작을 보며 뒤늦게 입을 뗐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깊이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 왕녀전하의 태생과 혈통을 모르는 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선 윌리스 왕태자전하와 비등할 위치로 우뚝 서셨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두 분에게 차이가 있다면 힘. 즉, 권력의 차이일 겁니다. 현재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대 귀족들이 그 뒤를 버티고 서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저의 뒤를 바치고 있는 귀족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금방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한 헤르세인이 자신의 처지를 쉽게 수긍하자, 그레이스 후작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의 말처럼 현재 전하의 뒤를 받쳐주는 대 귀족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하께서 직접 대 귀족들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혹시, 제 발걸음이 다급해보이거나 가벼워 보일수도 있단 그런 말씀이십니까.”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왕녀여서 일까. 아님 감각이 타고난 것인지 빠릿 한 그녀의 목소리에 후작은 두 번의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예, 전하께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것도 얼마 되지 않으셨으나 이런 상황일수록 먼저 움직이는 모습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현재 전하의 행동주시는 윌리스 왕태자 전하는 물론, 카타리아 왕후폐하역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전하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마 신전의 일 이후로 일거수일투족 왕녀전하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카타리아 왕후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윌리스 왕태자가 먼저 무슨 행동을 하던 헤르세인에겐 귀족들의 힘이 당장 필요했다. 그리고 궁에 갇혀버린 비운의 왕녀마냥 창밖의 바깥구경만 하며 기다릴 수도 지켜볼 시간조차 헤르세인에겐 부족했다. 무슨 이유로 후작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이유로 자신을 찾아와 이런 조언 같은 얘기를 하는지 헤르세인은 후작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언뜻 보기엔 경계해야할 적으로 보이진 않으나 이렇게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있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렇다고 후작을 선뜻 신뢰할 수도 없었다.

그런 헤르세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해서 일까. 후작은 가볍게 입을 적시던 찻잔을 내려놓고서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제가 전하를 찾아온 이유를 혹 알고 계십니까?”

후작이 직접 말하지 않고서야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헤르세인이 고개를 젓자 후작은 이곳에 온 이유를 천천히 꺼내놓았다.

“아직 전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저는 본디 중립파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대 국왕이신 바로크 국왕폐하를 지지하던 왕당파였으며 저는 다음으로 그 왕좌에 앉으실 차기 후계자이시던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지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후작은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 씁쓸한 미소를 보이며 헤르세인조차 모를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냈다.

“전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른스트 전하께선 왕태자비이신 아라네아 전하를 많이 아끼시고 많이 사랑하셨지요. 늦게 혼인을 올리신 만큼 회임에 대한 압박도 있으셨으나 그건 귀족들의 앞지른 오지랖일 뿐, 오히려 바로크 국왕폐하의 핏줄이 맞나싶을 만큼 에른스트 전하에게 있어서 아라네아 전하는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헌데, 알고계십니까? 잉꼬부부로 유별난 것도 있으셨지만 의외로 에른스트 전하께선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신 분이셨지요.”

“까다롭다고요?”

그레이스 후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 왕태자와 만났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직 가주를 잇기 전, 한창 후계자의 수업을 받고 있던 공자시절. 가주인 아버지의 부름으로 왕성에 따라 들어간 젊은 그는 그곳에서 에른스트 왕태자를 처음 조우할 수 있었다. 마치 세상에는 관심 따윈 없는 듯한 무심한 눈과 일자로 꾹 다물어진 입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책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떤 감흥조차 없던 독특한 왕태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모든 잘나 보이는 왕태자의 모습이나 왕태자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흥미를 보일 빛이 없었다. 때문에 첫 만남 조차 얼마나 당황스러웠던가.

"처음 뵙겠습니다, 왕태자 전하. 저는 그레이스 가의 장자인 아치발트 홈 와이즈 그레이스 라 합니다. 전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일 정도로 내가 영웅이거나 신도 아닌데, 그렇게 거창히 소개할 필요가 있나? 그레이스 후작의 뒤를 이을 차기 후계자라해서 일절 기대도 하지 않았네. 왠지 후작만큼이나 그대도 그다지 재미있는 사내라 생각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군."

언뜻 듣기엔 무례하면서도 오만하기까지 한 왕태자의 발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젊었던 후작에겐 그에겐 그 발언이 딱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계속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 왕태자의 말을 다시 곱씹을 때면 후작은 감화되듯 정신을 차렸을 땐, 왕태자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절친한 친구는 아니더라도 ‘동료’정도의 위치까지 가 있었다.

"전하, 감축 드립니다. 드디어 왕태자비 전하께서 회임을 하셨다지요? 왕성에 이보다 더한 경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레이스 공자… 아니, 이제는 젊은 후작이라 불러야겠군. 그러고 보니 자네에게 자식이 몇이었지?"

"아직 딸 하나뿐 입니다만…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는지…."

"혹시 그대에게 아들이라도 있다면 내 딸을 넘보지 못하게 경고하려 했지."

그때 당시만 해도 후작은 에른스트 왕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 막 회임에 접어든 왕태자비일터인데 벌써부터 딸이라니. 더불어 바로크 국왕은 물론 모든 이가 왕태자비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왕자이기를 은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왕자도 아닌, 콕 집어 딸이라 말하며 벌써부터 어린 자식들이 있는 귀족들을 경계하는 왕태자의 모습에 얼마나 황당하던지.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황당함은 어느새 추억의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토록 딸을 바라던 왕태자는 끝내 딸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으며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를 그의 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앞에 앉아있으니….

“상대하기 까다로운 분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전하께선 왕녀전하가 세상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신 전하의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분이시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그래도 후작 덕분에 어느 정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머니의 시점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헤르세인 왕녀전하.”

“예. 말씀하세요.”

진중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후작의 부름에 헤르세인은 흔들리지 않는 투명한 눈으로 후작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심에선 그레이스 후작은 무릎위로 가지런히 손을 모아 헤르세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건넸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전하께선 틀림없는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핏줄이자 조부인 선대 국왕폐하의 직계 혈통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니 전하께 묻겠습니다. 왕녀전하께서는 왕좌를 어찌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후작께서 제게 도움을 주시거나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후작은 고개를 저으며 현재 그레이스 가문이 속한 중립파에 관한 색깔에 관해 설명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립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옮고 그름을 택하기보다, 옮고 그름의 그 가운데에 멈춰 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제가 속한 중립의 목적이지요. 하지만 전하께서 왕좌에 앉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중립을 이제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 말은….”

헤르세인이 설마 하는 눈으로 후작의 눈과 부딪치자, 후작은 이미 결심한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 지키지 못한 에른스트 왕태자의 뒤를, 그의 딸을 이번엔 틀림없이 지킬 생각이었다.

“예, 저는 물론 제 가문은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지지하고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받칠 것입니다.”

헤르세인에게 있어 후작의 지지는 의외의 선언이었다. 중립파를 고수하던 그레이스 가문이 마치 중립파와 척을 지고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다. 후작의 충성심이 아닌, 자신을 지지한다는 건 일종의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왕좌를 빼앗지 못한다면 대 귀족인 그레이스 가문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미 헤르세인의 그런 걱정을 눈치 챘는지 후작은 눈가에 살짝 주름진 눈웃음을 옅게 띄우며 그녀의 불안을 덜어내고자 했다.

“전하, 가문이 큰 귀족일수록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족의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이지요. 귀족에게 있어서 왕족 중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도박처럼 실패이든 성공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충심을 받쳐 지지한다는 것은 지지자의 새로운 힘이자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권력의 힘을 비등하게 만들기 위한 귀족들 간의 또 다른 눈치싸움이기도 하지요.”

“...”

“아마 오늘 이후로 제가 전하의 밑으로 들어갔단 사실이 알려지면 대 귀족들도 서서히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대 귀족들에게 있어, 힘의 균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더욱이 명예를 중시하는 귀족일수록.”

“그런데 만약,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로 인해 후작께선 악의 길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반역이란 이름에 몰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처럼 한 순간의 선택이 계속 정상에 오를 수도 있으며, 완전한 낭떠러지에 추락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후작은 틀림없는 굳은 의지의 눈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 선택으로 인한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저는 전하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한 치의 거짓 없이 오직 믿겠다는 정직한 대답. 헤르세인 역시 더 이상 후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라인하르트 가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 귀족들 중 손에 꼽히는 사병을 거느린 그레이스 가문. 헤르세인에게 있어 이보다 든든한 지원군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제게 힘을 실어주셔서. 그리고 이 은혜는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려 하자, 후작은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왕녀로서 행동해야할 일이 아님임을 부드럽게 지적했다.

“전하, 전하께선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쉽게 숙이시지 마시고, 허리조차 굽히셔서도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왕좌를 차지하실 분. 그러니 앞으로도 당당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줘서. 정말로.”

“별말씀을요. 오히려 전하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저는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에게 충성을 받쳤으나 제 가문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어, 도망쳐버린 어리석은 자였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왕태자전하께 못다 드린 충성을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그레이스 후작에게 있어선 에른스트 왕태자를 지켜내지 못한 큰 후회의 덩어리가 가슴에 막혀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또 다른 선택이 후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선택의 길을 정하게 만들었다. 설령 이 길이 틀릴지라도 후작에겐 일말의 후회 따윈 없었다. 헤르세인 왕녀의 눈을 처음 두 눈으로 마주한 순간 후작은 직감했다. 그녀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에른스트 왕태자가 미처 앉지 못한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중립파의 수장 격이나 다름없던 그레이스 후작이 중립을 버리고 헤르세인 왕녀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왕성은 다시 한 번 발칵 뒤집어졌다. 대 귀족들 중 대부분이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나, 아직까지 헤르세인 왕녀의 편으로 돌아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대 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레이스 후작이 직접적으로 나선 이상, 눈치를 보며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못하던 이름 있는 귀족들이 서서히 하나 둘, 헤르세인 왕녀의 편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평소의 그레이스 후작과 귀족들 사이의 민심 때문일까. 대다수의 온건파들이 순식간에 헤르세인 왕녀를 지지하기 시작했으며 한군데로 몰려 있던 세력이 점차 나눠지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했다.

“들었습니까? 그레이스 후작이 헤르세인 왕녀의 편이 되었다면서요?”

“잊었습니까? 후작은 중립파로 들어서기 전, 원래는 에른스트 왕태자의 지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분명 헤르세인 왕녀를 선택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으나 어찌되었든 왕가의 증표, 솔루에를 가지고 있는 선대 국왕의 직계 혈통입니다. 어찌 보면 윌리스 왕태자 보다 헤르세인 왕녀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회의실에 모여든 귀족들 중 흔들리고 있는 귀족들이 웅성거리며 헤르세인 왕녀의 지지가 될 직계혈통을 강조하자, 그럼에도 아직 흔들리지 않는 귀족들은 고개를 저어냈다.

“직계혈통으로 헤르세인 왕녀가 유리할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왕자도 아닌 왕녀의 신분입니다. 왕국이나 제국 역사상 여인이 왕좌에 앉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헤르세인 왕녀가 어떻게 왕좌에 앉았다 칩시다. 그 다음은요? 정치엔 발도 들이지 않은 왕녀가 나라를 다스릴 경험이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귀족이 단언하듯 헤르세인의 자질에 대해 부정을 비치자, 이미 헤르세인 왕녀의 편으로 돌아선 또 다른 귀족이 이번엔 윌리스 왕태자의 실체, 정확히 말하자면 현 국왕과 왕후에 대한 과거의 일을 끄집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윌리스 왕태자 역시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왕태자 자체로 충분히 경험이나 능력이 뛰어날지 몰라도 결국 그 뒤를 받쳐준 것이 누구입니까? 극악무도한 패륜으로 선대 국왕을 죽인 것은 물론, 하나 뿐인 형제를 죽여 피의 반란으로 왕좌에 앉은 지금의 국왕폐하이십니다! 그리고 왕후폐하는 또 어찌하고요? 왕후페하께서 전란이 일어난 와중에도 사치 때문에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정을 관리할 한 나라의 모후가 아직까지 사치에 낭비하여 국고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할 말이 있는 법이거늘!! 지금 그쪽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귀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갑작스러운 전쟁이후로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의 숙청? 피의 반란? 예, 현 국왕폐하께선 그 반란으로 지금의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대 국왕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물론, 재정상태도 백성들의 민심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 나라꼴이 우습게 알았으면 우리가 평소 관심조차 갖지 않던 몬테올 왕국이 감히 사브레 왕국을 치려 들겠습니까?!”

그 순간, 듣자듣자 하니 욱해버린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던 한 귀족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대노한 목소리로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이보시오! 아무리 그쪽이 온건파의 귀족이라 해도 가려야할 말이 있는 법이거늘! 지금 그대가 한 말이 왕족 능멸이란 걸 알고나 있는 것이오!?”

“능멸이라니!! 난 사실대로 말한 것 뿐 인데 오히려 그쪽이 왜 욱하고 나서는 게요!!”

“아니 뭐라고?! 별 볼일 없는 가문 따위가 감히!!”

“말 다했소?! 그쪽이야 말로 윌리스 왕태자의 발이나 핥는 신세가 참으로 우습소!!”

순식간에 회의실의 장내는 싸움판에서 개판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리저리 공중에 흩뿌려진 종잇장들과 서로의 얼굴을 쥐어뜯으려는 날쌘 동작은 물론, 심지어 날아다니는 주먹질까지. 원래라면 나라의 재정문제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수도의 각 귀족들이 모여든 자리이나, 이미 그들에겐 그 논의는 잊히진 오래였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기 보단,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의미 없는 몸싸움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개판 싸움을 무심하면서도 한심이 지켜보고 있는 라인하르트 후작과 클로드. 루드비카의 죽음 이후로 클로드는 기사로서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후작의 뒤를 차기 후계자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훈련소가 아닌, 본성의 회의실로 출근하는 일이 잦아들었다. 더불어 정치판에 발을 딛는 것은 모든 젊은 후계자들의 절차와도 같은 일이기에 클로드 역시 이젠 이 광경이 서서히 눈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생이 기사의 성질 때문일까. 그들의 의미 없는 몸싸움이 한심하게 보이면서도 그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 또한 클로드가 인내해야할 몫이기도 했다.

기사의 마음으로서는 당장에라도 그들을 뜯어 말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은 기사 클로드가 아닌, 다음 라인하르트 가문을 짊어질 차기 후계자인 몸. 더욱이 어떤 손짓에서도 모든 시선을 받는 라인하르트 가문이기에 그들을 말리는 것은 더더욱 자제해야 했다. 만에 하나 그들을 말린다면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강요적인 선택이란 시선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윌리스 왕태자의지지, 또는 헤르세인 왕녀의지지 둘 중 하나의 선택. 그리고 아버지인 라인하르트 후작의 최후의 선택까지. 클로드의 입장으로선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개싸움을 지켜보며 그들조차 서서히 지칠 무렵, 자리에 일어나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이가 나타났다.

“모두, 그만들 두시오. 언제까지 이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할 생각들이오?”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이는 다름 아닌 다느피안 남작. 예상외의 인물의 중재에 모든 귀족들의 시선이 다느피안 남작에게로 집중되었다.

“우리들은 오늘 왕실 재정과 전쟁의 후폭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오. 어린애 같은 몸싸움을 하고자 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다느피안 남작의 말에 금방 동화가 된 것인지 서로 편을 가르며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던 귀족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장내의 분위기가 차츰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을 때였다. 귀족들의 몸싸움을 방관하던 대 귀족 중 하나인 다빈느 후작이 다느피안 남작을 지목을 시작으로 다시 장내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러면 나 역시 다느피안 남작에게 묻겠소. 다느피안 남작은 중립파에 속한 몸. 중립의 시선으로 헤르세인 왕녀를 어찌 보고 계시오?”

“그 전에 다빈느 후작, 아무리 그대가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편이라 해도 함부로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아랫사람으로 보듯 말을 삼가게. 그분은 왕실의 일원이자 돌아가신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하나 뿐인 핏줄일세.”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실을 말하는 다느피안 남작의 지적에 다빈느 후작은 이를 갈았지만 그저 혀를 차는 것으로 조용히 있어야만 했다. 제 아무리 작위가 낮은 귀족이라 해도, 다느피안 남작은 물론, 그의 가문은 선대 국왕 총애를 받은 것을 더불어 오랜 명문가이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뛰어난 학사들을 배출하며 왕들의 스승가문이라 불리는 다느피안 가문. 현 위스턴 국왕조차 다느피안 남작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선뜻 다느피안 남작을 몰아세우는 귀족들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덕분에 조용해진 분위기를 감지한 다느피안 남작은 다빈느 후작의 물음에 천천히 토론의 대화처럼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헤르세인 왕녀전하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오. 선대 국왕폐하의 직계 혈통이자 돌아가신 에른스트 왕태자 전하의 핏줄이긴 하나, 윌리스 왕태자 전하처럼 제왕학을 배우고 일찍이 정계에 발을 들이신 분도 아니시니 말일세. 그래서 그분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할 겸 이번 일을 나는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맡겨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오?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나라의 재정의 맡기자 이 말이오?!”

분명 핵심의 이야기를 말했으나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귀족들에겐 들리고 싶은 것만 들리는 엇나간 가시 돋은 물음에 다느피안 남작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내 얘기를 무엇으로 들은 것이오? 재정 일은 아무리 왕녀전하라 해도 이것은 우리들의 소관이자 위스턴 국왕폐하, 또는 왕후폐하의 전적인 일이오. 이것은 윌리스 왕태자 전하 역시 손을 댈 수 없는 일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소?”

“그, 그건...”

“아무튼 내 얘기는 이렀소. 몬테올 왕국으로 심각히 피해를 입은 지역 쪽을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맡기어 그 능력을 시험하자는 얘기일세. 이것은 윌리스 왕태자전하 또한 평소처럼 지역관리를 하는 일이시니, 이 일이라면 전하께서 맡으셔도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 생각되오.”

작게 웅성거리던 귀족들이 서서히 다느피안 남작의 말에 동의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자, 어느새 모든 귀족들이 저마다 손을 올려 찬성표를 던졌다. 처음으로 귀족들이 헤르세인 왕녀에게 건넨 능력과 자질의 시험. 그리고 그 누구도 반대에 손을 드는 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일로 모두가 헤르세인 왕녀의 자질을 지켜보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럼 모두가 찬성을 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 안건을 왕후폐하는 물론, 윌리스 왕태자전하께 올리겠소. 단, 이것은 명백한 자질의 시험이기에 기한을 두고자 하오. 기한은 일주일. 일주일 내로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 나는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자질이 없는 분이라 생각하겠소. 직계혈통, 에른스트 왕태자전하의 핏줄임을 떠나 이것은 나라의 중대한 사항이자 왕의 자질을 가졌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소.”

왕의 자질을 가졌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 다느피안 남작은 마지막 말이 핵심임을 설명했고, 그것이 더욱 귀에 들어온 귀족들은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 반대로 마지막 말이 핵심이긴 했으나 다느피안 남작의 생각은 달랐다. 제 아무리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 해도, 왕도 사람인 이상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었다. 다만 이 일을 하여금 다느피안 남작은 헤르세인 왕녀가 과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빈느 후작은 작게 코웃음을 치며 이 일은 절대 헤르세인 왕녀가 해결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가장 피해를 막심히 입은 지역은 ‘단알’ 몬테올 왕국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현재 그곳의 영주가 이곳과 마찬가지로 영주의 자리를 놓고 피 터지는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접한 후작이었다.

어쩌면 땅이 2개로 분열될지 모를 또 다른 전쟁터와 같은 곳. 다빈느 후작은 이 일을 하여금 카타리아 왕후와 논의하여 헤르세인 왕녀가 결코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언제 들어와도 기분 나쁜 지하실의 광경.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제물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케시아는 평소보다 기분이 매우 저조했다. 헤르세인과 만난 이후로 증오심이 배가 된 것은 물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모든 행동들이 케시아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증오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케시아는 더더욱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다. 생각처럼 늘어나지 않는 제물의 수와 그의 생일과 똑같은 처녀 제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왕녀전하. 오늘로 총 7명의 제물이 되었군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말이지요.”

“7명….”

케시아에게 있어, 왕성이란 제 손바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녀도 하녀도 모두가 어머니의 것이듯 자신의 것이기도 한 것. 하지만 루네즈가 가져온 시녀와 하녀명단을 줄줄이 꿰고 있음에도 제물에 적합한 시녀나 하녀를 찾기란 손에 꼽는 일이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케시아가 모르가나에게 성질을 부리듯 입을 뗐다.

“꼭 그 사람과 생일이 같은 온전한 처녀야만 하는 것이냐? 생일이 달라도 혼인을 하지 않은 온전한 처녀는 지천에 깔려있을지도 모른단 말이다!”

“이런, 마음이 급하신 겝니까?”

“이제 7명이다. 이제 7명 째야! 어느 세월에 그 조건을 갖춘 제물들을 모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케시아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럼에도 놀란 표정 없이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낄낄 웃던 모르가나는 지팡이로 하여금 몸을 느릿하게 움직여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알 수 없는 글귀가 쓰인 두껍고 낡은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는 모르가나의 여유에 케시아는 더욱 화가 치밀어 모르가나가 읽던 책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던졌다.

“지금 내 말이 우스운 것이야?! 나는 너 따위 노파가 무시해도 될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고! 너 따위가 우러러 보아야할 왕녀란 말이다!!”

“예, 왕녀전하께선 이 미천한 노파가 감히 우러러 봐야할 그런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높으신 왕녀전하께선 또한 제가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지요. 제가 바로 전하께서 바라시는 것을 들어줄 유일한 존재이니 말이지요.”

“네 까짓 게 지금, 내게 훈계하는 것이냐?!”

모르가나는 철없는 아이처럼 제 욕심만이 전부인 왕녀의 모습을 찬찬히 보았다. 오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며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고귀한 것이 하늘이고 백성 따윈 천하다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성질. 그리고 날이 갈수록 다급함과 함께 눈에 광기와 집착이 서슬 퍼렇게 서린 왕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왕녀가 기어코 무슨 사단을 낼 것이란 직감이 들었다. 그래도 기껏해야 떼 밖에 쓸 줄 모르는 왕녀. 모르가나는 할 수 없이 최선책을 선택해야 했다.

“전하께 있어서 7년이란 시간은 100명의 제물을 모을 충분히 남아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이토록 다급해 하시니 또 다른 방법을 전하께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나,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는 최후의 방법을.”

현재 헤르세인은 수도에 별장을 둔 그레이스 후작 가에 초대를 받아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가지고 산책 겸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특히 후작은 자신의 딸이자 후작가의 작은 안주인이라 불리는 아이르리스를 소개하며 헤르세인이 더욱 후작가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딸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후작의 말처럼 아이르리스는 최대한 헤르세인이 불편함 없이 성심껏 처음 마주한 왕녀를 보필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성격이 맞았던 탓일까. 성대한 것을 껄끄러워 하며 소소하거나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비슷한 점이 있던 아이르리스는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들어 본 것만으로도 전하께서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는지 알 것 같군요.”

“그런가요? 그때 당시의 저는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슬럼가에서 살았던 때가 더 제 자신다운 삶이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전하.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전하께선 슬럼가에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건가요?”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생각지 못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온 헤르세인은 루드비카 말고도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르리스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고 너무 깊이 공감하듯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진중한 자세가 헤르세인의 마음을 이끌게 했다. 그리고 슬럼가에 살았던 과거로 다시 한 번 돌아가고 싶냐는 그녀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과거의 제 자신을 떠올렸다.

“만약 출생의 비밀조차 몰랐던 과거의 저라면… 슬럼가에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럼 지금은 아니신가요?”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걷고 있던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리고 멈춰 서자 바로 고개를 숙여 보이는 하얀 장미 꽃밭. 헤르세인은 한 치의 티조차 없는 맑은 장미꽃을 붉게 물들어내고 싶었다. 자신이 증오하는 그들의 피로 하여금.

“예… 돌아가고 싶어도 이젠 그럴 수 없으니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비극을 들은 이상,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두 눈으로 본 이상…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지나왔으니까…. 제가 죽어야할 곳은 이곳입니다. 슬럼가가 아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가 뿌려진 왕실.”

아이르리스는 헤르세인의 왕녀의 눈 속에 담긴 심연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깊고 너무도 깊어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바닥이 없는 절망 속에 빠져버릴 것 같은 검은 심연. 하지만 그 심연 속에 어떡해서든 손을 뻗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불꽃을 볼 수 있었다. 증오로 불타오로는 복수심의 불꽃이. 아이르리스는 그녀의 증오와 복수가 자신이 나서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엾기는 마찬가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제 아버지처럼 그녀를 돕고 싶었다. 아니, 그녀를 처음보고 이야기를 나눈 순간부터 알고 있던 건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자신도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라 하면….”

“전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하를 먼 발 치에서 전하를 뵌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면을 쓰셨기에 그때의 저는 전하라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헤르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으나 ‘가면’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와 함께 피아노 연주회를 보러갔던 과거. 헤르세인이 살짝 흔들리는 눈을 하고 있자, 아이르리스는 씁쓸히 웃으며 그때를 회상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와 그분은 약혼을 할 뻔한 사이이기도 했지요. 아…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하시다면….”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해보세요.”

헤르세인이 고개를 저어 계속 얘기할 것을 권유하자 아이르리스는 최대한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때 당시의 저는 마음에 품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분께도 마음에 품은 누군가가 있으셨지요. 결국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약혼은 취소되었고 어느 날 제게 운이 좋게도 피아노 연주회의 티켓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낭군이기 이전, 제가 마음에 품고 오랜 짝사랑의 결실을 맺은 저의 기사님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분이 나타나시더군요.”

“...”

헤르세인은 그 다음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루드비카와 그리고 자신. 헤르세인은 당장 그날이 어제의 일인 것처럼 생생히 기억났다. 그 어느 때보다 멋지게 차려입은 그와 드레스를 입고 가면을 쓰며 그의 팔짱을 끼고 연주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의 기억. 헤르세인은 그날을 기억하며 덧붙이는 아이르리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매번 여러 명의 여인이 바뀌신 분이셨지요. 물론 소문으로만 익히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그분과 얼굴을 마주했을 땐 소문은 역시 못 믿겠구나 싶을 만큼, 누군가를 이미 절절히 마음에 품고 게신 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봤음에도 제 눈에는 그 분의 표정이 전부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가면의 여인의 궁금해 하는 연인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한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지요.”

“아이르리스 부인.”

“예, 전하.”

“그게 저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그녀를 시험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왜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지 헤르세인은 단순히 궁금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이르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레이스 가의 명예를 걸고 단언할 수 있다는 눈으로 헤르세인에게 고했다.

“케시아 왕녀와 그분과의 약혼 이야기가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버지에게 상의 드릴 것이 있어 잠시 왕성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건 아니지만 근처에 지나가던 그분을 얼핏 볼 수 있었지요. 전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혼이라면 누구든 기대어림과 행복을 담아 주체 못할 감정이 뿜어져 나오지요. 그만큼 사랑하는 이와 작은 약속이 맺어졌다는 일생의 다시없을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분의 표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할 그리움을 그리며, 얼굴에 진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때 당시, 가면을 쓰고 있던 여인은 왕국에서도 보기 드문 남색의 머리를 가진 분이셨으니까요. 라고 미처 나머지의 말은 토해내지 않았다. 또한 헤르세인의 눈을 볼 때마다 언급되는 누군가가 나올 때면 헤르세인은 눈은 작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음을 아이르리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확신했다. 눈치로, 느낌으로,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흔들리는 파도로. 또한 그녀가 고귀한 출생을 가졌다는 왕녀이기 이전, 모든 귀족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던가.

케시아 왕녀의 약혼자를 빼앗아간 지독한 악녀. 또는 순진한 공자를 꼬드긴 천한 슬럼가 출신의 사생아 왕녀. 이것만으로도 아이르리스는 그와 헤르세인 왕녀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헤르세인은 가시 돋친 하얀 장미의 꽃잎을 지분거렸다. 보들보들하면서도 그 표면이 얇아 살짝 힘만 주어도 찢겨져버릴 것 같은 여린 장미꽃잎. 그리고 살짝 힘을 주었음에도 순식간에 찢겨져버린 장미꽃잎을 보며 헤르세인은 아릿하게 눈을 감았다.

“아이르리스 부인. 당신이 보았을 때, 그 사람… 많이… 아주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아이르리스는 제게 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어느새 두 손이 잘게 떨고 있는 헤르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르리스는 차마 떨어지지 않던 입술을 열어 어쩌면 헤르세인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또는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를 그의 목소리를 따라 불렀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얼추 입모양이 이랬던 것 같았습니다. 헤세… 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흐릿해진 시야가 눈앞을 아른거렸지만 헤르세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을 더 굳세게 그가 만들어주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자신의 이름. 그래서 더욱 헤르세인은 가족의 복수가 절실했다.

아이르리스, 그리고 작은 가주인 길버트까지 자리에 앉아 헤르세인은 후작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있었다.

“이번 일로 귀족들은 전하의 능력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쪽에선 더더욱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겠지요.”

중립파에서 헤르세인의 편으로 돌아선 그레이스 후작의 말투는 날카로우면서도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중립파 때만해도 그는 늘 어디에서든 경어와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빼놓지 않았으나 누군가의 지지자기 됐기 때문일까. 왕후폐하라고 늘 경어를 붙이던 그레이스 후작은 더 이상, 카타리아 왕후를 향한 경어를 붙이기 않게 되었다. 물론, 귀족들과 있을 때면 경어는 자연스럽게 나왔으나 사석. 특히나 헤르세인과 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헤르세인은 제 손에 들린 한 장의 양피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왕실의 붉은 인장이 찍힌 것은 물론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려진 왕실 일원으로서의 임무. 더욱이 이 안건을 주도한 이가 다느피안 남작이란 것이 놀라웠다. 어머니가 붙여준 자신의 스승이자, 유일하게 편견 없는 눈으로 저를 봐주던 다느피안 남작. 그가 자신의 지지라 할 수는 없으나 덕분에 능력을 보일 첫 임무가 떨어진 헤르세인에게 있어선 더 없이 좋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레이스 후작의 생각은 조금 다른지 살짝 그림자가 드린 얼굴로 헤르세인에게 현재 단알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

“능력을 시험할 임무가 떨어진 건 괜찮지만 문제는 단알 지역을 관리하는 영주의 문제입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몬테올 왕국의 갑작스러운 전쟁선포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단알 지역이란 것은 아실 것입니다.”

“예, 전쟁은 끝났지만 그 피해로 피난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도 상당하다 들었습니다. 더불어 치안까지 좋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후작은 테이블 위로 펼쳐진 단알 지역을 가리켰지만 표정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알 지역을 관리하는 영주가 전쟁에 휩쓸려 어이없게 죽은 것도 있지만, 죽기 직전의 영주에겐 아직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었지요. 슬하에 딸 하나와 두 명의 아들이 있으나 그 두 아들은 특히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장남은 정부인 모친을 두고 있으며 차남과 막내딸은 정실인 모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예,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는 장남이지만 정부인 모친을 두고 있는 관계로 죽은 영주의 뒤를 이을 명분이 없으나 반대로 정실인 모친을 둔 차남은 영주의 총애를 받지 못했으나 영주의 뒤를 이을 명분이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단알 지역은 두 아들의 후계문제로 또 다른 전쟁 중이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단알 지역의 피해 복구 문제를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한 실권을 쥔 후계자가 나타난다면 일은 빨리 진행되겠지만 본디 후계자 싸움은 또 다른 골칫덩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무언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후작의 눈과 마주친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얘기를 듣고 어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언뜻 다르면서도 닮은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던가. 차기 왕좌를 두고 싸우려는 자신과 윌리스 왕태자를.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이곳에 계속 지체할 시간도 부족했다. 양피지를 말아 대충 손에 잡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난 헤르세인은 후작에게 단알 지역으로 향할 것을 알렸다.

“오늘 새벽 중에라도 당장 가겠습니다. 가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일을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곳은 거의 포화상태라 만에 하나 준비 없이 그곳에 가신다면 카타리아 왕후, 또는 윌리스 왕태자가 전하께 암살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뿐입니다. 지금 당장 단알에 달려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모자를 판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좌에 앉기 위해선 반드시.”

망설임 따윈 없는 헤르세인의 견고한 표정과 눈빛에 아이르리스는 감탄과 동시에 작게 한숨을 쉬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한숨이 어리석음이 아닌 헤르세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한숨임을 알아 챈 아이르리스는 빙긋 웃으며 헤르세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요. 서둘러 전하를 최대한 보필할 수 있도록 집사와 하녀들에게 준비하도록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곁엔 아버지 역시 계셔야 하니 아버지의 옷도 서둘러 챙겨드릴게요. 아, 그리고 길버트도 데려가세요, 아버지.”

그레이스 후작은 물론 길버트 역시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아이르리스를 쳐다보자 아이르리스의 대답은 명쾌했다.

“이 사람도 세상을 널리 보고 슬슬 아버지의 일을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제 가문과 제 옆 만지키는 칼잡이 노릇을 시킬 생각은 아니시지요?”

“부… 아니, 아이르리스.”

“그러니 그레이스 가문과 제 걱정은 마시고, 길버트. 아버지랑 왕녀전하를 잘 부탁드려요. 당신이 나를 지키듯이.”

깨소금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단단한 아이르리스와 길버트의 모습에 후작은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옅은 미소가 나온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조금씩 아리게 만들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몬테올 왕국의 습격과 전쟁이후로 모든 것이 파괴된 단알의 백성들은 매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 불에 타버려 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비옥했던 땅은 물론이요, 탐스러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던 과수원 역시 검은 잿더미로 잎사귀조차 맺지 않은지 오래였다. 모든 것이 타버린 땅. 그리고 피로 얼룩진 땅.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땅이라 여기며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백성들도 있었으나 가난하고 이주할 여력이 없는 백성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며 그래도 이 땅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물색하게도 단알의 영토를 관리하는 영주는 이미 전쟁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 오래. 전쟁에 휩쓸릴 것도 없었다. 무작정 단알의 영토를 밟은 적국 몬테올 왕국의 무력으로 영주는 협상조차 없이 목숨이 끊어졌으며 힘없는 영주의 자식들로 하여금 단알의 땅에 적국의 깃발과 천막을 치며 그야말로 전쟁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이없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전쟁. 몬테올 왕국도 사브레 왕국도 피해를 입은 것은 막심하나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브레 왕국이며, 적국의 땅과 제일 가깝던 단알의 땅이 처참한 상흔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또 다른 피의 전쟁. 현재 단알에 살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선 그 전쟁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정부와 정실의 전쟁. 또는 형제의 전쟁이라고. 단알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정부에서 태어난 장남과 정실에서 태어난 차남과 장녀에 관한 이야기를 모를 수 없었다.

프레이 백작 가문. 아주 오랜 옛날 코스틴 왕국이 패국이 될 무렵. 직계 왕족이 아닌 방계 쪽의 왕가의 혈통이 이어진 가문이 일찍이 사브레 왕국의 깃발아래 무릎을 꿇고 살아남고자 단알의 땅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로 굳건히 땅을 지켰다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가문.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프레이 가문은 확실히 코스틴 왕국이 패국이 되어 ‘단알’이란 이름으로 바뀐 후로, 프레이 가문이 단알의 땅을 지키고 있던 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과거 굳건히 적국의 땅을 지켜보고 경계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프레이 가문은 옛 명성만큼이나 그 이름이 빛을 잃은 지는 오래였다. 늘 백작가로 매춘부들을 끼고 돌며 한 시도 품에서 여인을 빼놓을 수 없었다던 프레이 백작. 그리고 프레이 백작은 그 매춘부들 중에 유독 한 여인만을 아꼈다 했다. 그녀의 이름은 넬리아. 운 좋게 백작의 눈에 띄어 단숨에 백작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된 프레이 백작의 정부, 또는 첩. 프레이 백작은 넬리아를 무척이나 아꼈고, 넬리아는 백작이 저를 사랑할수록 제게 들어오는 드레스와 장신구, 보석이 많을수록 탐욕이 커져갔다. 하지만 넬리아는 제 손에 들어오는 게 많을수록 백작의 완전한 옆자리를 앉는 것이 좋았지만 그 옆자리는 주인이 있는 자리였다.

프레이 백작부인.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 본트 프레이. 그리고 두 번째로 백작이 맞이한 나이어린 백작부인이기도 했다. 프레이 백작에게는 본디 전 부인이 있었으나 후사 없이 지병을 앓아 일찍이 눈을 감았고 프레이 백작의 그때 당시는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 몸밖에 없는 정부인 넬리아를 지독히 아꼈으나 프레이 백작은 그럼에도 혈통이 단단한 정실의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었다. 결국 넬리아의 지독한 질투와 만류에도 프레이 백작은 중매결혼으로 거의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는 10살 차이가 훌쩍 넘는 어느 지방출신의 남작가의 딸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했으며, 원하는 대로 백작은 어린 부인을 통하여 두 명의 자식을 더 가질 수 있었다.

정부인 넬리아를 통해서 낳은 장남인 클라우드. 백작부인을 통하여 낳은 두 명의 자식이자 차남인 구스타프와 막내딸인 엘리카. 본래라면 서자나 다름없는 클라우드지만 프레이 백작은 넬리아의 구구절절한 사정의 또 사정에 그녀를 딱하게 여겨 프레이 가문의 일원으로 클라우드의 이름을 새겼고, 졸지에 프레이가의 장남이었으나 클라우드의 존재로 차남이 되어버린 구스타프는 그 누구보다 가장 프레이 백작과 넬리아, 그리고 두 사람의 사통으로 태어난 클라우드의 존재를 증오했다.

프레이 가문의 일원이 되자 가문이 제 것인 것 마냥 승승장구하며 저택을 휘젓는 클라우드.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를 마주칠 때마다 천한 매춘부의 핏줄이자 사생아라고 단단히 모욕을 주는 구스타프. 서자이긴 하나 먼저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장남의 위치를 차지한 클라우드를 두고 볼 수 없던 구스타프는 결국 가장 꼴 보기 싫었던 백작의 정부인 넬리아를 독살했으며, 넬리아의 죽음을 목격한 클라우드는 분노로 눈이 뒤집혀 구스타프를 죽이고자 백작의 권력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의 전쟁으로 가문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으며 백작의 총애를 등에 없던 클라우드는 순식간에 아버지인 프레이 백작의 죽음을 두 눈으로 봐야만 했다.

그때 당시, 아직까지 후계자 자리를 미적지근하게 진행하던 프레이 백작으로 인해 프레이 가문의 실권을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클라우드와 구스타프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살길이란 것을 서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전쟁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배가 다른 두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칠 세 없이 또 다른 그들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프레이 가문의 가주 자리를 앉기 위한 피 튀기는 쟁탈전. 하지만 구스타프가 먼저 프레이 가문을 차지하기 전에 클라우드가 먼저 병사를 움직여 프레이 가문을 장악한 것은 물론, 제 어머니를 죽인 구스타프를 향한 복수인지, 엘리카를 낳고서 불치병에 시달리던 백작부인을 클라우드가 목을 베어 프레이 가문의 대문 앞에 그녀의 시신을 걸고서 구스타프를 위협했다.

서로의 분노와 증오가 뒤 엉켜버린 형제의 싸움.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형제의 싸움은 그치지 않고 누가 먼저 지쳐 나가떨어지는 내기를 할 만큼 질척거리는 싸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형제의 싸움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고통 받는 것은 단알의 백성들. 결국 배고픔과 집, 가족을 잃은 백성들의 분노가 형제 싸움에 끼어들어 클라우드와 구스타프의 싸움은 그들의 폭동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왕실도, 그리고 귀족도, 수도에 있는 백성들조차 모를 단알의 사정. 단알의 폭동을 자제하고 이 사실을 왕실까지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두 형제는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법. 단알의 사정은 조금씩 계속 왕실로 흘러들어왔고 결국 헤르세인과 그레이스 후작은 단알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프레이 가의 차남인 구스타프라 합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각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인사를 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에 반갑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싸움에 애꿎은 단알의 백성들이 굶어죽기 일보직전이니 말이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헤르세인은 늦은 새벽의 마차를 타고서 그레이스 후작과 소가주인 길버트, 그리고 그레이스 가의 사병과 함께 하루 반에 걸쳐 단알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수도와 달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황폐해지는 땅과 아직까지 숲 곳곳에 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자국들까지. 그리고 단알의 땅을 밟는 순간, 양피지에 적힌 상황보다 직접 눈으로 본 단알의 땅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마치, 과거 자신이 살던 슬럼가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광경이 헤르세인의 두 눈에 비쳤다. 집을 잃어 임시 천막을 짓고 사는 백성들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비쩍 마른 아이까지. 헤르세인은 구스타프가 지내고 있는 진형으로 오기 전, 마차에서 내려 진형 입구로 들어서기 전 제 눈앞에 쓰러진 한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

“배… 고파… 요... 살려… 주세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마치 과거의 어린 제 모습을 본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언제 뱃속에 손가락 한 마디조차 되지 않는 잡초를 주워 먹었는지 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긴 굶주린 생활. 다른 또래의 아이였다면 진즉에 굶어죽어 이상하지 않을 때이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버텼다. 악으로 어떡해서든 살아남겠다는 일념하나로. 그 모습이 제 모습과 겹쳐 보여 헤르세인은 곁에 있던 그레이스 후작을 향해 상황의 시급을 알렸다.

“그레이스 후작, 저희가 가져온 식량으로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 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의 말씀처럼 이쪽 부근의 급한 불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헤르세인은 후작과 함께 그레이스 가에서 가져온 빵을 나눠주며 당장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구스타프의 진형에 들어설수록, 막사에 들어설수록 형제의 싸움이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 치열한지 엉망이 된 기사들의 모습은 한 두 명이 아니었다. 구스타프와 겉치레뿐인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잠시 자리를 비켜 막사를 쭉 훑던 헤르세인의 눈에 시선을 끄는 이가 있었다.

“상처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붕대는 새 것으로 갈아야 되겠네요.”

부상을 입은 프레이 가문의 사병들. 그리고 구스타프의 사병들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을 돌보는 한 여인. 그녀는 다른 부상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지나가던 지원간호사를 붙잡아 새로운 붕대를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새로운 붕대를 가지고서 다른 간호사들처럼 부상자의 붕대를 갈아주기 바빴다. 망설임 없는 그녀의 피 묻은 손짓과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완벽히 끝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일이 그녀에겐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는지 그녀의 드레스 자락과 하얀 앞치마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어느덧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레이스 후작과 구스타프의 이야기가 끝났는지 헤르세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한 것을 알아 챈, 구스타프가 서둘러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카!”

구스타프의 부름을 받고서 아직 붕대를 갈아주던 여인은 근처에 있던 간호사에게 부탁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헤르세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부르셨어요? 오라버니.”

“인사드려라. 이분들은 왕실에서 오신 헤르세인 왕녀전하,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각하와 소가주인 길버트님이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프레이 가문의 엘리카 라 합니다.”

프레이 백작부인의 두 남매. 어찌 보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엘리카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필요 없다는 듯이 대충 손짓하며 빠지라는 구스타프의 손짓에 엘리카는 다시 간호사들과 부상병들이 있는 막사로 향하자, 구스타프가 서둘러 겉포장이나 다름없는 구구절절한 설명을 시작했다.

“하나 뿐인 제 여동생입니다. 본래라면 프레이가의 아가씨가 해선 안 될 일이지만, 워낙 심성이 곱다보니 간호사들의 손이 부족하다하여 손수 나서서 부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말렸음에도 다른 쪽으로 고집이 센 아이라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간호사들을 도와 피에 절은 붕대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독 헤르세인의 시선을 이끌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탁한 주황빛의 머리색과 헤이즐넛 빛의 눈동자. 이 상황이 피곤하기만 한 오라비인 구스타프와 달리, 그의 누이인 엘리카는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빛나 보일 만큼 부상자 한명, 한명 신중히 돌보고 있었다. 덕분에 대충 이곳의 상황 파악이 끝난 헤르세인은 후작의 근처에 있던 길버트의 곁으로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물자조달이나 형제의 싸움일은 잠시 후작께 맡기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지 눈치를 챈 것일까? 절제가 있으면서도 온후한 성격인 후작과 달리, 그는 마치 태생이 기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듯 말투는 딱딱했으나 정중히 헤르세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할지 한 수를 내다보듯. 마차에 앉아 이동하는 동안 헤르세인은 마차에 함께 착석한 후작이 말하는 길버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말 수가 적고 제 딸아이밖에 모르는 녀석이나 소가주로서의 소양을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 서서히 제 자리를 물려줄 때가 왔나 싶기도 합니다."

"소가주는 제가 듣기로 평민 기사라 했습니다. 후작께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혼인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저도 큰 가문을 이끄는 가주로서 딸아이가 평민과 혼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저는 물론, 딸의 속도 많이 상했었지요."

"하지만 후작께선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하고 혼인을 허락하셨지요."

"예,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문이 클수록 그 작위가 높은 자일수록 특히나 딸을 가진 아비일수록 혼인문제만큼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 귀족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자, 일종의 혼인 동맹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버리고 그저 자식의 아비로서 딸을 행복을 생각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법이지요."

후작이 했을 고뇌는 헤르세인에겐 중요치 않았다.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 오히려 헤르세인에겐 눈이 커질 놀라울 일이었다. 헤르세인은 이 왕성에 사는 나날이 길어질수록 왕족을 알고, 그 역사를 알고 특히나 귀족을 알수록 일반 사람의 평범과 다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언제 굶어죽을지 모를 배고픔을 걱정하며 매 끼니를 걱정하는 일반 백성. 반대로 태어나자마자 귀족이란 운명이 정해졌으나 굶어죽을 배고픔을 없을지언정 귀족이란 정해진 순리대로 살아가야하며 혼인조차 가문의 힘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후작의 결정은 그 손해를 알면서도 제 자식을 완전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후회하시나요?"

담백한 그녀의 물음에 후작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일생의 선택 중, 가장 뜻깊은 것처럼.

"후회라니요. 아이르리스의 미래이고 딸이 선택한 반려인데 제가 후회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저 딸의 선택을 존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일까. 그것이 부러우면서도 제 자리에 앉은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길버트의 모습이, 헤르세인은 그녀가 왜 그를 반려로 함께하길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후작께서 당분간 그 일을 맡으실 동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위스턴 국왕에게 떨어진 감금명령이 아직 유효하긴 했으나 그가 더욱 정신을 놓고 미쳐버린 이후로 카타리아 왕후에겐 더 이상 유효한 명령 따위가 아니었다. 제 멋대로 본성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 윌리스 왕태자에게 왕좌를 물려줄 준비를 위해 왕당파의 세력과 귀족파의 세력을 작심하고 끌어 모으는 중인 그녀는 다빈느 후작에게서 한 가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정말로 헤르세인 고 계집이 단알로 갔단 이 말인가?”

“예, 왕후폐하. 어제 새벽 중으로 떠났으니 지금쯤이면 단알의 땅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후작의 생각은 어떻소? 그 간악한 계집을 죽이기엔 지금이 적격이라 생각되는데.”

붉게 칠해진 손톱을 물어뜯으며 당장 암살이라도 보낼 계획마냥 눈을 빛내는 그녀의 목소리에 후작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적격이긴 하나, 당장 암살을 보낸다면 모든 귀족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 화살이 저희 쪽으로 돌아오겠지요. 능력을 시험하러 단알로 내려간 왕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누구라도 저희의 암살로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가 모른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상대를 헤르세인 왕녀라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상대라니? 그깟 계집이 감히 윌리스의 상대나 된단 말인가? 어쭙잖은 소리를!”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려치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다빈느 후작은 작게 헛기침을 할뿐, 괜히 왕후의 신경을 더 긁지 않고자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붉은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어내던 왕후는 무언가 생각났는지 다급히 후작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단알 영주가 죽고 프레이 가문의 형제가 싸우고 있다 했나?”

“예,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예로부터 프레이 가문은 대대로 왕당파를 지지하는 가문입니다. 물론, 예전만큼의 재력이나 현재는 소위 국경을 지키는 방패막이 가문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두 형제를 잘만 구슬린다면 일이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헤르세인 그 계집을 단알에서 끝내야해. 두 번 다시 왕실에 발을 들이게 해선 안 된다는 말이네.”

카타리아 왕후의 눈빛은 음산히 빛을 내며 칼을 갈았다. 어떡해서든 제 아들에게 온전히 왕좌를 물려주기 위한 의지. 제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왕후는 이번일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세부적인 일은 그레이스 후작과 소가주인 길버트에게 당분간 맡기기로 부탁한 후, 헤르세인은 엘리카를 도와 부상자를 보살피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 직접 돋겠다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구스타프는 물론 엘리카 역시 말렸지만 이곳을 두 눈으로 본 이상, 헤르세인은 그저 막사에 앉아 차나 마시며 상항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물론 선의로 시작된 일이라 할 수는 없었다. 세부적인 일은 그레이스 후작에게 맡겼으나 결국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몫. 헤르세인은 슬럼가에서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변 관찰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됐는데, 혹시 전하께선 붕대를 감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능숙하게 부상자의 붕대를 감는 헤르세인의 모습이 의외였는지 엘리카가 눈을 크게 뜨며 묻자, 헤르세인은 덤덤히 붕대를 갈아주며 대답했다.

“왕녀가 되기 전, 슬럼가에서 살았을 때 내 몸이나 타인의 몸에 붕대를 감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아니, 붕대를 살 돈조차 없어서 대부분 상처부위에 감는 건 풀떼기나 넝마조각이었지만 말이지요.”

“아… 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로 전하께 실례를...”

“괜찮아요. 귀족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붕대의 마지막 끝부분을 매듭짓고서 피에 절은 붕대를 한 대 모은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부상자의 곁으로 다가가 다시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몸을 두른 하얀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붕대를 꺼내 새로운 붕대로 갈아주고자 헤르세인이 움직이자 바로 곁에 있던 엘리카가 도와주기 위함인지 부상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한결 수월하게 갈 수 있겠끔 헤르세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빨리 형제 싸움이 끝났으면 싶지 않나요?”

“…예?”

붕대를 갈아주며 묻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엘리카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반대로 헤르세인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심 끝에 내린 질문이기도 했다. 원래라면 앞뒤할 것 없이 집안 내부사정을 캐물으며 형제 싸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상대는 처음만난 인물이고, 서로 다른 계급 상 직접적인 그런 언급을 한다면 분명, 엘리카는 뻔한 대답을 할 것이 자명했다. 그래서 생각의 생각 끝에 내린 질문이 이런 질문. 헤르세인은 자신이 질문하기에도 퍽이나 난해한 질문 같아 살짝 미간을 좁혔지만 엘리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씁쓸히 대답했다.

“저 역시 오라버니가 이 싸움을 빨리 끝냈으면 해요. 어찌되었든 오라버니의 사병도, 클라우드 오라버니의 사병들도 결국 프레이 가문의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기 위해 형제가 싸운다는 게 참…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붕대를 갈아주던 손짓을 멈춰 헤르세인은 엘리카를 흘끗 쳐다보았다. 왜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짓는지 헤르세인은 짐작되지만 일부로 그 사실을 말하진 않았다. 사실을 말해도 결국 그들만의 피를 튀기는 싸움이었으니까.

“서로의 어머니가 다르고 한 배에서 태어난 다름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의 자리가 탐이 날만큼 서로 이렇게 잔인하게 칼을 들며 싸워야하는지가 의문일 뿐이죠. 그깟 자리가 대체 뭐라고...”

언뜻 자조적인 말투를 내뱉은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틀린 말은 없었다. 누군가의 대를 잇는 자리란 것은 서로가 양보만 한다면 피를 튀기며 싸울 일 조차 없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하지만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본질적인 건 권력이란 힘을 손에 넣기 위한 자리쟁탈전. 그 자리를 앉기 위한 사람의 마음은 다양했다. 복수를 위해 앉는다거나, 또는 힘을 손에 넣기 위해.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 끝이 없는 탐욕으로 인해. 그 다양한 이유 중 헤르세인에게도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 복수를 위해.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적이 있었다. 탐욕보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복수란 길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다른 것은 일단 힘을 손에 넣으면 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을 저지르는 거지만, 복수만큼은 달랐다. 잃어버릴 것이 없기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며 그 힘을 손에 넣는 동시에 복수의 시작이자 파멸의 끝이니까. 그런 길을 헤르세인은 선택했다. 후회? 이미 후회 따위 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얼마나 건넜던가. 오직 나아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다. 선택조차 오직 하나 뿐이었다. 왕좌에 앉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살길이고 그것만이 덧없는 자신의 운명임을.

그래서일까? 헤르세인은 문득 궁금했다. 그녀는 그런 욕심이 없는지. 똑같이 어머니를 잃은 그녀 역시 증오를 품으며 복수할 힘을 얻기 위한 생각은 없는지.

“저, 프레이 공녀.”

“예, 전하. 편히 엘리카라 불러주세요.”

“그럼, 엘리카… 당신은 당신의 오라비처럼 복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어쩐지 그녀는 조금 망설인 끝에 대답을 했지만, 그 몇 초간의 침묵 사이 헤르세인은 놓치지 않았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프레이 백작부인이 장남의 손에 무참히 목이 잘려 죽었다고. 그런데도 복수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님, 백작부인이 당신만을 차별했었나요?”

헤르세인은 다시 붕대를 움직여 하얀 천을 감고 또 감았다. 그때, 더 이상의 이야기가 어려웠는지 엘리카는 조심스럽게 부상자를 눕히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일을 깜박한 게 있어서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하, 저 먼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어보였지만 헤르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엘리카는 누군가 혹시라도 잡기 전에 부상자들의 막사를 빠르게 나가버렸다. 사람에겐 차마 꺼내지 못할 상처나 비밀은 있었다. 자신 역시 슬럼가에서 살았던 모든 과거를 그 누구에게도 얘기를 잘 안하듯이. 어쩌면 그 이야기는 엘리카, 그녀에겐 상처를 건드는 얘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누군가의 상처를 듣고 따뜻이 보듬어 주는 성격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 지금 그녀에겐 이 일도 결국 복수로 나아가는 또 다른 관문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프레이 가의 장남을 만나봐야겠어.’

헤르세인은 마지막 붕대를 갈아주고서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부상자의 흐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괜한 형제 싸움에 휘둘려 졸지에 프레이 가문의 사병끼리 애꿎은 피를 보게 된 그들의 싸움. 헤르세인은 부상자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도 그렇다고 한가득 위로를 담아낸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조용히 비킨 것이 전부.

‘나도 윌리스 왕태자와 싸우게 된다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겠지.’

두려움은 없었다. 단지 저 때문에 혹시나 이 일에 휘말릴 빈센트가 걱정될 뿐. 빈센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유일한 혈육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마저 죽는다면… 헤르세인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왕녀전하.”

“그레이스 후작.”

구스타프와 이야기가 끝났는지 천막 밖에서 저를 부르는 후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헤르세인은 천막을 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후작을 향해 입을 뗐다.

“차남과의 얘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장남 쪽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구스타프 그자는 장남 쪽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들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이지요. 전하께서는 어떠십니까?”

엘리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해 하는 후작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아쉽게도 고개를 저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헤르세인은 피붙이 오라비 얘기를 꺼내는 동시에 아주 잠깐 망설이던 엘리카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찜찜한 느낌은 있었지만 단순한 느낌만으론 확신하며 얘기할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그 부분은 따로 생략하고서 양팔에 차고 있던 토시를 걷어냈다.

“지금 바로 프레이 가문에 가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지요.”

프레이 가문과 떨어진 평지에서 막사를 치고 전쟁의 진형으로 만든 프레이 가문의 차남과 반대로 본가를 점령하여 누가먼저 움직일지 어쩌면 간을 보고 있을지 모를 장남. 무언가 뒤바뀐 느낌이 들었으나 헤르세인은 당장이 급했다. 그들의 질척거리는 싸움 끝에 언제 이길지, 또 언제 영주 자리를 차지할지 모를 그 시간을 방관자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전하 마차의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시지요.”

길버트의 준비된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서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갔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프레이 가의 장남인 클라우드 라 합니다. 이렇게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성에 비해 누추한 곳이지만 최선을 다해 전하께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진형을 떠나 바로 헤르세인은 프레이 가문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미리 전서를 받았는지 대치 상황임에도 대문 바깥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형제 싸움의 또 다른 주인공 클라우드를 볼 수 있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이렇게 환대를 해주어 감사 인사를 드리지요.”

“아닙니다. 감사라니요. 오히려 제 동생 녀석의 진형에 먼저 들렸다는 소식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쪽에 먼저 오셨다면 그쪽에서 겪었을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요.”

헤르세인의 행동을 비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쉬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나 그의 표정은 확연히 구스타프와 다른 인상이라 할 수 있었다. 말투 속에 클라우드를 향한 비난을 감추며 은근한 욕을 하는 동생과 똑같은 말투에서 제 동생을 은근 깎아내리는 두 형제의 모습. 두 사람의 인상은 확연히 달랐지만 프레이의 피는 속일 수 없는지 눈 속에 비치는 간사함과 욕심은 비슷해보였다. 헤르세인은 무표정으로 대충 그의 인사를 받아냈다.

“하루의 반을 달려오느라 저희의 사병들이 지쳐있습니다. 괜찮다면 저희 쪽의 사병들에게 먹을 것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전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레이스 후작각하와 길버트 소가주님은 물론, 왕녀전하의 침실까지 완벽히 준비해두었으니 편히 쉬시면 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저희를 위해 숙식을 제공해주어 또 한 번 감사를 드리지요.”

“그럼 저녁 식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왕녀전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일은 하녀들과 집사에게 일임하고 클라우드가 자리를 떠나자 헤르세인은 길버트와 그레이스 후작과 함께 집사의 안내를 따라 3층의 객실로 향했다. 그리고 각자 저녁 식사 때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제일 큰 객실이자 침실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휴식을 취하기 전,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녀에게 전달했다.

“따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를 테니 나가있도록. 잠이 조금 부족해 잠시 혼자 있고 싶다.”

“예, 그럼 부르실 일이 있으시면 종을 쳐 주십시오, 왕녀전하.”

두 명의 하녀가 나가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헤르세인은 그제야 깊게 숨을 고르며 피곤해진 두 눈을 마사지 하듯 검지와 엄지로 만져주었다. 하루 반이란 시간을 마차에 앉아 달리며 도착한 단알의 땅. 하지만 쉴 틈도 없이 프레이 가문의 두 형제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구스타프의 진형에 찾아가 전황을 알아보는 것이 헤르세인에겐 시급한 일이었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으로 피해를 입은 단알의 땅은 황폐했으며 좌우를 살펴보아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단알의 백성들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현재 그들의 사정을 외면하면서까지 영주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가문내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형제의 싸움. 지금 그들의 싸움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으나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빨리 영주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 굶어죽는 백성들 또한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었다.

현재 헤르세인에겐 이곳의 처리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영주를 빨리 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영주와 함께 단알의 땅을 안정화 시키는 것. 아니, 땅을 안정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선 장남이라 하는 클라우드도 차남인 구스타프도 그 누구도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다. 정말로 둘 중 누구라도 죽지 않는다면 끝내지 않을 싸움처럼 두 사람은 휴전이라는 이름하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

당장 이 일이 급한 건 사실이나 헤르세인은 당장이 피곤했다. 잠이 많이 없는 것도 있지만 먼 거리를 처음으로 뜬 눈으로 세우며 달려온 탓인지 급격한 피로가 헤르세인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라즐리가 함께 왔으면 분명…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라즐리는 그레이스 후작가에 남아 있었다. 라즐리는 단호히 따라 나선다 했으나 그것을 말린 건 자신. 혹시나 모를 싸움에 헤르세인은 라즐리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것 없이 오로지 일적으로만 신경 쓸 일이 주가 된 현재에 당장 처리할 것은 없었다. 물론, 밖에 호위 기사를 세워뒀음에도 영주가 정해지지 않은 완전한 타인의 저택이기에 경계는 해야 했지만 헤르세인은 이미 이런 상황은 익숙했다. 다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을 덜어내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기엔 무리인 상황이기도 했다.

“30분만 눈을 붙여야겠어….”

푹신한 침대에 눕는 것보다 차라리 불편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길 낫다 생각한 헤르세인은 책상에 엎드려 서서히 눈을 붙이며 아주 잠깐의 달콤한 꿈으로 빠져 들어갔다.

똑똑똑, 하고 정확히 세 번을 두드린 노크소리에 눈을 감고 있던 헤르세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시계를 보니 초침은 정확히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칼 같은 시간과 완전한 꿈에 빠지기도 전에 일어난 눈뜬 현실. 헤르세인은 옅은 숨을 내쉬며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하녀들을 불러들였다.

“들어오도록.”

기름칠이 잘 된 문을 열며 익숙한 두 명의 하녀가 들어왔다. 그리고 곧 저녁식사가 시작된다는 말과 함께 식사 때 입을 드레스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자, 헤르세인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본래라면 갈아입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특히나 귀족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이상, 그들의 호의를 예법 상,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하녀들의 손길을 받으며 드레스를 갈아입은 헤르세인은 거울에 선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상황에 맞게 화려한 것보단 적당히 무겁고 적당히 수수한 드레스를 골랐는지 헤르세인은 자신의 피부를 완전히 가린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빗질을 다시하고 드레스를 갖춰 입고서 하녀들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간 헤르세인은 이미 자신처럼 준비를 맞추고 편한 예복으로 갖춰 입은 그레이스 후작과 길버트를 볼 수 있었다.

“오셨습니까, 왕녀전하.”

시선을 돌리니, 클라우드 또한 나름 신경 쓴 듯 예복을 갖춰 입고서 상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는 그의 손짓에 헤르세인은 조용히 긴 식탁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본래라면 집사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의자를 끌어 그녀가 앉길 기다리는 클라우드의 인위적인 모습에 헤르세인은 꺼려졌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녀. 헤르세인은 자리에 앉아 클라우드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요.”

“별말씀을.”

오늘 처음 봤을 뿐인데도 이토록 친근하게 구는 클라우드의 행동이 헤르세인은 영 미덥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어쩌면 프레이 가문의 영주가 될지도 모를 인물. 헤르세인은 물 한잔으로 메마른 입을 적신 후, 애피타이저로 나온 수프를 한 입 맛보는 것으로 식사는 시작되었다.

고기를 써는 나이프 질의 소리와 식기와 포크가 살짝 살짝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자주색의 액체가 와인 잔에 포도 향을 풍기며 잔을 채우는 소리까지. 저녁식사 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조용했다. 처음으로 타지에서 먹어보는 식사이기도 했지만 한껏 기름진 음식을 먹을수록 낮에 보았던 배를 굶는 그들이 떠올라 헤르세인은 영 식욕이 돋지 않았다. 기름진 고기를 두 세입 정도 썰어 먹다가 결국 입맛이 안돌아 헤르세인은 결국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전하, 혹시 요리가 입맛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요리는 훌륭합니다. 제가 원래 입이 짧은 탓이니 괘념치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디저트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손뼉을 치자 식당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작게 귓속말로 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주문하자 집사는 사라지고 집사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기 위함인지, 한참 동안 조용하던 식당의 분위기가 클라우드의 목소리로 꽉 채워갔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이렇게 직접 단알까지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전에 더 빨리 알았더라면 완벽히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로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오히려 저 하나 때문에 프레이 가문에서 손이 바쁠 필요는 없지요.”

“역시, 마음이 하해와도 같으십니다.”

입에 발린 칭찬은 듣지 않아도 그의 눈빛은 거짓으로 번들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굳이 지적하지 않고 묵묵히 상대하다가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손에 들고 있던 물 잔을 내려놓았다.

“그보다 그대의 동생이 있는 진형에 들리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을 잠깐이나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가문의 사람끼리 칼을 겨누고 싸우는 건 무척 힘이 드는 일이지요. 거기다 같은 가문의 사병이면서 서로간의 피해가 막심하니….”

“그러셨습니까? 그 점은 전하께 못 볼꼴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후계문제를 정리하고 한시가 급한 단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동생 녀석이 원체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싸우려드는 바람에… 저도 상황이 무척 곤란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로 해결해보려는 했으나 동생이 워낙 완고히 거절하는 바람에….”

“그토록 동생을 생각하시는 분이 프레이 백작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헤르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백작부인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꺼내놓자, 와인을 마시려던 클라우드의 손짓은 움찔하고 흔들렸다. 아주 잠깐 동안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으나 상대는 본심을 숨기는 가면을 잘 활용하는지 어색히, 그리고 그림자가 진 억울한 표정으로 그 일을 설명했다.

“사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가 죽인 것은 맞겠지요. 제가 백작부인을 죽도로 놔둬버렸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도록 놔두다니? 그레이스 후작에게서 들은 말과는 다르게 무언가 맞지 않은 퍼즐의 느낌에 헤르세인은 클라우드를 쳐다보았다. 진실일지, 혹은 거짓일지 모를 그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저는 백작부인을 애초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작부인께서 매춘부이자 정부에 불과한 제 어머니를 싫어하신 것도 있지만 제게는 그래도 또 다른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제 어머니의 고집에 저는 프레이 가문의 정식 일원이 되고 장남이 되었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백작부인께선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누가 정부의 자식을… 그것도 사생아를 가문의 일원으로 덥석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가문의 후계를 이을지 모를 장남으로 말이지요.”

가만히 듣고 있자면 그의 설명은 누구나 공감할 만큼 구구절절했다. 원치 않은 대우를 받으며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백작부인을 싫어하진 않으나 사생아이기 때문에 백작부인에게서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사생아들의 흔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헤르세인은 누구의 말도 믿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이 질척거리는 싸움을 종결 낼지에 대한 그 끝이 궁금할 뿐. 더불어 헤르세인에겐 무척이나 할 일이 많았었다.

“그런데 몬테올 왕국의 전쟁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 가문을 재정비 할 것도 없이 상황이 급박히 흘러갔습니다. 언제 가문의 사병들을 모았는지 동생은 가문 내의 전쟁을 일으켰고, 저는 제 나름 것 어떡해서든 가문을 지키고자 동생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싸움은 싫었지만 사람으로 태어난지라 또 이렇게 허무히 죽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내부 반란을 무사히 진입하고 동생은 막내 동생과 함께 자신을 지지하는 사병들을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갔지만 상황이 급했던 탓인지 백작부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결하면서도 백작부인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안 그래도 엘리카를 낳고서 불치병으로 점점 몸이 좋지 못하셨는데 이번 일로 충격을 드셔서 며칠 동안은 눈도 뜨지 못하셨습니다.”

“...”

“전쟁 때문에 전부터 백작부인을 보살피던 의사는 관둔지 오래였고, 안 그래도 좋지 못하신 몸 때문에 더 위중하시게 되어 의사를 알아보던 도중 이었습니다. 새벽에 저택 내에서 하녀가 지르는 소리에 서둘러 가보니… 백작부인께서는 이미...”

“그대가 죽인 게 아니라, 이미 백작부인께선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헤르세인은 살짝 미간을 좁히며 의심했다. 갑자기 백작부인이 죽다니? 구스타프에게도 엘리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상황의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는지 클라우드는 백작부인의 죽음에 그들의 싸움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언급되어 있음을 덧붙였다.

“백작부인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닌, ‘붉은 혁명단’이라 불리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전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는 동생의 독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어머니가 다를지언정 저는 제 나름 것 동생을 존중하긴 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분명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사생아이고, 동생은 프레이 가문의 직계 혈통인 이상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스타프는 도를 넘었고, 저는 도를 넘은 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분노하고 화가 났음에도 저는 차마 백작부인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는 자신을 변호하듯 설명했지만 헤르세인에겐 그 이야긴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입 밖으로 나온 전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귀를 붙잡은 한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작부인의 죽음이 붉은 혁명단 때문이란 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자신이 뱉어놓고도 눈치를 보며 말을 꺼리는 그의 행동에 결국, 후작이 나서 엄한 목소리로 빨리 상황을 설명할 것을 재촉했다.

“그간 단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전하께 고하게. 무엇이라도 숨기는 일이 있을시 나는 물론이고 왕실에서 가만 둘 거라 생각하나? 지금 단알이 처한 상황을 보게!”

후작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단알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고, 그 와중에 프레이 가문의 형제는 영주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가문내의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다. 거기다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결국 클라우드는 후작의 엄한 눈짓이 무섭기라도 했는지 와인으로 힘껏 입을 축이다가 겨우 숨을 돌려 붉은 혁명단의 이야기를 꺼냈다.

“언제부터 그들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름 없는 가문의 영지에서 곡식이 잔뜩 있는 곡식창고가 털렸다고 하거나, 또는 겨울을 나는데 쓸 식료품 창고가 털렸다는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나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알의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고, 저도 제 동생도 자리싸움으로 그 일에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가만히 경청하고 있던 후작은 어이가 없었는지 기가 찬 목소리로 그를 노려봤지만 클라우드는 그럼에도 꿋꿋이 제 할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프레이 가문의 창고가 서서히 비기 시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해 적국에서 이곳을 점령하는 동안 그들이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시 몬테올 왕국이 이곳을 점령하던 때의 상황을 알아보니 그들은 곡식창고는 거의 건들지 않았지만 식료품 창고나 무기 창고, 또 금괴창고를 건드렸다하더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곡식창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기 창고의 무기들도 점점 부족해지고 식료품 창고는 향신료를 빼곤 더더욱 부족해지고… 그러다 백작부인이 죽었던 그 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혁명단이 저지른 일임을. 이것이 그들이 남긴 경고장입니다.”

클라우드는 품속에 두고 있던 종이를 꺼내, 그것을 펼쳐 후작과 헤르세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종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단알의 백성을 피 말리게 하는 프레이의 배부름을 우리가 훔치겠다. 또한 프레이의 헛된 칼날 부림으로 우리의 절망이 배가 되니 프레이를 단죄하고자 우리는 프레이의 가련한 목숨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은 돌아올 것이다. 프레이를 완전히 무너트리기 위해.

- 붉은 혁명단 - 』

핏물, 또는 정말로 붉은 잉크일지 모를 정체 모를 무언가로 글씨를 적어내린 경고장이었다. 하지만 후작은 경고장이 진짜임을 믿을 수 없는지 경고장을 도로 클라우드에게 밀어냈다.

“이 경고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찌 확인할 수 있겠나?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그런데도 자네 형제들은 영주 자리에 앉고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망정 애꿎은 피를 흘리며 싸움 따위를 하고 있나?”

“그건 저 역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장이 진짜임을 믿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닌, 또 다른 경고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장을 보여주고자 클라우드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종잇조각을 꺼내 바로 후작에게 건네주자, 그것을 받은 후작의 표정은 썩 좋지 못했다.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경고장을 보고자 하는 헤르세인의 물음에 후작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종이를 건네받은 헤르세인은 첫 번째보다 짧게 쓰여 있는 문구를 보며 미간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안개가 짙은 날, 프레이를 무너트리기 위해 우리들은 싸울 것이다. - 붉은 혁명단 - 』

“안개가 짙은 날...”

“곧… 내일이나 아님 그 다음 날 쯤, 안개가 낄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사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은 당장 오늘, 내일의 날씨를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신하는 클라우드의 대답에 헤르세인의 의아하자 클라우드는 단알의 오랜 날씨에 관한 설명을 했다.

“단알은 다른 지역과 달리 햇빛이 자주 드는 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국경지대와 가까울수록 비가 자주오고 울창한 상록수들이 많은 숲 지대들이 많아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안개를 이용해 저희도 모르는 사이 몬테올 왕국이 단단히 준비를 하여 침범했던 겁니다. 또 이곳에 오래 산 농사꾼 사람들은 흙냄새나 구름의 양을 보고도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씨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르세인은 한참 동안이나 종이에 적힌 경고문을 보다가 종이를 덮고서 이내 자리에 일어났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클라우드도 덩달아 일어나려 하자,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따라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상황을 알겠으니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이 문제는 일어나는 즉시 논의하도록 하고, 후작과 소가주는 시간되면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길버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세인이 식당을 완전히 떠나고, 곧 이어 후작과 길버트 역시 식사를 파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홀로 남은 클라우드는 작게 한숨을 쉬며 와인을 들이키려던 순간, 제 곁으로 다가오는 집사의 모습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지?”

“급히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심이….”

클라우드는 혀를 차며 와인에 입을 댈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사와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클라우드까지 완전히 떠나버린 프레이 가문의 식당. 그리고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 하녀들은 흔적을 치우고자 늘 그랬던 것처럼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십분 뒤에 헤르세인의 침실로 찾아온 후작과 길버트는 처음엔 왕녀의 침실에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간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했으나, 지금 상황으론 예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어차피 잠도 없거니와 당분간 그런 예를 차릴 것 없다는 헤르세인의 명령에 후작은 그래도 안 된 다고 했으나 단호한 헤르세인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두 분께서는 붉은 혁명단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자의 표정을 쭉 지켜봤지만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보였습니다.”

“그럼 왜, 차남 쪽은 이 일을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헤르세인의 날카로운 의문에 후작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도 의문인 표정이긴 하나 찬찬히 생각을 짚으며 입을 뗐다.

“둘 중 하나인 듯싶습니다. 일부로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말로 몰랐거나.”

“일부로 말 하지 않았다는 건…?”

“예, 형 쪽을 곤란한 상황으로 빠트리기 위해 알고서도 함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당장 동생 쪽은 서자인 형을 이곳에서 내치고 영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니 말이지요.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동생 쪽은 붉은 혁명단을 정말로 모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두 형제는 바로 가문 내의 사병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일단 가문의 저택을 차지하고자 했겠지요. 하지만 형 쪽이 한발 먼저 빨랐고, 동생 쪽은 하는 수 없이 프레이 가문과 근접한 지역에 진을 쳐 상황을 가늠하고 뒤를 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제 싸움만 생각하느라 저택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은 다분하지요.”

“정말로 그가 모르고 있을까요?”

붉은 혁명단에 관한 것을 구스타프 그자가 정말 모를 이유는 없었다. 결국엔 붉은 혁명단의 일도 프레이 가문의 문제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길버트는 후작과의 생각이 동일해 보였다.

“저 역시, 후작각하와의 생각이 같습니다. 잠깐이긴 했으나 제가 본 동생쪽은 지금 당장 영주의 자리를 차지할 생각밖에 보이지 않는 성급한 모습으로 보였으니까요.”

길버트의 말처럼 정말로 그는 붉은 혁명단에 관한 것을 모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일이 더 꼬이거나 혹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개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일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이곳 사람들의 식량 문제입니다. 당장 먹을거리도 없거니와 낮에 저희가 푼 사병들의 군량으론 턱없이 부족해요.”

“예, 전하. 그래서 가문에 빠른 파발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중, 제 딸이 확인을 하고 이쪽으로 군량을 더 보낼 겁니다. 당장은 저희가문내의 조달로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살필 수 없으나 기꺼해야 일주일도 못 갈 것입니다. 프레이 가문의 근본적인 영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희 쪽에서도 손쓸 방도가 없지요.”

“일주일이란 시간이 이토록 촉박할 줄은 몰랐네요. 시간이 빨리 갈수록 제가 더 조급해지는 것 같네요.”

헤르세인은 못내 피곤한 쓴 미소를 보이자 후작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은 했음에도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건 똑같은지도 몰랐다. 서서히 깊어지는 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그녀는 물론, 후작과 길버트 역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지새워야했다.

칠흑의 어둠으로 가려진 폐쇄된 공간. 하지만 촛불 하나를 유일한 등불로 하여금 클라우드와 구스타프는 각자의 공간에 앉아 제 손 안에 펼쳐진 하나의 쪽지를 보고 있었다. 단순한 문구가 가득하면서도 명령조가 다분한 글씨. 하지만 그 쪽지를 불태우기에는 두 형제를 유혹하기엔 충분한 글귀나 다름없었다.

『프레이 가의 장남인 클라우드 공자에게. 이 전서구를 받은 즉시 불태울 것은 물론, 나의 엄명을 받아 그대의 땅을 밟고 있는 헤르세인 왕녀를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을 것. 또한 철저히 독살이나, 암살로 위장하여 왕실이 관여한 일이 아님을 증명할 것. 이 일이 성공할 시, 나 윌리스 왕태자의 이름으로 그대를 진정한 프레이 가문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프레이 가의 차남인 구스타프 공자에게. 이 전서구를 받은 즉시 불태울 것은 물론, 나의 엄명을 받아 그대의 땅을 밟고 있는 헤르세인 왕녀를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을 것. 또한 철저히 독살이나, 암살로 위장하여 왕실이 관여한 일이 아님을 증명할 것. 이 일이 성공할 시, 나 윌리스 왕태자의 이름으로 그대를 진정한 프레이 가문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각자의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쪽지를 전서구를 통해 동시에 받은 클라우드와 구스타프의 표정은 이미 탐욕에 일렁이고 있었다. 또한 이 쪽지를 통해 벌써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한 클라우드와 달리, 막사에서 일관된 침묵으로 엘리카와 함께 있던 구스타프는 혀를 차며 종이를 있는 힘껏 주먹으로 구겼다.

“오라버니?”

“젠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됐어. 엘리카, 헤르세인 왕녀가 혹시 계속 프레이 가의 저택에 있겠다는 말을 네게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런 말씀은 일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라버니, 그건 왜...”

무언가 다급하듯 검지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참이나 툭툭 두드리던 구스타프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누이를 물끄러미 보며 비죽거리는 웃음을 그렸다.

“아무래도, 네가 이 오라비를 도와줘야 될 것 같구나. 엘리카.”

날이 밝아오고 헤르세인은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는 소식에 처음엔 의아했다. 이 저택에 있는 클라우드를 찾아올 손님은 있다 해도, 자신을 찾는 손님이라니? 하지만 객실로 찾아가 그 손님의 얼굴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왕녀전하.”

“아니요, 괜찮아요. 어서 앉도록 해요.”

제 집이라 할 수는 없으나 먼저 앉지 않는 이상, 하루 종일 서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 헤르세인은 먼저 그녀가 앉도록 권유했다. 다행이도 거절할 생각은 없었는지 맞은 편 소파에 엘리카가 앉자 그 뒤를 이어 헤르세인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약속된 것처럼 이어진 긴 침묵. 하녀가 차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으나 헤르세인도 엘리카도 차를 거부하며 현재 객실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뿐이었다. 그렇게 다시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먼저 침묵의 소리를 깬 건 헤르세인이었다.

“오라비의 적이나 다름없는 호랑이소굴로 직접 발걸음 하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전하께 도움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내 도움을…?”

도움이라니. 헤르세인은 서늘한 눈동자를 움직여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는 엘리카를 볼 수 있었다. 이제야 눈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손은 귀족가의 공녀라 할 수 없을 만큼 손등위로 자잘한 상처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더불어 일반 평민들조차 저토록 손등이 무색 할 만큼 상처자국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확실히 공녀치곤 험악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손등에 새겨진 과거를 들출 생각은 없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우선이기에 헤르세인은 더 이상의 잡생각을 지워내 버렸다.

엘리카. 그녀가 무슨 이유로 그것도 적이나 다름없는 배 다른 오라비의 집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클라우드가 무슨 이유로 엘리카를 집안으로 들여보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잘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거의 접전이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런 점이 경계심이 들어 헤르세인은 이번엔 제대로 엘리카를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눈빛 속에 헤르세인은 그녀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 결례가 되는 어려운 청이지만, 전하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여 나를 보자고 한 이유를.”

“그게...”

무릎위로 드레스 자락을 꽉 쥔 그녀의 손이 여전히 헤르세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파르르 떠는 것 같으면서도 손바닥 사이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듯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까지.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엘리카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세지 않은 몇 분이 흘렀을 쯤, 엘리카의 목소리가 조용한 객실을 울렸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함께 마을에 내려가 부상자들과 굶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을?”

뚫어지도록 그녀를 쳐다보았으나 헤르세인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그녀의 의지로 이곳까지 왔고 그녀의 의지로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는 것. 꼬아서 생각한다면 저택과 떨어진 막사에 있을 그녀의 오라비가 내린 명령으로 그녀가 이곳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있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스타프, 그자는 제 여동생을 그저 뒤에서 이용하는 한심한 작자로 볼 수 있으나 막사에서 봤던 그녀의 행적을 이미 두 눈으로 본 헤르세인은 그녀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당장 대답할 마음은 없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탁을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싶었으니까.

“역시 전하께 어려운 부탁이겠지요? 감히 제가 주제넘은 결례를 범한 것 같아 송구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엘리카는 더욱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방금 뱉어낸 말을 처음부터 없었던 말처럼 엘리카는 두 손을 저으며 헤르세인의 눈치를 보았다.

“그, 그냥 드린 말씀이니 너무 깊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엘리카는 분명 그렇게 말했지만 헤르세인은 궁금했다. 왜 하필 자신일까? 하는 궁금증. 그녀와 함께 마을에 내려가 그들을 보살피는 건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나서도 모자를 판이 아니던가. 하지만 궁금한 건 궁금한 것이었다.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던가.

“내가 거절할 수 있음에도 굳이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직접.”

결국 헤르세인이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자, 물고기마냥 작게 입을 벙긋하던 엘리카는 작게 옅은 숨을 토해내곤 어렵게 입을 뗐다.

“제가 드린 말씀의 반은 저의 진심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반은 오라버니의 청이기도 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어제 밤 저를 부르시곤 클라우드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왕녀전하를 계속 머물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한 치의 거짓도 섞이지 않았냐는 그녀의 날카로운 물음에 엘리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어제 부상자들의 막사에서 붕대를 능숙하게 갈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들을 더 고용할 비용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남은 인력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있지만 저희 사병의 문제만이 아닌 그 밑의 문제가 더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감히 제가 주제넘게 고귀하신 왕녀전하께 말도 안 되는 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의 말로 기분이 나쁘셨다면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 당장 무릎을 꿇고 앉은 엘리카의 모습이 헤르세인의 심연에 담겼다.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산 그레이스 후작과 달리, 헤르세인은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이려는 갓난아기에 불과했고 그레이스 후작만큼이나 정치경력의 눈치로 사람을 빠르게 판별하는 심안 역시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지금 단알은 사람의 손이 부족했고 구스타프 쪽의 부상자 사병뿐만이 아닌 그 보다 더 심한 백성들의 문제가 더 시급했다.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카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무릎을 세웠다.

“만약 어제의 당신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라비보다 당장 눈앞의 부상자를 챙기는 당신의 모습을 믿는 거지, 완전히 당신을 신용했다하여 함께 마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 그럼...”

조금씩 화색을 띄는 엘리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알의 백성들 때문인지 유유자적 이곳에서 차나 마시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앞장서세요. 그리고 내게 단알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식사조차 거르고 마을로 내려가겠다는 헤르세인의 행동에 클라우드는 손을 들고 말렸으나 헤르세인은 그의 의견을 깔끔히 무시했다. 물론 그레이스 후작역시 마을로 가겠다는 그녀를 말리려 했으나 완강한 고집과 단알에 온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녀의 발언에 후작은 정예 호위기사 5명을 붙여주며 그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전쟁의 폐허로 현재 단알은 치안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정예 호위기사 5명을 붙이긴 했으나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 무슨 일이 있거든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날이 어둡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후작의 단호한 부탁에 헤르세인은 알겠다는 말과 함께 엘리카와 프레이 가문의 저택을 나섰다. 그레이스 후작이 붙여준 정예 호위기사 5명과 소수의 사병. 그리고 엘리카가 데려온 2명의 간호사들과 또한 그녀를 호위할 3명의 호위기사와 5명쯤 되는 구스타프의 사병까지. 많지는 않으나 소수의 대비 사병들을 데리고 헤르세인가 엘리카는 한참을 걸어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중앙 광장이라 할 것 없이 이미 이곳은 피난민들의 대피소가 되어 수십 개가 넘는 천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천막 곳곳에는 전쟁의 피해를 입어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친 사람의 숫자는 많았고, 배식 시간은 생각보다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물일지 또는 한줌도 되지 않은 곡식 가루를 풀어 거의 희멀건 물과도 다름없는 수프가 그들의 배를 채울 한 끼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헤르세인은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나 역시… 뱃가죽이 등에 붙어 언제 굶어죽을지 모를 그런 일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도둑질하는 눈치보다 배가 고프다며 배를 울리는 그 울림소리를 얼마나 들었던가. 매일이 지옥이었으며 헤르세인에게 있어서 ‘오늘’을 지나면 다행이었고 다가올 ‘내일’은 또 다른 근심이자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을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 정말로 독하게 그리고 이를 악물며 아득바득 살아난 덕분인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살 수 있었다. 또한 저들의 배고픔이 마치 자신의 나약한 과거의 모습을 그려 더더욱 헤르세인은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아니, 지나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외면을 할 수 없다는 게 맞았다. 저들도 결국 과거의 자신처럼 어떡해든 살아남고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붕대를 갈아드릴게요. 움직임이 불편하고 잠시 고통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헤르세인은 한 명, 한 명 다친 이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희멀건 물이나 다름없는 수프를 그들에게 먹일 때마다 왕좌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그저 단상위의 의자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인 왕의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 앉고자 수 많흔 피가 흩뿌려졌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전쟁이란 이름의 백성들의 피 또한 흩뿌려진 무거운 자리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수록 헤르세인의 마음은 단알에 도착했던 그 마음의 무게와는 달랐다.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과 복잡해지는 머리, 그리고 이 배고픔과 아픔은 언젠가 반드시 프레이의 영주가, 더 나아가 자신들의 어버이인 국왕이 해결해줄 거라는 그 희망이 헤르세인을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 상황을 해결해줄 희망이란 빛의 그들의 국왕은 백성들을 보살피기는커녕 정신을 놓고 미쳐버려 하루 종일 술만 찾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원래도 생각했지만, 자신이 슬럼가에서 살던 그 시절의 생각과 현재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게 없음을 헤르세인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백성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당장의 배고픔이 그들에겐 중요했고 왕실에서 사는 왕족의 모습 따윈 백성들에겐 중요치 않았다.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것처럼 왕실을 향한 환상을 있을지언정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르지 못할 환상이라 생각하기에 백성들은 환상보다 지금이 중요했고, 또 자신이 들이 갖는 환상 속의 왕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는다.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거라고. 그 희망이 빛이 되어 자신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 줄 거라고.

‘내가 만약 정말로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나는 이들의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슬럼가에 살았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왕녀가 되었음을 그 누가 알았을까. 슬럼가에서 조차, 왕녀가 된 순간에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왕의 자리’ 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성군이 될지 폭군이 될지, 또는 암군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이곳에 단알 백성들의 모습에 동조되고 과거와 겹쳐 보여 마음이 무거워 진 것은 사실이나 헤르세인은 당장의 내일만을 생각해야 했다. 독하게 살아남으려던 과거의 자신처럼. 이번 일이 능력을 시험하는 일임에도 결국 자신의 우선순위는 복수. 후에 군주의 자리에 앉아 역사 기록되거나, 혹은 지워질지 모를 폭군 또는 암군이 될지라도 헤르세인에게 있어, 당장의 우선순위는 백성이 아닌 오직 복수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더 그들에게 미안하고 복수만을 향해 달리는 자신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르세인은 이들을 가엾게 볼 수도, 또한 위로해줄 수 없었다.

“전하, 이제 돌아가심이 어떻겠습니까?”

헤르세인과 똑같이 주변을 정리하며 돕고 있던 호위기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자, 헤르세인은 그제야 바깥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언제 지고 있었는지도 모를 주홍빛의 노을. 땅거미가 가라앉아 서서히 붉던 하늘 아래로 쪽빛의 하늘이 차오르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호위기사의 말처럼 이제 후작이 있는 프레이 가문의 저택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카 역시 이리저리 바삐 뛰었는지 아침과 다른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하며 헤르세인과 함께 구스타프의 진형과 프레이 가문의 저택 중간 사이에 도착할 쯤 이었다.

“전하, 제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군요.”

“왕녀전하, 또 무례임을 알고 있으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보신 그들을 모습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 역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껏 그 어떤 귀족들도 전하처럼 손수 나서, 저들을 직접 돕는 분들은 없었으니까요.”

“...”

어느덧 완전히 해가진 저녁의 하늘.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가기 전, 헤르세인은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째서 그녀가 제게 그런 말을 하는지. 마치 그녀의 말은 오늘 자신이 본 그 광경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려 헤르세인은 엘리카의 눈과 똑바로 마주했다. 여전히 흔들림조차 없는 그녀의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아침과는 다른 무언가 담겨 있어 헤르세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엘리카 공녀.”

“예, 왕녀전하.”

“나 역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까는 물어보지 못했으나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 보니 그게 가장 걸리더군요. 어째서 적이나 다름없는 배다른 당신의 오라비는 그 어떤 소란도, 문제도 없이 당신을 이른 아침부터 저택에 들여 나를 만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나마 밝던 노을마저 사라지고 쪽빛의 하늘로 서서히 어둡게 물들은 프레이 가의 하늘. 특히나 국경지대 쪽과 가까운 탓도 있지만 자주 날씨가 바뀌는 주변 지형으로 인해 마을의 중앙광장과는 다른 쌀쌀한 날씨가 저택을 감싸 돌고 있었다. 클라우드가 특별히 내준 숙소를 기점으로 그레이스 후작의 사병들은 편히 숙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분명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배를 채울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저택의 조리장은 물론, 대체 어디서 식재료를 구해다오는지 언제나 그들 앞에 기름진 식사들이 내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레이스 가문을 섬긴 그들은 배가 고플지언정 함부로 음식을 집어 먹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다. 특히나 소가주인 길버트의 주의가 내려진 이상, 사병들은 고기를 피하고 웬만하면 간단한 수프나 빵 한쪽으로 배를 채우며 주변을 경계하기 바빴다.

주변을 경계하는 것 또한 길버트가 내린 명령이기도 하나, 아무리 헤르세인 왕녀와 함께 단알 지역을 시찰하고자 온 프레이 가문의 저택이라 해도, 이곳은 현재 형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터.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칼을 들고 싸울지, 또 어디서 암살이 올지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피곤한 임무이지만 경계를 게을리 할 순 없었다.

“이봐, 알빈. 숙소로 들어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있어. 이제 곧 교대근무 시간이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

알빈은 작게 하품과 동시에 피곤해진 눈을 꾹꾹 누르며 조금은 느슨해진 몸으로 주변을 관찰했다. 흥청망정 가문의 재산을 쓰기로 유명했던 전대 프레이 백작. 제 집으로 매춘부들을 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닌, 얼마나 비싼 돌과 황금으로 저택을 뜯어고쳤는지 햇빛이 들지 않는 오후의 시간임에도 은은히 빛나는 몇 개의 황금 석상 때문에 알빈은 눈이 더 피로했다.

“곧 교대근무 시간인데, 숙소로 안돌아갈 거야?”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모습에 동료가 의아해하자, 알빈은 뻣뻣해진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며 대답했다.

“돌아가긴 해야지. 그래도 아직 시간은 좀 남았잖아. 벌서 이 시간에 돌아갔다간 길버트님께서 잔소리만 주구장창 하실 텐데 뭐.”

“하긴, 시간이 칼 같으신 분이니 아주 짧은 시간에도 농땡이 피우는 건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알빈은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부터인지 서늘해진 바깥 공기에 살짝 추위를 느껴야 했다. 분명 낮에만 해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였는데 해가 진 저녁과 밤사이의 공기는 무척이나 쌀쌀했다.

“그보다, 오늘따라 조금 춥지 않아? 그래도 어제 밤은 이정도의 날씨는 아니었는데….”

제복을 껴입은 동료가 추위를 녹이듯 양팔을 슬슬 비비자 알빈 역시 갑자기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설마 날씨가 어제나 오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다 수도로 올라가면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겠어.”

동료의 말처럼 단알의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다면 특히나 오래 있을수록 따뜻한 곳에 갔다간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었다. 물론 기사는 체력이 우선이라 체력이 잘된 기사들에겐 감기에 걸릴 걱정은 없었지만 유독 오늘따라 쌀쌀하게 느껴지는 추위에 알빈은 재채기가 나오려다 갑자기 울리는 종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댕─ 댕─ 댕─

“까, 깜짝이야.”

어느덧 정확히 9시를 가리키는 시계탑의 종소리. 시계탑은 무척 멀리 있으나 그 소리가 워낙 커, 이제 막 2일차로 단알에 들어온 알빈은 아직까지 종소리가 익숙지 않았다.

“수도에도 신전 쪽에 시계탑이 있지만 여기는 뭔가 시계소리가 음산히 들려서 뭔가 으스스 하달까….”

어차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떠날 곳이긴 했으나 알빈은 단 하루라도 저 종소리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프레이 가의 저택은 돈을 이곳저곳 쳐 바른 덕분에 눈이 피곤했지만 반대로 전쟁 이후의 안 쓰는 공간들과 비어진 탑들이 많아 특히나 어두워지면 한층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하지만 음산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교대를 해야 할 시간이 딱 맞춰줬기에 알빈은 바로 근처로 다가오는 또 다른 동료와 손 벽을 치며 교대가 되었음을 알렸다.

“나 잠시 눈 붙일 동안 고생들 해. 어차피 2시간 있다가 다시 내 차례지만.”

“알았으니, 얼른 들어가서 눈이라도 붙여.”

동료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어서가라고 손짓하자 그제야 알빈은 한결 풀어진 표정으로 숙소를 향해 느긋이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외부의 복도를 지나고 있던 중, 근처에서 들린 자잘한 풀숲의 부스럭 소리에 숙소를 향해 걷고 있던 알빈은 걸음을 멈춰 고개를 돌렸다.

“바람 때문인가?”

작은 풀숲이 움직인 건 단순한 바람일거라 생각하며 알빈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풀숲에서 나온 그림자를 알빈은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꺾어 발걸음을 옮기던 알빈은 마치 누군가에게 입막음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완전한 범죄를 위해 소리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수면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기절시킨 범행. 그림자 이윽고 기절한 기사의 얼굴에서 손수건을 때어내며 바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그림자를 향해 명령을 내렸다.

“이 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라. 지금 발견되면 우리의 계획은 차질이 생길 테니.”

리더로 보이는 그림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둠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기절한 알빈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 완전히 사라진 한명의 기사. 당분간 이곳에 지나갈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들키는 건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지 어둠속에서 나와 반쪽의 빛이 드러난 땅을 밟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을 가린 붉은 복면. 그리고 전신을 그림자처럼 가린 검은 옷. 붉은 복면은 얼굴을 가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은 이들 상징이자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그들의 존재이기도 했다. 또한 그녀의 눈짓으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그림자가 어둠속에서 대기하자, 그들의 리더는 이제부터가 시작인지 대충 닦아낸 날카로운 단검을 손에 쥐고서 행동 계시를 알렸다.

“이제 시작이다. 모두, 차질 없이 움직이도록.”

시계탑 종소리가 끝나고 헤르세인은 혼자뿐인 침실에 앉아 엘리카와 헤어지기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봐도 이상한 점이 하나가 아니었다. 엘리카의 첫인상은 구스타프가 말한 것처럼 겉모습만 보기엔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또는 부상자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귀족 영애답지 않을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녀의 성격이 타고난 거라면 반박할 수 없으나 처음 그녀와 만나고 함께 프레이 사병들의 붕대를 갈아주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녀에겐 무언가의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라비를 완전히 신용하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거리감. 그녀의 입장에선 당연히 오라비의 행보에 회의적일 수도 있으나 결국, 먼저 자리를 피한 건 그녀였고 헤르세인은 그녀를 통해 어쩌면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원수나 다름없는 클라우드와의 관계.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당당히 프레이 저택에 들어왔고, 원수 사이임이 다름없음도 오히려 클라우드 쪽에서 조차 제지하는 행동 또한 없었다. 설마 자신이 모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어 그녀와 헤어지기 전, 헤르세인은 엘리카를 떠볼 생각으로 입을 열었었다.

"왜, 당신의 오라비는 적이나 다름없는 당신을 제지하지 않고 나를 만나도록 놔둔 건가요?"

"전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구스타프 오라버니와 클라우드 오라버니는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으나 클라우드 오라버니는 저를 원수로 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여자로 태어났기에 오라버니는 저를 영주의 자리를 차지할 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거겠지요."

그녀의 말이 정말일까? 그 말을 끝으로 헤르세인은 다시 프레이 가의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 말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프레이의 두 형제는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영주 자리를 앉기 위해 한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문내의 전쟁을 일으킨 상황까지. 모친이 다른, 특히나 구스타프 쪽은 클라우드를 거의 죽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클라우드 쪽은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영주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야망은 있어보였다.

그런데 클라우드의 모친을 죽인 구스타프의 동생을, 그것도 엘리카를 여전히 동생으로서 생각한다? 막장의 집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했다. 같은 프레이 가의 피가 흐른다 해도 핏줄의 줄기는 달랐으며 클라우드에겐 모친의 존재는 약점이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의 모친을 죽인 건 구스타프라고 하지만, 그 책임이 과연 엘리카 그녀에게조차 없는 걸까? 아니, 책임을 떠나 두 남매의 모친은 결국 백작부인이었고 클라우드에겐 남매의 핏줄은 열등감이나 마찬가지였다.

클라우드는 결코 성인군자라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엔 권력욕과 탐욕이 가득했고, 그것을 단지 숨기고 있을 뿐 결국 이 상황까지 만든 그를 좋은 사람이라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자신을 대접하고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기름진 음식을 뻔뻔히 대접하는 그가 아니던가.

이곳에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어째 머릿속만 아프다니. 헤르세인은 옅게 한숨을 쉬며 이제 막 관자놀이에 손을 데려 할 때였다.

“전하!!”

노크를 두드릴 것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침실의 문을 벌컥 연 후작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당황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서, 집무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이 공자가─!”

클라우드는 붉은 혁명단이 경고장 마냥 제게 남긴 종이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어쩌면 하늘이 제게 준 기회. 클라우드는 이 기회를 하여금 영주의 자리에 앉아 구스타프를 완전히 처리하고 왕실에서 인정한 진정한 프레이 가문의 가주가 될 생각이었다. 그리고 무슨 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던가? 얼굴한번 본적 없는 윌리스 왕태자가 구스타프도 아닌, 제게 은밀한 서신을 보낸 것이었다. 서자도 영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선 윌리스 왕태자가 서신에 적은 그 글귀대로 클라우드는 헤르세인 왕녀를 반드시 죽일 필요가 있었다.

“나 뿐만이 아닌, 저쪽에서도 형제 싸움을 하겠다 이거겠지. 아, 형제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암살이라 해야 하나?”

왕실에서 왜 헤르세인 왕녀를 죽이고자 이런 서신을 보냈는지 이유 따윈 알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던가. 윌리스 왕태자는 눈에 가시일지 모를 왕녀를 죽이고, 자신은 그녀를 제물삼아 영주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한다. 이보다 더 좋은 상항은 없었다.

“구스타프 그 새끼만 아니었다면 진즉에 내가 앉았을 자리인데.”

클라우드는 한참동안이나 구스타프를 욕으로 씹어 먹다가 문득 아침에 이 저택을 찾아온 엘리카를 떠올렸다. 여전히 어리석은 오라비와 함께 쥐 죽은 듯이 눈치나 살피며 그곳에 붙어 있는 여동생.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다. 구스타프와 엘리카는 피가 이어진 남매가 아니던가. 다만 늘, 조용하면서도 수동적이던 엘리카가 왜 이곳까지 찾아와 자신에게 그런 청을 했는지 클라우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클라우드 오라버니. 구스타프 오라버니와 저를 피가 이어진 남매라 생각하기 이전에 저를 그저 프레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일단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얘기라고? 엘리카, 네가 네 오라비와 같이 있다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건 클라우드 오라버니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클라우드는 구스타프보다 엘리카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음을 자신할 수 있었다. 피가 이어진 남매라 해도 구스타프는 은근히 엘리카를 무시하기 일 수였으며 어떨 땐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가 맞는지 의심될 만큼 구스타프는 거의 엘리카를 하녀 부리듯이 대했다. 더불어 본인이 하녀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지 엘리카는 그런 구스타프의 명령을 늘 따랐고, 단 한 번도 구스타프의 명을 거절한 법이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구스타프를 잘 따르지 않았던가? 그런데 구스타프를 놔두고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자신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생아로 자란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않으나 더욱이 구스타프의 혈육인 엘리카를 어찌 믿을 수 있을까. 그 점이 가장 의심스러웠으나 그래도 듣기엔 솔깃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클라우드는 곧 이어진 엘리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구스타프 오라버니께 왕실에서 전서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알에 있는 헤르세인 왕녀를 죽이라는 암살 명령과 그 포상으로 영주의 자리를 약속하겠다는 글과 함께."

"뭐?!"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굳이 제가 클라우드 오라버니께 사실대로 실토하는 까닭은 구스타프 오라버니를 많이 지켜봤지만 영주의 자리는 클라우드 오라버니가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엘리카."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카가 한 말은 클라우드에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이 상황을 반전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클라우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지만 핏줄에 대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성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당장의 탐욕이 클라우드의 불신을 누르고 말았다.

"그 말이 사실이냐? 만에 하나 거짓이라면 네가 아무리 프레이 가문의 직계의 핏줄이라 해도 나는 널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피는 다를 지언정 내 아버지의 피가 이어진 동생이라 해도 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럼, 이걸로 증명하면 되나요?"

"이건─!"

엘리카가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죽은 프레이 백작이 생전에 쓰던 가문의 인장이 박힌 금반지였다. 오직 가주만이 낄 수 있는 반지이자, 작은 도장이라고도 불리는 가문 대대로의 가보. 안 그래도 그것을 구스타프가 가져가 몇 번이나 속이 쓰렸던가. 그런데 엘리카 덕분에 가문의 반지가 쉽사리 제 손에 떨어진 것이었다. 클라우드는 냉큼 반지를 가져가 제 손에 반지를 끼며 만족의 미소를 보였다.

"좋다. 내 동생의 진심을 한번 믿어보지. 하지만 네가 만에 하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보인다 싶으면 나는 그 즉시 네 목을 쳐낼 것이다."

"예, 오라버니."

덕분에 가문의 반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여전히 엘리카의 행동은 클라우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엘리카의 행동은 의심할 곳이 없었다. 자발적으로 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구스타프가 위협을 가하기 전에 헤르세인 왕녀를 데리고 마을에 내려가 피난민 소에 가겠다는 엘리카의 청을 클라우드는 거부하지 않았다. 구스타프가 멍청하지 않는 이상, 피난민 소에 어떻게 왕녀를 대놓고 암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단 둘도 아닌 그레이스 후작이 붙인 정예 호위기사를 보고서 클라우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레이 가문의 호위기사를 엘리카에게 붙여주었다. 그 덕분에 왕녀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왕녀를 어떻게 죽여야 하지?”

문제는 왕녀를 죽이는 것. 구스타프와 똑같은 전서구를 받은 클라우드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윌리스 왕태자가 건넨 약속은 이보다 더 달콤할 수 없었다. 왕녀만 죽인다면 바로 손에 넣을 프레이의 자리. 클라우드는 한참이나 짙게 안개 낀 창밖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길 때였다.

“오늘따라 무슨 안개가 이렇게… 안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안개가 짙어진 창밖을 본 순간, 클라우드의 머릿속은 빠르게 하나의 종잇조각이 스쳐갔다.

“붉은 혁명단!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혹시나 싶어 클라우드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주변 경계 강화를 더 높이고자 바깥에 있을 호위기사를 부르려던 찰나였다.

“밖에 있는 호위기사는 당장 집무실로 들──!”

바로 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끼이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린 집무실의 문. 문이 열린 집무실문을 쳐다보던 클라우드의 눈은 그 어느 때 보다 두려움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부, 붉은 혁─! 커, 커억!!”

그 이름을 전부 뱉어내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온 하나의 그림자가 재빠른 동작으로 아주 날카로운 단검을 날려 클라우드의 목을 정확히 노렸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허무히 죽어버린 클라우드의 모습을 싸늘히 쳐다보던 그림자는 뒤를 따르던 그림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를 따르던 일당들은 전부 목을 치고, 우린 목표를 바꾼다. 우리의 목표는 헤르세인 왕녀. 그녀를 반드시 찾아 끌고 간다.”

목을 정확히 노린 것인지 덕분에 클라우드가 있던 집무실의 풍경은 끔찍할 정도였다. 난도질이라도 당한 것처럼 수많은 혈흔이 시체의 주변으로 흩뿌려져 있었으며 맨눈으로 보기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질 풍경들이었다. 그레이스 후작과 길버트의 뒤를 쫓아온 헤르세인 역시 그것을 보기가 조금은 힘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빠르게 상황을 눈치 챈 길버트가 조금 앞서 나가, 헤르세인의 시야를 가려주었다.

“동생 쪽이 벌인 짓일까요?”

고개를 외면하고 시야가 차단되었음에도 헤르세인은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해야할 이유가 있었다. 가주는 아니나 프레이 가의 저택을 차지하고 집무실에 앉아 대다수의 일을 대리하고 있던 클라우드가 죽은 것이다. 그가 죽은 이상, 가주는 아니더라도 이 집안의 높은 사람은 엄연히 헤르세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정황을 따진다면 누가보아도 동생 쪽이 저지른 암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말은 동생 쪽이 저지른 암살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헤르세인의 물음에 그레이스 후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듯 턱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후작의 눈은 무심히 클라우드의 시체를 내려 보고 있었다. 한때는 중립파에 속해 있던 몸. 때문에 귀족들의 견제를 받을 일은 극히 드물어 암살 받을 일은 없었으나 귀족 중에서도 막강한 세력을 가진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난 이상, 암살은 하나의 삶처럼 끼고 살아야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해보이면서도 무언가의 복잡함이 얽혀 있었다. 아직 가주의 자리조차 제대로 앉지 못한 일개 장남의 암살이었고, 클라우드가 죽기 직전까지 형제의 내전은 휴전 중이나 현재 진행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암살은 누가보아도 차남 쪽이 저지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바보가 아닌 이상 무턱대고 암살을 저지를 이유 또한 없었다.

이렇게 쉽게 암살을 보내 클라우드를 죽일 것이었다면 가문의 내전이 아닌, 진즉에 제 형을 죽여 구스타프가 가주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일이었다. 물론 잠깐이나마 만난 구스타프의 행동을 보건데 암살을 보낼 행동은 다분하나 현재 상황으론 프레이 가의 손실은 너무나 컸다. 구스타프는 구스타프대로 자신의 진형을 다시 복구시킬 시간이 필요했고 클라우드 역시 겉으론 여유를 부리고 있었으나 저택을 차지한 이상, 가문 내의 일을 대리하느라 휴전을 빌미로 이것저것 다른 쪽에 신경을 썼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 클라우드는 눈앞에 죽어 있었고 심지어 집무실을 지키고 있던 두 명의 병사들과 한명의 호위기사까지 시체로 발견된 상태였다. 그렇담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닌 어떠한 의도가 담겼을지 모를 죽음.

후작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 일이 단순한 암살이 아님을 안 이상, 헤르세인의 신변마저 위험할지 모를 상황이었다. 후작은 빠른 눈짓으로 길버트에게 신호를 주었고 그것을 빨리 캐치한 길버트 역시 고개를 작게 주억이며 허리춤에 있던 검의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전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두 형제는 이미 가문의 내란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가주의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권력 쟁취의 전쟁이지요. 또한 두 형제의 모친은 비참히 죽었고 그것으로 형제는 서로를 향해 상당한 증오심을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될 내란이 휴전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알 지역의 백성 때문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로 현재 두 형제는 전쟁을 중지시키고 휴전에 들어갔으며 각자의 진형에서 내전으로 망가진 사병들의 보충과 진형복구에 여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클라우드 쪽에 암살을 보낸다? 암살을 보낼 것이었다면 내란이 아닌, 내란 전에 암살을 보내어 가주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일수록 위험부담이 크지요. 때문에 차남 쪽이 벌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동생 쪽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헤르세인의 미간이 조금 더 심상치 않게 좁혀 지자, 후작은 사병들을 시켜 서둘러 시체를 옮길 것을 명했고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며 말을 덧붙였다.

“어디까지나 제 억측이긴 하나… 동생 쪽이 아니라면 이 일을 저지를 이들은 한쪽 밖에 없습니다.”

“설마… 그가 말한 붉은 혁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문이 활짝 열린 실내 안으로 다급히 달려왔는지 후작의 사병 중 하나가 숨을 크게 헐떡이며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후작각하! 저희 쪽 기사님 중 한분이 누군가에게 기절 당한 채, 발견되었다 합니다!!”

“뭐라?!”

클라우드와 몇몇의 프레이 가의 사병들만 당할 줄 알았던 죽음과 또 다른 기습이 후작의 기사에게도 향해 있었다. 후작의 직감이 빠르게 경고를 울렸다. 어서 이 저택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 일은 단단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왕녀전하. 아무래도 프레이 가를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길버트! 자네는 당장 왕녀전하를 모시고 어서 안전한─!”

그 순간 저택을 울리는 굉음소리와 수십의 발자국소리가 현란히 울렸고 어느새 헤르세인의 주변으로 붉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후작과 길버트의 뒤를 따른 소수의 호위기사와 사병들이 있었으나 복면을 쓴 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으며 이미 그들로 하여금 길이 막혀 있어 도망치기엔 늦은 상태였다.

“이게 무슨 짓이지?”

후작이 낮은 목소리로 상대를 경계하며 마른입을 뗐으나 현재 상황은 몹시 위험했다. 길버트 역시 헤르세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등 뒤로 숨겨 사방의 적들을 노려보았지만 상대의 숫자가 월등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그림자 중 한명이 선두로 나와 후작과 길버트는 처음부터 관심에 두지 않았다는 목소리로 단검을 뽑아 정확히 길버트의 뒤에 숨어있는 헤르세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너희들에겐 볼일 따위 없다. 우리들의 목적은 단 하나. 너희들 틈에 숨어있는 왕녀이다.”

“뭐라고?! 설마, 카타리아 왕후가 내린 명령인 것이냐!?”

다른 것이면 몰라도 그들이 왕녀를 굳이 노린다면 이유는 하나였다. 헤르세인의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카타리아 왕후의 존재. 그렇담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왕녀를 목표로 한다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후작의 생각과는 다른지 카타리아 왕후의 이야기는 논외라도 되는 것처럼 의아함을 섞어 상대는 대답했다.

“카타리아 왕후? 그러고 보니 왕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 있긴 하지.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왕후는 사치 따위에 정신이 팔려 우리 같은 이들은 생각 따위조차 하지 않는 비정한 국모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우리들의 인질이 되어 줄 필요가 다분하지. 그녀로 하여금 우리들은 단알을 바로세울 것이니!”

“그게 무─! 와, 왕녀전하! 길버트!!”

후작의 외침과 함께 어디선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집무실 주변은 새하얀 연기가 퍼지게 되었다. 그냥 단순한 연기였다면 손으로 연기를 저어 앞을 가늠할 수 있으나 연기에 무언가를 첨가했는지 연기가 퍼지는 동시에 눈을 맵게 하는 따가운 고통이 따르면서 길버트도 후작도 헤르세인조차 제대로 앞을 보기가 어려웠다.

‘눈을 뜨기가 힘들어….’

콜록 이는 기침과 자꾸만 눈 끝에서 맺히는 눈물로 인해 헤르세인은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 사이 길버트와 후작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점점 거리가 벌어졌음을 느끼지 못한 헤르세인이 앞을 해매는 사이,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가 헤르세인의 뒤에 멈춰 섰다. 그리고….

“아──.”

가뿐히 그녀를 기절시켜 대충 어깨에 들쳐 올리는 것으로 목표는 이룬 셈. 그림자는 근처에 있던 동료들과 신호를 주고받고서 빠르게 실내를 빠져나갔고 서서히 연기가 그칠 때쯤, 헤르세인은 그림자들과 함께 종적을 감춘 뒤였다.

헤르세인이 기절한 눈을 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프레이 가에 있을 때처럼 자신을 에워 싼 붉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었다. 물론 그때보다 인원수는 훨씬 줄어들고 극 소수였으나 저들에게 붙잡힌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조용히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

발목은 물론, 결박 된 두 손과 입을 틀어막은 천 까지. 그야말로 저들에게 납치당한 인질 신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인질치고는 손목이며 발목이 꽁꽁 묶이지 않은 감각에 헤르세인은 의아하단 생각이 들 때, 어두침침한 창고의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을 빼곤 얼굴을 꽁꽁 싸맨 그림자이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자들과 포스가 다름을 헤르세인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짓 한 번에 그림자 한명이 다가와 헤르세인의 입을 막고 있던 천을 내려주자 그 기회를 통해 헤르세인은 바로 그를 향해 입술을 뗐다.

“당신이 저들의 리더 인가?”

“이런 상황에도 상당히 침착하시군요.”

“뭐…?”

그, 아니 그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랐다. 더불어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등이 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것을 빨리 알아챈 것처럼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던 리더는 복면을 완전히 내림으로서 맨 얼굴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왕녀전하.”

“당신은….”

“예, 전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프레이 가의 막내딸, 엘리카 밀스 프레이입니다.”

허름한 옷 위로 피가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며 프레이 가의 사병들을 돌보던 그녀를 바로 오늘 저녁까지 헤르세인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꾸며진 모습이거나 그것도 아님 또 다른 제2의 모습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엘리카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있었다. 분위기도 입고 있는 옷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

‘설마… 손의 상처들은 전부….’

왜 단순한 손의 자상들이라 생각했을까. 지금에서야 다시 생각해보면 귀족 여인의 손치고 그녀의 손은 험악한 상처들이 다분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상처들이 무엇으로 생겨났는지 단숨에 이해가 됐다. 하지만 손의 상처이든 그녀의 이질적인 모습이든 그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녀가 자신을 납치했다는 요점이었다.

헤르세인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엘리카를 올려보며 자신을 납치한 정확한 이유를 묻고자 했다.

“나를 납치한 이유가 뭔가요.”

“전하를 인질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인질로 하여금 왕실에 협박할 생각인가요?”

“처음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어이없거나 황당한 헛웃음이 나올 법도 하지만 헤르세인은 헛웃음보단 작은 한숨을 토해낸 것이 전부였다. 엘리카, 그녀가 만약 수도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을 꾸미는 것도, 설사 꾸민다 하더라도 이런 납치극을 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이었다. 수도에 있는 귀족들 대다수가 자신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지 않던가.

하지만 단알의 사정은 물론 타 왕국의 전쟁과 집안의 내란으로 왕실의 정황을 완전히 파악할리 없는 그녀로선 이 납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모를 것이었다. 오히려 왕실에서 반길지도 모를 그런 납치극을 말이다. 헤르세인은 다시금 작게 한숨을 뱉어내곤 이번엔 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엘리카를 향해 무심히 대답했다.

“아쉽지만 나의 존재는 왕실을 흔들 만큼 좋은 협박거리의 인질은 못될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 엘리카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으나 헤르세인은 오히려 그 정중함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를 순진하다고 생각할 순 없었다. 사병들을 직접 치료할 때부터 알아보긴 했지만 지금은 이들을 이끄는 리더쯤 보이지 않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 이전에 프레이 가의 핏줄이자 귀족이었고 단알이라는 지방 출신의 귀족이라 해도 결국은 백작가의 공녀였다. 오히려 왕실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 헤르세인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자, 이 상황에 엘리카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송구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이름을 얼마 전에 알았을 뿐, 왕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여인들처럼 자수나 꽃꽂이를 하며 방에 틀어박힐 여유 따윈 없었으니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왜 자신을 상황을 모르고 있는지. 헤르세인은 편하게 기대고 있던 자세를 풀어 엘리카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했다. 비록 푹신한 소파가 아닌, 소의 여물이 될지도 모를 볏짚들이 가득한 곳이나 이정도로 긴 이야기를 나누기엔 충분한 푹신함이었다.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른다고 하니, 내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 수밖에.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나면 엘리카.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엘리카가 감시처럼 붙여놓았던 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헤르세인은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슬럼가의 시절부터 왕녀로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아라네아 왕비의 진실과 자신의 혈통까지도. 엘리카에게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헤르세인은 문득 제 상처가 어느 정도 덤덤해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바로 얼마 전까지의 폭풍우와도 같던 과거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어진 것도 곪고 또 곪아버린 상처자국이 아린 것은 여전했으나 이제는 태연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은 보다시피 이러하지요. 직계혈통의 왕족이긴 하나, 오랫동안 왕실을 장악한 카타리아 왕후나, 윌리스 왕태자에 비하면 내 존재는 아직까지 미미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막 그레이스 후작이란 세력을 등에 업은 왕녀인 셈이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그런 사실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만 신경 쓰기 벅찼으니까요.”

정말로 몰랐다는 엘리카의 표정을 보니, 헤르세인은 이젠 정말로 궁금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왜 복면을 쓰고 여기까지 다다랐는지를.

“이 정도면 난 모든 것을 이야기 했어요. 이젠 귀족들도 흔히 아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 이젠 당신차례예요. 엘리카 공녀.”

“저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모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번 풀기 시작하면 샘이 솟듯 계속 쏟아지는 과거이기에 처음엔 망설이던 엘리카 역시 어느새 진정된 얼굴로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낼 수 있었다.

“저는 어린 시절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납치? 납치라면….”

“예, 지금 전하께서 계시는 이곳에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납치하는 이들은 당시 붉은 혁명단이라 불리기 전의 이들이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미래가 그들로 인해 바뀌게 된 것이.”

엘리카는 추억을 회상하듯 과거를 떠올렸다.

프레이 백작의 딸로 태어나 누가보아도 금지옥엽으로 키워졌던 어린 시절. 하지만 그것은 그럴싸한 겉모습일 뿐, 실제로 엘리카는 금지옥엽으로 키워지긴 커녕 무관심 속에 자라난 프레이 가의 도구나 마찬가지였다. 어느덧 10살이 되던 해의 엘리카. 엘리카는 프레이 백작 가의 피를 잇는 혈통이나 여전히 그 존재는 미미하다 할 수 있었다. 사내로 태어나 일찍이 프레이 가의 후계자라 불린 장남이자 오라비인 구스타프는 백작 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존재였고 그런 오라비를 백작 역시 아끼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구스타프보다 먼저 태어난 정부의 핏줄인 클라우드로 인해 집안의 서열 구도가 바뀐 것은 물론, 백작의 인정 하에 프레이 가의 일원이 된 클라우드는 고작 나이차로 인한 장남이 되어 구스타프의 서열 윗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프레이 가의 후계자로서 태어나고 후계자로 자라난 구스타프. 그러나 클라우드의 존재가 구스타프를 굴욕스럽게 만들었으며 반대로 구스타프에게서 프레이 혈통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겐 구스타프의 존재는 자신이 갖지 못한 열등감과도 같았다.

프레이 가의 후계자가 되고자 사사건건 부딪치며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는 두 형제. 그러나 두 형제는 결국 ‘사내’이기에 눈에 띄고 프레이 백작의 시선을 받으나 엘리카만은 상황이 달랐다. 분명 정실인 이사벨에게서 태어난 엘리카이나 딸이란 이유만으로 엘리카의 존재는 프레이 백작에게 있어 프레이 가의 또 다른 힘이 될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다.

성인이 된 딸을 서둘러 고위귀족에게 시집보내어 사돈을 맺은 가문과 협력하여 프레이 가의 재산은 물론 명예를 드높이려는 백작의 원대한 꿈. 때문에 어쩌다 예쁨을 받을 지언정 엘리카는 그 예쁨 받는 칭찬이 도구로서의 칭찬임을 모를 리 없었다.

기껏해야 아직 10살 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 그러나 엘리카는 두 오라비들보다 성숙했고 일찍이 철이 들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었다.

"너. 프레이 가의 사람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복면을 쓴 한 남자. 혼자서 정원을 거닐고 있던 엘리카의 앞에 정체모를 남자가 물었다. 엘리카는 당연하게도 고민할 것 없이 사람을 부르려 했으나 사람을 부르기도 전에 뒷목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고통과 함께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제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어딘가에 납치된 이후였다.

"여기가 어디에요?"

납치당한 것은 틀림없을 텐데, 엘리카는 이상함을 느꼈다. 결박되지 않은 두 손과 두발은 물론 천 조각조차 물리지 않은 입까지. 엘리카는 혹시 새로운 납치 수법인가 싶어 지레 겁먹은 표정으로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 물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곧이곧대로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여긴 프레이 저택과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의 외곽 쪽 구역. 쉽게 설명하자면 프레이 백작이 외면한 빈민촌이라고 하지."

"빈민촌…?"

"그래, 빈민촌. 곱게 자란 귀족 아가씨는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

복면을 쓴 남자는 그렇게 말하곤 무슨 생각인지 이가 깨진 그릇에 담긴 수프를 내밀어 엘리카가 먹길 기다렸다. 납치범이라 하기에 이상한 친절과 설명. 그리고 행동들까지. 엘리카는 그럼에도 남자의 행동에 경계를 풀 수 없어 그가 내민 수프 그릇을 외면했지만, 오히려 남자는 예상했는지 쓰고 있던 복면을 내려 따로 준비한 자신의 몫인 수프를 바로 엘리카의 앞에서 먹기 시작했다.

"경계를 하는 건 나쁘지 않겠지. 이름도 얼굴도 모를 타인이 주는 음식을 덥석 받아먹지 말라고 너의 부모님이 가르쳤을 테니. 그래도 먹는 게 좋아. 내가 너한테 이 수프를 주는 건 마지막일 테니까. 나중에 배고프다 울고불고 해도 주지 않아. 네 불쌍한 상황을 우린 들어줄 여력 따윈 없으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런 말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절 낳자마자 불치병에 걸리셔서 저를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저를 도구로서 생각하실 뿐 제게 무언가를 한 번도 가르쳐주신 분이 아니시니 까요. 아… 가르쳐주신 분이 있다면 아버지의 정부가 있는데 그 분이 제게 한번 방금이랑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남이 준 음식은 함부로 먹지 말라고. 전부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그것은 일종의 정부의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프레이 가의 혈통이란 이유로 정부인 넬리아는 엘리카는 물론 구스타프를 가장 눈엣가시로 여겼으며 매번 집안에서 이사벨의 친자식들을 마주쳤다며 하면 넬리아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총애를 등에 업은 정부의 드높아진 콧대. 반대로 정부가 도발할 때마다 언제나 욱하고 소리치는 쪽은 구스타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엘리카는 물끄러미 남자가 건넨 수프를 보았다. 매번 프레이 가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꼬박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수프였으며 엘리카는 아직까지도 아침에 먹은 수프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수프는 수프라고 말하기 애매한 모습이었다. 걸쭉하기는커녕 물처럼 투명했으며 건더기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맑고 말간 수프의 모습.

먹기 싫기보단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정부의 말처럼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을지 모름에도 엘리카는 그릇 째 들어 수프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의 목소리가 엘리카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다.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한 건가? 그거 먹고 정말로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의 말대로 수프에 독이 들어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호기심이전 그동안 마음 속 깊숙이 억눌러왔던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이 엘리카를 움직이게 한 것인지도 몰랐다. 프레이 가를 벗어났다는 기쁨과 프레이 가의 도구로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지 못한 욕구적인 본능들.

엘리카는 태연히 수프 그릇을 전부 말끔히 비워내며 남자를 향해 대꾸했다.

"죽었다면 진즉 아저씨가 먼저 죽었겠죠. 아저씨 일부로 제가 보는 앞에서 그릇에 수프를 담아주시고 다른 그릇에 수프를 담아 바로 눈앞에서 먹었잖아요."

"네가 눈치 못 챌 사이에 독을 넣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저씨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자유롭게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아저씨가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일까. 엘리카는 방금 전까지 남자에게 향해 있던 경계를 풀고 마음껏 수프 그릇을 비워낸 것인지도 몰랐다. 어린 소녀의 당돌함과 흔들림 없는 두 눈동자까지. 남자는 픽 웃으며 정답이란 얼굴을 하며 마저 수프를 들이켰다. 깔끔히 비워낸 수프 그릇을 치워내고 남자는 본격적으로 엘리카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지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요한이다. 평민이기에 너처럼 성은 따로 없지. 그리고 내가 너를 납치한 납치범이기도 하고."

"제 이름은 엘리카에요. 엘리카 밀스 프레이. 편하게 엘리카 라고 불러주셔도 되요. 그리고 아저씨가 먼저 소개했으니까, 왠지 저도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요한 아저씨, 저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뭔지 예상은 가지만 어디 해봐."

"아저씨는… 요한 아저씨는 왜 저를 여기까지 납치한 거예요?"

처음부터 궁금했었다. 왜 하필 자신인지. 성인이 되어 백작이 쓰다 버릴 존재나 다름없을 자신을 굳이 납치할 이유 따윈 없었다. 오히려 득이 되는 쪽은 백작이 가장 아끼는 두 오라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는 아까처럼 피식 웃던 얼굴과는 다르게 살짝 그림자가 그려진 얼굴을 하며 엘리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었다.

"처음부터 널 납치할 생각은 아니었지. 내 목표는 장남이나 차남, 둘 중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눈에 보인 건 프레이 가에서 꽁꽁 숨기다 시피 한, 네가 눈앞에 있었고 나는 내 판단으로 너를 납치한 것이지. 어때? 이제 이해가 되나?"

엘리카는 작게 고개를 주억거렸다. 어떤 납치범이든 그들의 목표가 두 형제인 것은 당연했다. 납치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해도 결국 성공만 하면 인질로 하여금 납치범들 족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던가. 그에 비해 자신은 최상의 조건에 못 미치는 쪽이었다. 더욱이 그 진실을 모르기에 당당히 자신을 납치했다고 하는 남자의 말이 엘리카는 혹시라도 자신의 진실에 그가 실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었었다.

프레이 가의 또 다른 힘이 될 도구이긴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도구이자 그저 그런 존재. 엘리카의 위치는 딱 그러했다. 필요로 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의 관심도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렇다고 완전한 무시를 하기엔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는 존재. 아마 지금 저택 내에서도 자신이 납치되었음을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프레이 가의 모든 눈들은 오직 두 형제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저씨, 그거 알아요? 아저씨는 제가 아니라 구스타프 오라버니나, 클라우드 오라버니, 둘 중 한명을 납치해야 했어요. 왜냐면 저를 납치해 봤자 인질로서 큰 가치가 없을 테니까요. 아마 지금도 저택에선 제가 납치됐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 구스타프 오라버니의 생일 문제로 지금 집안이 한창 바쁠 시기니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건가?"

한동안 남자에게선 말이 없었다. 큰 실망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모습에 오히려 엘리카가 더 미안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사실임을 어찌하겠는가.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저택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을 프레이 가의 막내딸을 선택했고 그 막내딸을 인질로서 이용하기엔 턱 없이 가치가 없지 않던가.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실망이 역력할거라 생각한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다를 게 없는 담백한 표정으로 엘리카를 향해 다시금 대답했다.

"그렇담 어쩔 수 없군. 그쪽에서 너를 찾지 않는 이상, 너는 내 밑에서 일 좀 해줘야겠다."

"…네?"

"설마, 저택에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손발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긴 네가 있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아까도 말했지? 여긴 빈민촌이라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무얼 하지 않는 이상 네 몫은 없는 그런 곳이야. 더군다나 널 납치한 건 나지만, 나는 널 계속 책임질 생각 따윈 없다. 인질로서 가치가 없다면 넌 여기 빈민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러니 어떡할 거지? 그들이 널 찾을 때까지 평생 여기에 꼼짝없이 무언가를 바라며 가만히 있을 생각인건가?"

아니. 그의 말처럼 바보마냥 이곳에서 멍하니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분명 그에게 납치당한 처지이긴 하나 이곳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프레이 저택 밖의 세상이었다. 언젠가는 꿈꿔왔던 자유. 엘리카는 크게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작은 두 다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작은 입을 오밀조밀 또박또박 움직였다.

"할게요. 저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꼭 해내고 싶으니까."

요한에게 납치되기 전까지 엘리카에게 있어 세상은 동화책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아기자기하고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하지만 납치를 당하고서 엘리카가 본 세상은 확연히 달랐었다. 아기자기한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닌, 절실하고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어른들의 동화책 이야기처럼.

요한을 따라서 엘리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빈민촌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처음엔 빈민촌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요한에게서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을 때 엘리카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왜, 아버지는… 왜 백작은 이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

빈민촌에 사는 이들은 전부 낯빛이 좋지 못했고 한 달을 꼬박 굶는 것이 기본이라고 요한이 말했었다. 엘리카가 듣기에 한 달을 굶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달씩이나 굶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루만 굶어도 사람은 배를 고파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닌 한 달씩이나 굶는 것이 마치 머나먼 이야기와도 같았으나, 막상 빈민촌에 들어가 자신과 나이가 똑같은 또래임에도 굶는 일이 빈번하여 성장이 덜 된 아이를 본 순간 엘리카는 완전히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굶음은 밀어낼 수 없는 인생이었으며 지독한 악연과도 같은 고리임을. 엘리카는 요한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빈민촌의 배식소에 들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릇을 씻는 일을 해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요한을 따라, 아이들에게 작은 빵조각을 나눠주고도 했다. 처음 그릇을 씻을 때와 빵을 나눠주었던 그 감촉을 엘리카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었다.

늘 먹을 것이 부족한 빈민촌. 그리고 물까지 메말라 요한이 늘 같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깨끗하지 않은,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뿌연 우물물을 길러와 빈민촌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그 모습을 엘리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거지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했던 순간들. 상황은 빈약하고 어둡기만 했으나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을 잃지 않으며 빈민촌의 사람들을 한명, 한명씩 전부 챙기는 요한의 모습을 엘리카는 잊지 않았다.

고작 음식을 나눠주는 것 뿐 임에도 마치, 그가 이곳의 구세주인 듯 빈민촌의 사람들은 요한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를 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고픔을 잊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뿐만이 아닌, 요한에겐 이곳에 같이 오는 동료들도 존재했는데 그들도 요한을 무척이나 따르며 한눈에 보아도 그들이 요한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엘리카는 요한이 단순한 납치범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과 그저 얼굴을 가릴 뿐인 검은 복면.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였으며 요한은 그들을 위한 단순한 ‘도적’이 아닌 ‘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요한은 도적 일을 할 때마다 늘 엘리카를 떼놓지 않았다. 그것이 궁금해 엘리카는 이유를 물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왜 저를 자꾸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요한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다 이유가 단순했음을 설명했다.

"세상을 넓게 보라고. 너처럼 새장 속에서만 자라난 귀족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를 테니까. 그래서인지 내가 속해 있는 무리들 중에 유일한 귀족인 너에게만큼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지. 너라도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되면 혹시나 알아? 네가 우리를 돕게 될지?"

그 뒤로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지만 엘리카는 요한이 귀족을, 정확히 부패한 귀족들만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로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저를 찾는 소식조차 없는 프레이 가문. 이쯤 되면 아예 자신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음에도 찾기를 포기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나 엘리카는 굳이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프레이 가문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날이 지날수록 엘리카는 요한을 돕는 일이 더 즐거웠고 처음으로 의미가 깊은 일임을 알게 되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 무려 1년이 지나게 되었고, 어느새 15살이 되어 5년이 지났을 때 엘리카는 스스로 프레이 가를 찾아가길 포기한 상태에 다다랐다.

또, 지난 5년 동안 엘리카는 요한과 함께 하면서 가문에서 배우지 못한 세상의 공부는 물론 제 자신을 지키는 호신술과 검술을 익힐 수 있었다. 처음 그것을 부탁한 건 엘리카 자신이었다. 늘 요한이 도적 일을 할 때마다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못한 자신이 싫었고, 더욱이 요한의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요한에게 검술을 배우겠다고 부탁했는데 요한은 순순히 응해주었다.

"귀하게 자란 아가씨께서 거칠기만 한 검술을 배우겠다고? 자신은 있고? 네 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닌 언젠간 네가 든 검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검을 배우겠어? 그렇담 혹독히 가르쳐주도록 하지."

일반 평민이 검술을 배우기엔 턱없이 어려웠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용병이나 기사가 될 것이 아니라면 평민이 배우기엔 검술은 어려웠고 생사에 관련된 직종이다 보니 더욱이 평민들에겐 검술은 그저 위험한 직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살고자함으로 운이 좋게도 용병에게서 공짜로 검술을 배울 수 있게 된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혹독히 검술을 단련했고 무리에서도 요한의 실력은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었다.

혹독하면서도 봐주는 것 없이 엘리카는 요한에게서 피와 땀이 나도록 검술을 배웠고 열다섯이 되었을 땐 요한의 무리들도 인정해주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요한은 늘 엘리카가 검을 들 때면 주의를 잊지 않고 언제나 당부를 했다.

"검을 든 순간 그저 악한 사람만 베어낸다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무게를 느껴야만 해. 네가 든 검은 단순한 검이 아니다. 우리들을 살릴 수도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우리들의 최후의 수단이니까."

그 말처럼 요한은 무리들 중에서도 검술 실력이 으뜸이지만 함부로 검을 드는 법은 없었다. 처음엔 불필요한 살생을 싫어해서 검을 들지 않는 건가 싶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어디까지나 요한은 목표로 하는 것은 귀족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금은보화와 재산들. 목표는 사람이 아니기에 도적질을 할 때면 요한은 웬만하면 피를 보려 하지 않았다.

물론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적을 귀족이 가만 놔둘 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요한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검을 들지 않았고 웬만하면 몸과 머리를 이용하여 귀족의 금은보화를 훔쳐 탈출하기 바빴다.

요한과의 생활도 익숙해진지 어느덧 5년. 15살이 된 5년의 시간 동안 세상을 배운 것도 있지만 엘리카는 요한을 따라 도적질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망을 보거나 요한을 따르는 그들의 자잘한 도움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지금은 요한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엘리카는 요한에게 배운 것 그대로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쭉 요한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별은 갑작스레 찾아오고 말았다. 마을을 지나다 우연히 듣게 된 어머니의 소식. 그 실상은 알 수 없으나 소문은 프레이 가문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틀림없는지 프레이 가와 가까운 마을의 번화가 주변에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프레이 백작의 정부가 곧 정실부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며?"

"안 그래도 내가 아는 지인이 백작 가에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 정실부인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알잖아. 정실부인이 치료도 못할 불치병에 걸렸다는 얘기. 이정도면 오래도 버틴 거지 뭐."

"그보다 정실부인한테 친딸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있기야 했지. 들리는 말로는 납치당해서 그 뒤로 종적이 감춰졌다나 뭐라나. 이미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5년이 지난 지금. 프레이 가에선 단 한 번도 엘리카를 찾지 않았다. 마치 엘리카가 납치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또는 처음부터 쓸모가 없었던 것인지 친부인 프레이 백작은 제 친자식을 단 한 번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찾고 있다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엘리카는 자발적으로 프레이 가에 돌아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저를 찾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돌아가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카는 돌아가길 포기한 상태였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듣게 된, 이제는 얼굴이 까마득한 어머니의 소식이 엘리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프레이 가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일까. 아님 계속 요한의 곁에 남는 것이 옳은 것일까. 두 가지의 갈등이 엘리카를 갈등하게 만들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갈등을 쉽게 선택하게 해주겠끔 요한이 한 쪽으로 등을 떠밀었다.

"이제 돌아가는 게 어때? 네가 있어야할 곳으로. 네가 아무리 우릴 돕는다 해도 넌 결국 뼛속까지 귀족의 피가 흐르는 귀족 아가씨잖아? 우리랑은 영원히 어울릴 순 없는 법이지. 그러니 원래 네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 엘리카."

그의 말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었다. 그와 함께 있다 해도, 그를 돕는다 해도 주변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신분이라는 태생이 달랐고 엘리카는 스스로조차 지워낼 수 없는 프레이 가의 핏줄이었다. 하지만 프레이 가의 핏줄이라 해도 엘리카는 요한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짧으면서도 어쩌면 길지 모를 5년이란 시간 동안 엘리카에게 있어 요한의 존재는 단 한 번도 프레이 가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족을 느끼게 했으며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하는 그야말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친딸이 아닐지언정 그를 아버지처럼 따른 것은 자신이었으며 가끔씩 농담 삼아 ‘아버지’라 부른 것도 그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엘리카는 떠나기 싫다는 거부로 크게 고개를 저었지만 요한의 시선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평소보다 엄숙함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 네가 있어야할 곳으로. 엘리카."

요한이 떠민 등. 그리고 처음부터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호한 냉정함. 결국 엘리카는 요한의 곁을 떠나 프레이 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프레이 가로 돌아가자마자 엘리카를 반긴 것은 그나마 같은 혈육인 구스타프. 그러나 구스타프의 표정은 무사히 살아 돌아온 하나 뿐인 동생을 반기는 오라비의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죽은 게 아니었냐는 의문의 표정을 짓던 얼굴.

실망도 대단한 실망이나 그보다 더한 생각이 든 건, 구스타프가 과연 자신의 오라비가 맞나 싶은 의문이었다. 유일한 같은 혈육이자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 하지만 구스타프가 엘리카를 그저 여동생으로만 인식하는 것처럼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듯, 더 이상 엘리카도 구스타프의 존재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구스타프란 존재가 자신의 오라비인 것이 엘리카는 한심스러웠다.

"오라버니, 어머니는요?"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긴 했으나 구스타프를 신경 쓰는 것보다 엘리카는 어머니의 존재가 가장 신경 쓰였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요한이 직접 그 등을 떠밀지 않았던가. 엘리카에게 있어 정실인 이사벨의 존재는 어머니이나 그저 가엾은 사람으로 인식된 존재일 뿐 사랑을 느끼진 못했다.

엘리카를 낳자마자 불치병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사벨의 지병. 하지만 그 지병 속에서도 그녀에겐 아들이 우선이었는지 언제나 끊기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건, 늘 구스타프였다.

친모를 향한 애정은 없으나 친모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저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지병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카의 처지. 하지만 세상 밖에서 5년을 살아간 엘리카는 변했고 프레이 가의 인식이 바뀐 지도 오래였다. 아니 귀족인 주제에 귀족의 인식이 나쁘게 변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저에요. 엘리카."

5년 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엘리카가 알고 있던 과거의 얼굴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좀 더 생기가 없고 몸이 더 마른 것이 전부일 뿐. 그럼에도 무슨 기대감이 생긴 것일까. 엘리카는 괜스레 아주 실낱같은 기대감을 품으며 그녀의 곁에 서서 조심스레 목소리를 내었지만, 짙은 병 때문일까. 정작 엘리카가 듣고 싶던 대답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엘… 리카? 구스타프 좀 불러주겠니…? 네 오라비한테 할 말이… 있단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모를 5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프레이 가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방을 설명한 건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살아 돌아왔던 말든 상관없이 구스타프만을 찾는 어머니의 존재가 엘리카는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아, 결국 이 사람도 나는 그저 딸로서만 인식할 뿐 구스타프 오라버니에 비하면 내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차라리 바깥에서의 소식을 무시하고 요한의 곁에만 있었더라면 이토록 억울하지도 원망스러운 감정도 솟구치지 않았을 텐데. 엘리카는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으나 돌아가기엔 이미 엘리카는 다시 프레이 가의 귀족이었다.

하지만 엘리카가 프레이 가로 돌아온 이후 프레이 가는 피바람이 부는 폭풍의 시작이 다가온 셈이었다. 저택으로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동안이나 정부인 넬리아와 언쟁을 끊임없이 하던 구스타프. 결국 그 언쟁의 시작으로 그녀가 구스타프의 무엇을 건드렸는지 다음 날, 넬리아는 야밤에 홀로 지독한 술잔을 기울였다는 증거만을 보이며 탁자에 피를 뿜은 채 시퍼런 시체가 되어 죽어 있었다.

넬리아의 죽음과 동시에 그 언쟁을 대놓고 방관하듯 지켜보기만 했던 클라우드는 어머니의 죽음이 구스타프가 일으킨 독살이라며 분노를 터트렸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어미의 죽음에 당연하듯이 분노를 터트린 클라우드와 달리, 그토록 옆에 끼고 살며 넬리아만을 총애하던 프레이 백작은 어째서인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듯이 또 다른 정부를 데리고 집안에 들인 프레이 백작의 모습에 엘리카는 집안이 돌아가는 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빈민촌의 사람보다 더 못한 개돼지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며 개판을 치고 있는 곳임을.

"오라버니, 제게만 말해줘요. 정말로… 오라버니가 아버지의 정부를 독살한건가요?"

프레이 백작이 가장 총애한다던 정부 넬리아. 그러나 그녀는 야밤의 술 한 잔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것도 누군가의 독살로. 모든 정황이 구스타프에게 향한 것은 당연했고, 클라우드 역시 구스타프를 틀림없는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 분노가 너무도 커, 하마터면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뻔도 했었다.

만약 프레이 백작이 넬리아를 독살시킨 진범을 잡겠다고 언급을 했다면 클라우드가 당장이라도 앞장서서 구스타프를 잡았겠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프레이 백작은 진범을 잡지도 잡을 생각조차 없었다. 총애는 했으나 마치 싫증난 인형처럼 관심을 거두어버린 백작의 행동. 때문에 클라우드는 친모를 잃었음에도 백작이 움직이지 않기에 덩달아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잠잠한 클라우드의 행동을 틈타 엘리카는 아무도 없는 사이 구스타프를 찾아가 말을 돌리는 것 없이 직설로 물어보았다. 정말로 오라비가 그녀를 독살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구스타프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그래, 내가 몰래 독을 타 죽여 버렸지. 클라우드도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차지하고 제 마음껏 손에 움직이는 게 누구더냐? 넬리아, 그 정부 년이 아니더냐? 어차피 내가 이 집안의 가주가 되면 당장에라도 치워버릴 존재였다. 그것을 단지 앞당겨 치워냈을 뿐. 그리고 그 년이 어지간히 나를 건드렸어야지?! 날 건드린 말로가 결국은 독살인 것이다."

일말의 후회도 망설임 따윈 없었다는 당당한 고백. 어쩌면 그때부터가 그를 향한 가족이란 정이 털끝만큼 완전히 사라진 계기였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가주’란 자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구스타프와 클라우드가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지 엘리카는 서서히 단순한 관심을 가질 무렵이었다.

프레이 가문으로 돌아와 차차 적응이 된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을 쯤, 또 다른 날벼락의 소식이 엘리카에게 들렸다. 그것은 바로 프레이 백작이 단알 지역을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포문과 더불어 단알의 마을 외곽지역을 최우선으로 빈민 구역을 모조리 밀어버리겠다는 계획.

만약 요한에게 납치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한귀로 듣고 흘려보낼 이야기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요한에게 납치됨으로서 세상을 알고 또 다른 이면적인 현실의 어둠을 두 눈으로 체감한 엘리카는 도저히 한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더욱이 가문의 사병들을 총 동원하여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땅으로 만들겠다는 백작의 모습을 엘리카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엘리카는 당장 프레이 가에서 나와 요한에게 향하려 했으나 그 앞길을 막은 건 다름 아닌 백작의 엄명이었다.

"엘리카, 네 나이가 벌써 열다섯이더구나. 성인이 될 날도 머지않았으니 서둘러 신부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진 집안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이건 엄명이다."

가문의 사병들은 차츰 조를 나누어 대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문의 사용인들도 뒤숭숭한 이 상황에 느슨히 움직이지 않았다. 더불어 화를 방지하고자 최정예 병사들로 하여금 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고자 프레이 백작은 철저히 엘리카의 곁을 감시하게 두었고 엘리카는 그야 말로 꼼짝없이 백작의 손에 인형마냥 그저 도구처럼 가만히 저택을 지켜야만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피가 말리는 것처럼 엘리카는 사용인들 사이에서 속닥이는 바깥의 상항을 은밀히 들을 수 있었다.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작은 구역 쪽의 빈민촌은 이미 백작의 손에 뒤집어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는 동시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다. 그 안도감은 빈민촌이 사라졌다는 감정이 아닌, 요한이 무사하다는 격한 감정.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각 구역에 퍼진 빈민촌들이 점점 사라질 때마다 엘리카는 더 이상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

꼬박 밤을 새며 눈두덩이 밑으로 짙어진 그림자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엘리카는 오직 요한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결국 한 시녀의 소식으로 단숨에 공포로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

"얘!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구스타프 도련님과 클라우드 도련님께 도착한 파발의 말을 몰래 엿들었는데 말이야, 글쎄 백작님께서 벌써 하나 남은 빈민촌 구역을 거의 처리중이라 하시더라고. 근데 그쪽 구역은 조금 애를 먹고 계시는지 검은 복면을 쓴 도적 무리들 때문에 백작님께서 조금 곤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두 도련님이 백작님께 가겠다고 서로 난리를 피우시던걸?"

검을 복면을 쓴 도적. 그것은 누가보아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엘리카는 더 이상 감시자들을 눈치 보며 저택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당장 옷을 갈아입고서 요한이 있는 곳을 향해 나가려 했지만 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엘리카를 찾으며 이사벨이 위중함을 알렸다.

"엘리카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마님께서!!"

어째서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고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일까. 엘리카는 두 갈림길 중 하나만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다. 어머니보다도 요한을 구하고자하는 마음이 가장 앞서 있으나 어디까지나 마음만 앞서 있을 뿐, 정작 몸은 저택에서 꿈쩍없이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리 요한이 우선이고 집안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정을 그에게서 느낀다 해도, 결국 자신의 핏줄이자 근본은 프레이 가문.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친모가 바로 눈앞에 가까이 불치병으로 생사를 달리고 있었다. 제 아무리 어머니란 존재가 오라비 밖에 찾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근본은 그녀요, 그녀의 탯줄로 하여금 태어난 딸이니 엘리카는 끝내 이사벨이 누워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서로 실랑이 끝에 둘 다 저택을 나가버린 구스타프와 클라우드. 결국 이사벨의 곁을 지켜야 하는 건 엘리카 뿐이었다. 더불어 저택의 주치의는 백작이 데려갔기 때문에 급히 마을의 작은 진료소를 꾸리고 있는 의사를 부를 수밖에 없던 엘리카는 조급히 기다려야 했고, 의사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치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진전될 기미가 없는 그녀의 모습에 엘리카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능력함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천운이 따른 것인지, 위독했던 이사벨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면서 의사가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 순간, 엘리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 단숨에 요한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렸고 엘리카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완전히 외각 구역의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이 알려준 샛길을 통하여 빈민촌의 외곽으로 들어선 순간 엘리카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폭도를 진압하듯 무지막지로 빈민촌의 사람들을 제압하는 광경과 시체처럼 쌓인 검은 복면의 도적들. 그리고 수십의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검을 휘두르고 있는 요한의 모습.

아주 찰나의 순간, 엘리카는 얼핏 요한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주친 그 순간이 틀리지 않았다면 요한은 입을 모아 무엇을 말한 것일까. 멀리서 보아 제대로 보이진 않았으나, 그의 눈빛과 입모양을 얼추 짐작해본다면 그것은 엘리카, 자신의 이름이었다.

『엘리카.』

그리고 수십 개의 검이 찔린 요한의 모습. 5년을 함께한 가족과도 같던, 아니… 가족이나 다름없던 요한은 그렇게 엘리카의 바로 눈앞에서 그것도 프레이 사병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다.

프레이 사병들과 백작이 떠날 때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조용히 기다리던 엘리카는 그들이 완전히 떠났을 때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요한이 죽은 그 자리에 멈춰선 순간 엘리카는 제 아버지라는 프레이 백작이 이토록 잔인한 사람임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마치, 권력의 과시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요한의 목을 잘라 장대에 매단 끔찍한 광경.

엘리카는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난생처음 목을 놓아 울었다. 요한을 위해 또 자신의 나약함이 한심하여 흘러내리는 감정이 뒤죽박죽 섞인 짜디짠 눈물. 목이 쉴 만큼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던 엘리카는 마침내 눈물이 끝날 무렵 제자리에서 일어나 얼룩진 얼굴을 훔치며 요한의 시체 앞에 맹세했다.

"그거 알아요? 요한 아저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아버지의 말만 따르는 꼭두각시 인형마냥 저택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 나는 아저씨한테 너무나 고마운 게 많아요. 아저씨는 나를 위해 검술도 알려주고 내가 모른 세상을 알려주었는데 정작 나는 아저씨한테 해준 게 없네요… 하지만 아저씨. 이제부터 내가 아저씨의 의지를 잇겠어요. 아저씨가 뭐라 해도 내가 아저씨를 위해 해줄 일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 편히 눈감아요."

요한의 죽음 이후, 프레이 백작은 빠르게 빈민촌 구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허름한 집들은 모두 허물어버리고 인부들을 고용해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백작은 한 가지 간과 한 것이 있었다. 바로 빈민촌 사람들의 증오. 늘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들이긴 하나, 빈민촌은 결국 그들의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백작의 무자비함으로 터전을 잃게 된 빈민촌 사람들은 처음엔 눈물을 흘렸으나 눈물은 순식간에 증오로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

터전을 잃은 그들에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매번 자신들을 위해 배식소를 열어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준 검은 복면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증오는 컸으나 복수를 할 순 없었다. 그들은 나약했고 손에 무기조차 없었으며 그들을 이끌고 통솔할 리더가 없었으며 막상 나서기엔 미약한 불안이 그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새로운 복면을 쓴 자가 나타났다. 검은 복면이 아닌 붉은 복면을 쓴 여인. 처음엔 어디선가 나타나 함께 뜻을 하자는 그녀의 행동에 몇몇의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으나 그녀가 요한과 함께한 동료임은 물론, 뛰어난 검술실력과 뛰어난 리더의 자질에 감화되어 그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샌가부터 단알에선 특히나 세금으로 모기마냥 피 빨아먹고 사는 소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붉은 도적단. 처음에는 무자비하게 창고를 털어내는 도적과도 같은 행동에 귀족들은 한바탕 뒷골을 잡으며 수배를 때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도통 잡히지 못했다. 그리고 도적이면서도 목표를 삼은 귀족의 저택에 그들은 이 같은 경고장과도 같은 예고장을 남겨 귀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안개가 낀 깊은 밤, 붉은 혁명단이 찾아가리라.』

예고장이 날아온 그 순간부터 귀족들은 벌벌 떨어야만 했고, 그들이 나타났다하면 속수무책으로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털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작은 집단에 불과한 조직이었으나 어느새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붉은 혁명단의 조직은 커졌고 몇몇의 간부급 조직원들을 빼면 붉은 혁명단의 리더에 관해 그 신상을 아는 이는 극히 극소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이제는 어린아이조차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붉은 혁명단 일만큼 붉은 혁명단의 명성은 커졌고, 평민들에겐 그들의 존재는 희망이자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는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귀족들에게 있어서 공포이자 단단히 창고를 걸어 잠가야 하는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엘리카님, 자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직 복면을 쓰고 있음에도 정체를 알고 있는 부하의 물음에 엘리카는 피곤이 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한의 뒤를 이어 붉은 복면의 도적단도 아닌, ‘혁명단’이란 이름을 붙이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엘리카는 조용히 비밀 문을 통해 붉은 혁명단의 거점에서 벗어나 조용히 비밀통로를 통해 프레이 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붉은 복면과 활동복을 숨기는 것이었고 하루 종일 저택에만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조로운 드레스로 갈아 입고나면 엘리카는 영락없는 프레이 가의 공녀 모습이었다.

촛불 하나로 햇빛을 삼아 침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던 엘리카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제는 간부급만이 아닌, 그 밑의 사람들도 어렴풋이 엘리카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으나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라 할 것은 프레이 가의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후계자 자리 때문인지 클라우드와 구스타프의 싸움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서로가 대놓고 칼을 들며 싸우거나, 혹은 대놓고 독을 푼 음식을 선물한다거나.

하지만 그뿐만이 아닌, 프레이 백작의 태도였다. 정부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를 가문의 일원으로 끌어들인 것은 물론, 구스타프와 후계자 싸움을 맹렬히 하고 있음에도 백작은 오히려 방관을 하며 여전히 주색을 밝히기 바빴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우연히 집사와 시녀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엿듣게 된 엘리카는 그들이 주색에 빠진 백작 몰래 가문의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음을 얼마 전에야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집사와 시녀장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러다 모든 사용인들이 사병들이 그들처럼 몰래 저택의 돈이 될 만한 것을 빼돌리기 시작하면 그 뒤의 일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프레이 백작이 후계자를 정하여 집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나 백작의 행동을 보아선 아직까지 후계자를 정할 생각은 눈곱만큼 없어보였다. 더불어 불치병으로 결국 시력까지 잃어 올해를 넘기기엔 무리라는 어머니의 소식까지.

분명 엘리카는 후계자 자리에 연관되지도 않은 프레이 가의 막내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엘리카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결국 집안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붉은 혁명단을 위해서라도 귀족 가문들의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싫어도 몰래 백작의 문서들을 빼돌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카는 평소처럼 저녁이 될 쯤, 붉은 복면을 쓰고 붉은 혁명단의 거점을 가기 위해 외출을 준비하려던 찰나였다. 쾅하고 터지는 괴음소리가 들린 동시에 집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에 엘리카는 서둘러 다시 옷을 갈아입고서 복도로 나가야만 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눈앞에 들이닥친 낮선 갑옷을 입은 병사들의 모습과 방패에 그려진 익숙한 무늬를 본 순간, 엘리카는 그들의 정체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 단알로 침범한 것이었다.

무자비로 사용인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 곡식이 쌓인 창고와 금은보화들이 가득한 또 다른 창고를 뒤져가며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은 인정사정없이 프레이 가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집안만 뒤집어 놓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그들은 프레이 백작을 짐짝처럼 끌고 가 혹시라도 집안사람들 모두가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백작의 목을 쳐내버렸다.

허무하게 목이 잘린 프레이 백작의 현재까지의 삶. 평생 주색잡기에 빠져 죽을 때까지 여인을 옆에 끼고 살 거라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백작의 최후는 허무히 끝나고 만 것이다. 백작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인질이 된 구스타프와 클라우드의 행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꼼짝없이 감시를 당하며 침실바깥으로 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인질이 되었음에도 엘리카에겐 많은 제약이 없었다.

일단 그들에겐 인질로서의 가치는 크게 없었고, 그들에겐 당연하듯이 백작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두 형제 중 한명이라 생각했기에 아무런 힘조차 없는 프레이 가의 막내딸인 엘리카를 크게 신경 쓸 여력 따윈 없었다.

덕분에 감시를 잘 피해 다닐 가능성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이 완전히 단알의 땅을 흡수하고 거점으로 삼고자 무차별한 학살을 시작한 것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만 해도 그들은 인정사정없이 죽이는 인물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과연 단알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있을까?

가장 몬테올 왕국의 국경과 가깝던 요새를 가뿐히 침략한 이후, 그들의 목표는 요새에서, 단알의 영지를 관리하는 프레이 백작가였으며 그 다음의 목표는 단알의 땅이자 최종 목표는 왕성이 있는 수도의 땅이었다. 거칠 것 없이 계속해서 단알의 땅을 밟으며 진격하는 적국의 병사들과 힘조차 제대로 쓸 틈도 없이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프레이 가의 사병들. 프레이 가의 사병뿐만이 아닌, 왕성에서 보내진 치안 유지대와 요새의 병사들까지 이미 그들의 손에 인질이 되거나 죽음을 맞이한 지 오래였다.

프레이 가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엘리카에겐 요한의 뒤를 잇는 현재의 대의가 중요했다. 이대로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다간 단알의 모든 사람들이 몬테올 병사들에게 죽을 것이고, 결국 프레이 백작이 저지른 그때처럼 빈민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몰아닥칠지도 몰랐다. 몬테올 왕국에게 빼앗긴 단알의 땅과 갈 곳은 물론 땅조차 잃은 단알의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붉은 혁명단이 아니던가.

엘리카는 아직 그들이 찾아내지 못한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감시를 피해 저택을 빠져나가 혁명단의 거점을 찾아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하들에게 엘리카는 이 시간이후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전달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귀족이 아닌, 몬테올 왕국의 병사들 손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이 땅을 되찾는 것이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절대로 우리의 존재 여부를 잊어선 안 될 거다."

구스타프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그저 멍청히 침실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두 오라비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실에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할 테지만, 왕실의 병력을 기다리기엔 1분 1초라도 엘리카에겐 촉박한 시간이었다.

엘리카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한 후, 다시 프레이 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음 같아선 그들의 뒤를 따라 몬테올 병사들의 손에서 단알의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었으나 멀리 움직이기엔 엘리카의 처지는 좋지 못했다. 아무리 몬테올 왕국의 관심 받지 못한 인질의 처지라 해도, 결국 귀족이며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였다. 항시 자리를 비울수도 없는 탓에 엘리카는 다시 돌아가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실에만 처박혀 관망하듯 혁명단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엘리카는 슬슬 지쳐가고 있을 쯤 이었다.

단알의 사람을 2명 구한다 하면 혁명단의 사람을 5명이나 잃는 상황. 또한 인력이 부족한 와중에도 혁명단의 소식은 곳곳에 퍼져 몬테올 병사들의 사기를 조금이나마 떨어트린 것에 한몫을 할 수 있었으며 드디어 왕실에서 보낸 병력들이 단알의 땅에 도착하면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단알로 시작된 왕국과 왕국과의 전쟁. 한번 전쟁이 시작된 이상 그 어느 쪽이든 막심한 피해를 지나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번 전쟁을 위해 몬테올 왕국은 단단히 준비를 한 것인지 본국에서 병력을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밀리지 않는 적국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기세가 워낙 드높아 정말로 본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밀리고 있을 쯤, 무슨 일인지 몬테올 왕국의 사브레 왕국의 전쟁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쟁처럼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원인조차 모를 정도로 몬테올 왕국은 병력을 서둘러 후퇴를 시켰고, 덕분에 전쟁은 허무히 끝났으나 전쟁이 끝났다 해도 결국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입은 쪽은 사브레 왕국이자 단알의 땅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집과 땅을 잃은 피난민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바다처럼 쌓이고 쌓인 전쟁 속 피해의 시체들까지. 엘리카는 인질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혁명단의 활동을 하고자 움직이려 했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또 다른 전쟁에 엘리카는 구스타프와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빈틈을 노린 클라우드의 폭동. 분명 몬테올 왕국의 감시 하에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한 신세였을 텐데 무슨 수로 프레이 가의 사병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는지 클라우드가 완전히 집안을 장악하고자 사병들을 움직였다. 하지만 늘 클라우드를 경계하며 언제나 아니꼽게 생각하고 있던 구스타프는 심상치 않은 직감을 느낀 덕분에 무사히 클라우드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엘리카는 오라비와 함께 도망쳤음에도 딱 한명만은 함께 도망칠 수 없었다.

바로, 이사벨. 어머니의 존재.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었던지라 병상에 누워 있는 그녀를 챙길 수도 없이 저택을 빠져나가야만 했던 남매였으나 그럼에도 엘리카는 그녀를 구하고자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려 했다.

"미쳤어?! 가긴 어딜 가! 지금 네가 가면 클라우드 그 새끼가 널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하지만 오라버니! 어머니가 아직 저택에 계시잖아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우리끼리 도망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라도 도망쳐야 해! 우린 프레이 가의 직계 혈통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아?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네가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저택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 어머니도 우릴 이해해주실거다."

이해해준다고? 병상에 매일같이 누워 언제 죽을지 그저 죽음의 사신을 기다리는 그녀였다. 더불어 아무리 딸에 무관심한 어머니라 해도, 아들만큼은 끔찍이 생각하는 그녀가 아니던가.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란 오라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하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지만 저택을 빠져 나간 지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날. 엘리카는 저택에서 클라우드가 보낸 사병에게서 끔찍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아니… 클라우드 오라버니가 어머니를 어쨌다고?"

전쟁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던 건지도 몰랐다. 구스타프가 벌인 복수를 지금에서야 시행한 것인지 사병이 말한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척이나 끔찍했다. 클라우드는 어쩌면 구스타프보다 더 잔악무도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었다. 피가 이어진 친모는 아닐지언정 병상에 있던 어머니는 넬리아처럼 적개심을 보이며 클라우드를 배척하지 않았다.

물론 불치병을 가진 아픈 사람이기에 클라우드를 일일이 신경 쓸 틈 따윈 없었겠으나 그래도 구스타프와 함께 있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클라우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였다. 그런데 올해 넘기기도 어렵다는 아픈 사람을, 클라우드는 가차 없이 목을 베어냈다고 했다.

그 소식을 곁에서 함께 들은 구스타프는 당연히 분노를 표하며 당장에라도 클라우드를 죽일 기세로 이를 갈았고 그런 오라비의 행동을 보며 엘리카는 그나마 안도했었다. 오라비도 아직 완전한 막장이 아님을.

"클라우드 이 새끼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서자 따위가 내 어머니를 죽여?! 기필코 용서치 않아! 내 어머니를 죽인 그 새끼를 반드시 내 손에 잡아 도륙을 내버리겠어!!"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형제의 전쟁. 엘리카는 구스타프와 함께 있음에도 오히려 형제끼리 원수 보듯 전쟁을 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사라질지 모를 단알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다. 자신들은 귀족이고 따른 사병들도 있기에 숨겨둔 곡식이나 비상시에 쓸 금덩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하지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평민들은 달랐다. 그들의 수중에는 당장 필요한 돈도 먹을 것조차 없었으며 전쟁 다음으로 언제 굶어죽을지 모를 배고픔이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 결국 그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엘리카는 크게 결심을 하고서 구스타프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오라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클라우드 오라버니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단알은 이제 막 몬테올 왕국의 손에서 벗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땅을 당장 단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구시켜야만 해요. 지금 당장 마을에 내려가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천지라고요!!"

하지만 후계자 자리가 최우선이고 단알이 그 다음의 일인 것처럼 구스타프는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려는 엘리카에게 화를 냈다.

"지금 네 까짓 게 나를 가르쳐들려는 것이냐!? 엘리카! 그딴 일은 내가 프레이 가의 가주가 되어도 늦지 않단 말이다! 지금 당장 내겐 클라우드를 저택에서 끌어내,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가주의 자리에 앉는 일이 더 시급하단 것을 어찌 넌 모르는 것이야?!"

무엇을? 무엇을 자신이 모르고 있단 말인가? 오히려 모르는 건 구스타프였다. 제 사리사욕만 알고 이기적일 뿐. 단 한 번도 자신을 챙겨주긴 커녕 오라비로서 무언가를 보여준 적도 없는 욕심이 그득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토록 가주가 되고자 제 자신 밖에 모르는데 정말로 클라우드를 몰아내고 프레이 가주가 된다면 어쩌면, 먼저 죽은 프레이 백작보다 더 심하거나 못한 가주가 될지도 몰랐다.

"오라버니는 절대로 가주가 되어선 안 돼. 차라리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잠깐… 나는 가주가 될 수 없는 건가? 내가 가주만 될 수 있다면..."

왜 불현 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자 제 자신에게 조차 물어본 적 없는 물음이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여자이기에, 또한 프레이 가의 힘이 되어줄 혼인용의 도구이기에 엘리카는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여인의 몸으로 가주의 자리를 잇는 귀족가의 공녀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불가능할지 모를 꿈. 하지만 엘리카는 그 꿈을 이뤄내고 싶었다. 그저 제 사리사욕으로 탐을 내는 가주의 자리가 아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썩어빠진 프레이 백작가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단알을 위해서라도.

그때부터 엘리카는 구스타프도 클라우드도 모를 가주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설령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엘리카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 단알을 위해선 구스타프와 클라우드의 존재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왕녀전하께 드릴 수 있는 저의 모든 이야기는. 저는 단알을 위해서라면 제 유일한 형제인 오라버니의 목숨까지 거두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선 이런 제가 미치거나 잔인해 보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두 오라버니의 지나친 욕심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피해까지 입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건가요?”

헤르세인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무릎위로 가지런히 주먹을 쥐며 떨고 있는 엘리카의 모습을 뚫어지도록 보았다. 만약, 그녀가 여인이 아닌 사내로 태어났다면 그녀는 누구보다 가주의 자리에 어울리는 후계자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물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프레이 백작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프레이 가문은 제자리걸음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사내가 아닌 여인으로 태어났고 그 누구보다 일찍이 철든 동시에 두 형제조차 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눈을 그녀는 직접 깨우치고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끝내 그녀는 피가 묻은 검을 직접 들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 이렇게라도 형제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 원망과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

정부, 넬리아에게서 태어난 서자라 할지라도 결국 클라우드 역시 프레이 백작의 피가 반이나 섞인 엘리카의 오라비였다. 그리고 반쪽의 피가 섞인 오라비를 죽인 엘리카는 자책을 하면서도 이 행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옳고 그름. 헤르세인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할지 당당히 선택할 수 없었다. 엘리카처럼 단알을 위한 대의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은 단순한 복수를 위한 길을 선택하며 친인척이나 다름없는 윌리스 왕태자의 목에 현재 검을 겨누고 있지 않던가. 윌리스 역시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목을 겨누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누가 먼저 왕좌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왕좌를 차지한 쪽이 살아남는 것이고, 차지하지 못한 쪽이 죽음뿐인 싸움.

헤르세인은 떨고 있는 그녀의 손등위로 제 손을 덮으며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엘리카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옳았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네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정한 신념 그대로 나아가면 되니까. 물론, 실수는 하겠지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 따윈 없었다. 누구나 다 흠을 가진 것은 물론,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하지만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을 이끌고 다스리려는 사람일수록 실수는 범할 수 없었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고 쫓아야 했으며 실수조차 그것을 당당함과 배포로 물들여야 하는 것이 왕의 재목이 아닌가. 한낱 가주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주의 자리도 결국 가문을 이끄는 왕의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헤르세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자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것도 없이 무릎 아래에 있는 엘리카에게 손을 내밀었다.

“엘리카.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내가 증명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해주도록 하겠어요. 당신의 오라비인 구스타프가 아닌, 엘리카 당신을 프레이 가의 다음 가주의 자리에 앉도록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요. 그러니 당신이 그 자리에 앉고 나면 그 후에 나를 도와줬으면 해요. 내가 윌리스 왕태자를 밀어내고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복수를 위해 왕을 꿈꾸는 여인과 한 사람이 이뤄내지 못한 대의를 잇고자 가주의 자리를 꿈꾸는 여인. 헤르세인과 엘리카는 불가능의 꿈을 이뤄내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간밤에 붉은 혁명단이 프레이 가를 흠신 뒤집어 놓았다는 소식과 함께 클라우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침이 돼서야 들은 구스타프는 이것이 웬 횡재인가 싶었다. 클라우드가 죽음으로서 프레이 가의 유일한 후계자는 오직 한명 뿐. 그리고 지금 프레이 가는 한 마디로 주인 없는 무방비의 저택이나 다름없었다. 구스타프는 당장에라도 사병들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또 다른 소식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붉은 혁명단이 헤르세인 왕녀를 납치해갔다? 이 말이지?”

“예, 도련님.”

붉은 혁명단과 헤르세인 왕녀 사이에는 직접적인 만남도 없었고 붉은 혁명단은 그야말로 단알에선 유명한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들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무리가 커지고 귀족들을 상대로 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설마, 그들이 그것도 왕실의 사람을 건들 줄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좋은 기회. 구스타프에겐 이미 윌리스 왕태자가 보낸 명령이 있었다. 헤르세인 왕녀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윌리스 왕태자가 시킨 독살이 아닌 어느 사건에 연류 된 피해자로 만드는 것. 언제쯤 윌리스 왕태자의 명령을 시행할지 고민하던 찰나, 그 고민을 해결해주듯 붉은 혁명단이 알아서 처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손 놓고 일을 해결한 꼴이니 구스타프는 기고만장한 웃음을 피우며 부하에게 다음 명령을 전달했다.

“지금부터 우린,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프레이 저택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클라우드가 죽었으니 그 저택의 주인이 누구겠느냐. 나 말고 없다는 소리이지. 그레이스 후작과도 만나 왕녀의 일을 논의해야하니, 서둘러 사병들에게 주변 정리할 것을 알려라.”

“알겠습니다.”

드디어 가주의 자리가 눈앞이었다. 평생을 원하고 반드시 자신만이 앉아야 그 가치가 있을 가주의 자리. 구스타프에겐 가주의 자리는 지금까지의 달려온 인생이자 권력의 정점일 야망의 자리이기도 했다.

“아, 그러고 보니 엘리카는 아직 자고 있는 것이냐?”

천막을 이제 막 나가려던 부하를 붙잡아 엘리카의 소식을 묻는 구스타프의 목소리에 부하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대답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엘리카 아가씨의 천막을 지키고 있던 병사의 말로는 이미 새벽부터 자리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보나마나 사병들을 치료한답시고 어디 약초나 구하러 간 거겠지. 엘리카가 도착하거든 바로 프레이 저택으로 돌아오라 전해라.”

“알겠습니다, 도련님.”

엘리카의 관심은 이미 구스타프의 머릿속에 사라진지 오래였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가주의 자리와 프레이 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뿐. 구스타프 역시 주변 정리를 위해 평소보다 서두른 몸짓으로 바삐 움직였다.

처음엔 그녀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엘리카는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제 앞으로 내밀어진 손과 가주의 자리의 약속. 그리고 감히 그 누구도 뱉어낼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일지 모를 왕좌의 자리. 엘리카는 가주의 자리를 약속한 헤르세인의 언급보다 오히려 왕좌의 자리에 앉겠다는 그녀의 발언이 너무나 인상 깊어 그 말을 빼면 그 전의 이야기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왕좌에… 앉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나 자신이 들은 것이 환청인가 싶어 엘리카는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청이 아닌 똑같은 대답이었다.

“난, 이 왕국의 주인이 될 겁니다. 내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 고작 한 단어임에도 그 의미는 거칠고 사나웠으며 그 언급만으로도 복수를 토해낸 자의 눈빛은 열렬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누군가인지 아님, 책에서 인지 알 수 없으나 엘리카는 그 구절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라는 말. 그럴 싸 해보이면서도 복수심에 불탄 자들은 하나의 복수를 위해 뼈를 깎고 증오를 불태우며 지옥의 길을 걷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복수할 대상이 없는 제3자의 입장은 달랐다. 복수할 대상은커녕 증오심도 뼈를 깎는 불같은 화가 없으니 그들이 보기엔 복수란 단어는 이질적이고 복수에 눈이 먼 자들이 그저 가여우면서도 복수란 단어를 강제로 내려놓길 바랐다.

제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해도, 가족이라 해도 한번 복수를 품은 사람을 말릴 방도는 없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은 편할지 몰라도 그건 복수를 품은 상대의 고통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뱉어낼 수 있는 말이었다. 정작 복수를 짊어진 상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억 누른지도 모른 채.

그래서 엘리카는 함부로 그 말을 헤르세인에게 전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겪은 헤르세인의 고통을 엘리카는 겪어보지 않았으며 그녀의 상처역시 엘리카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왕좌이듯 엘리카에게도 가주의 자리는 중요했다. 불가능할지라도 그녀를 보고 있자면 불가능이 가능처럼 보였다. 여인도 왕이 되고, 가주가 될 수 있음을.

엘리카는 서서히 손을 뻗어 헤르세인이 내민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이끌어주듯 손에서 느껴지는 아주 작지만 놓을 수 없는 단단한 힘. 엘리카는 완전히 제자리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총명한 눈으로 헤르세인을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저, 엘리카 밀스 프레이가 가주의 자리에 앉는다면 제 가문이 멸문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 전하께서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양면물신 돕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카의 눈빛을 보는 순간, 헤르세인은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음을 직감했지만 이름과 가문까지 걸어 맹세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조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맹세만큼 헤르세인도 물러설 순 없었다. 그녀를 잡고 있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어 헤르세인도 엘리카를 향해 맹세했다.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걸고 나 역시 맹세하겠습니다. 나,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은 왕좌의 자리에 앉는다면 지금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다시 단알의 땅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프레이 가문과 협력해 피난민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한 지원을 보낼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단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위해 그대가 무사히 가주의 자리에 앉는다면 수도로 불러 귀족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주도록 하지요.”

“예? 저, 전하 그건─!”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자신을 가주의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만으로도 엘리카에겐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제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가주의 자리 뿐 만이 아닌, 귀족회의에 참석한 권한까지 선뜻 주겠다는 헤르세인의 제안에 이젠 놀랍기보단 무서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왜 그렇게 놀라냐는 차분한 표정으로 엘리카에게 물었다.

“그렇게 놀랄 정도인가요? 가주의 자리에 앉은 이상, 귀족회의에 참석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이 가주의 자리에 앉은 순간 오히려 떳떳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지 선례가 없었을 뿐이지 여인이 가주의 자리에 앉는다하여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당신의 혈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오라비인 구스타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기에 가주의 자리에 합당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나 역시 앞으로도 계속 떳떳이 행동할 생각이에요. 고작 왕녀란 이유만으로 내가 왕좌에 앉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헤르세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그저 선례만 없을 뿐이지 들리는 어딘가의 이야기론 저 멀리 또 다른 대륙에선 여인이 당연히 왕이 되거나 또는 여인이 집안의 가주가 되어 가문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인들의 권력이 최우선인 나라 또한 있다고 얼핏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어쩌면 최초의 선례가 이 사브레 왕국에서 깨질지도 몰랐다. 최초로 왕녀가 왕좌에 앉는 것은 물론이오, 후계자의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귀족가의 공녀가 한 가문의 가주가 된다는 것. 비록 서로가 바라는 이상과 꿈은 달랐으나 헤르세인도 엘리카도 하나의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목표는 똑같은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동맹은 맺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의 계획은 또 있는 건가요?”

맹세로 맺어진 두 손이 떨어지며 헤르세인은 다음 계획을 물었다. 그리고 이미 다음 계획이 정해져 있었는지 엘리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제 다음 계획은 바로 지금쯤 프레이 저택에 돌아와 있을… 제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저택에 도착하면 그때 다시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 증거가 오라버니의 손에 있으니까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선 엘리카가 말을 아끼고 있음을 알기에 헤르세인은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다행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헤르세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엘리카는 한쪽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하께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하를 납치해 송구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으나 그래도 잊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엘리카의 태도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짜고짜 납치한 것은 당연한 문제될 일이나 그녀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냥 용서를 받아주기 보단 그래도 벌은 줘야겠다 생각했기에 헤르세인은 용서는 받되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는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날 납치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마 저택에 남아 있을 그레이스 후작은 지금쯤 피 말리도록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택에 무사히 돌아간다면 당신에게 내릴 벌은 그때 생각하도록 하지요.”

“예, 전하.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엘리카 공녀. 이제 그만 프레이 가의 저택으로 돌아가지요.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을 테니까.”

헤르세인이 납치된 이후, 그레이스 후작은 심란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다. 설마 붉은 혁명단이 왕녀를 납치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 방심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헤르세인이 납치당하고 그레이스 후작은 곧바로 사위인 길버트에게 가문의 사병들과 기사들을 동원하여 왕녀를 찾을 것을 명령했지만, 대체 어디로 꼭꼭 숨은 것인지 밤이 지나고, 새벽이지나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왔음에도 아직까지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대로 왕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 카타리아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헤르세인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던 카타리아 왕후가 아니던가. 이 소식이 왕실에 닿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패배의 길이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힘이 되어준 의미가 없었다.

그레이스 후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르세인을 찾고자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꾼에게 몇 번이고 소식을 반복적으로 물어야만 했다.

“아직도 길버트에게선 소식이 없는 것이냐?”

“예, 후작각하. 아직까지 소가주님께서 전달하신 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왕실에 소식이 닿기라도 하면 큰일일터인데… 어찌 이런….”

그때, 문을 열고 프레이 저택의 시녀가 그레이스 후작에게 다른 소식을 전하고자 다가왔다.

“후작각하.”

“무슨 일이지?”

“구스타프 공자께서 저택에 도착하셨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저택을 차지하고 있던 실세가 붉은 혁명단의 손에 죽었으니 또 다른 실세가 되고자 하는 야망어린 프레이 가의 또 다른 핏줄이 이틈을 놓칠 리가 없었다. 아무리 낳은 생모가 다른 형제지간이라 하지만, 역시 프레이 백작의 핏줄인지 권력욕을 향한 탐욕은 두 형제 모두가 똑같았다.

그레이스 후작은 자신의 호위 기사들을 이끌고 벌써 저택 내의 정문에 기다리고 있는 구스타프를 볼 수 있었다. 그저 정문에 서 있는 것 뿐 임에도 얼마나 입이 귀에 걸려 있는지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하고 사람 보는 눈을 길러온 그레이스 후작의 눈엔 그것이 빤히 보였다.

“완전히 사병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인가?”

“물론입니다. 더 이상 싸울 상대도 없을뿐더러 가문의 사병들을 계속 그곳에 내버려둘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레이스 후작각하. 제 형… 아니, 그 서자 놈 하나 때문에 왕녀전하께서 납치를 당하셨다지요? 제가 곁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왕녀전하가 이곳에 오심으로서 이 부근의 굶어죽는 피난민들과 고아들, 그리고 저의 가문의 사병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입은 처지이니 부디 저도 전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가문의 사병들을 총 동원하여 전하를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말상대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레이스 후작은 프레이 가문의 사병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헤르세인의 행방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서둘러 사병들을 움직여 헤르세인을 찾고자 구스타프가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 굳게 닫혀 있던 정문이 열리면서 프레이 가문의 사병 중 한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허겁지겁 소식을 전달했다.

“크, 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문 앞에 에, 엘리카 아가씨랑 헤, 헤르세인 왕녀전하가─!”

하지만 사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정문의 문을 통과하여 저택 안으로 들어선 헤르세인은 동그랗게 커진 눈을 하며 거의 울먹이려는 그레이스 후작에게 자신이 무사함을 알려야 했다.

“그레이스 후작.”

“왕녀전하! 무사하셨습니까?!”

격한 그레이스 후작의 반가움도 잠시, 헤르세인은 잠시 손을 올려 그를 제지하는 동시에 바로 곁에 있던 엘리카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엘리카가 한발자국 나옴으로서 상황은 엘리카에게 집중되었다.

“구스타프 오라버니.”

“엘리카?”

“오늘 이후로 이 프레이 가의 가주는 오라버니가 아닌, 저 엘리카 밀스 프레이입니다. 그러니 오라버니.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드리죠. 클라우드 오라버니처럼 제 손까지 가지 않도록 오라버니가 순순히 제게 가주의 자리를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구스타프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동생의 입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던 가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단 말인가. 하지만 표정하나 없는 얼굴이며 다시 한 번 자신이 가주가 되겠다며 제게 자비를 보이는 모습은 물론, 은근한 협박에 구스타프는 엘리카가 실성한 것이라 여겼다.

“엄연히 가주의 자리는 내 자리거늘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내게 물러나라마라 하는 것이냐?! 엘리카! 실성이라도 한 것이냐? 가주의 자리는 내 자리고! 내 운명이다! 근데 네까짓 게 감히 이 오라비한테 물러나라 마라 명령하는 것이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머니와 한 배에서 태어난 오라버니의 형제이자 여동생으로서 말씀드리는 제 마지막 자비입니다. 클라우드 오라버니처럼 오라버니만큼은 제 손까지 닿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프레이 가의 사병들이 웅성거리는 동시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갈라진 그 틈 사이의 길로 붉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어느새 엘리카의 든든한 등나무가 되어주듯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명령 하나로 이곳을 피바다로 또는 핏방울 하나조차 없는 평화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순간.

하지만 붉은 혁명단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본 구스타프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엘리카에게 설명한 곳을 요구했다.

“지금 이게… 어째서 저들이 네 뒤를 버티고 서 있는 거지? 엘리카! 어서 내게 설명해라! 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라버니는 이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할게요. 제가 이들과 함께 클라우드 오라버니를 어떻게 했는지.”

“그럼 설마… 클라우드를 네가…?”

드디어 무언가 안 맞던 퍼즐이 맞아 떨어졌는지 구스타프는 도무지 믿기지 않은 눈으로 엘리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저 할 줄 아는 것이 바느질과 다친 사병들을 치료해주는 것 빼곤 재주 따위 없는 여동생으로만 여겼던 구스타프였다. 그나마 같은 핏줄이기에 여동생으로서만 인식하고 프레이 가의 존속을 위한 타 가문과의 혼인을 빙자한 도구로서만 여겼을 뿐, 구스타프에게 있어서 엘리카의 존재는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거하게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구스타프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엘리카는 과연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그 엘리카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과 함께.

“두 오라버니가 서로 물고 뜯으며 오랫동안 가주의 자리에만 눈에 멀고 있을 사이, 저는 단알을 위해 움직였어요. 아버지인 프레이 백작조차 외면한 단알의 빈민들을 위해 움직였고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자 붉은 혁명단을 만들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붉은 혁명단만으론 그들을 온전히 보듬어 줄 수는 없었죠. 어째서인지 아나요? 본래라면 프레이의 가주가 해야 할 일들이었음에도 가주는 전혀 단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만으로도 족했으니까. 그러니 오라버니도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습니다. 저 역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물러날 것 같아?! 오랫동안 바라고 또 바랐던 자리다! 네가 어떤 바람이 불어 가주의 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만 처음부터 프레이 가주의 자리는 내 것이었어! 엘리카! 네가 아무리 하나 뿐인 내 동생이라 해도 그깟 혈육의 정 따위로 널 봐주거나 하지 않을 거다! 네가 가주의 자리를 노린다면 너는 내 적일 뿐이다!!”

야망과 욕심. 그리고 가주의 자리를 절대로 차지하겠다는 구스타프의 오랜 집착은 끊어낼 수 없었다. 결국 가주의 자리를 택하겠다는 구스타프의 모습에 엘리카는 작게 숨을 토하며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헤르세인에게 청했다.

“전하. 제가 이곳에 도착하면 다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헤르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엘리카는 다시 고개를 틀어 정확히 구스타프를 본 다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다.

“모두, 오라버니를 단단히 붙잡도록.”

엘리카의 명령이 떨어지자 붉은 혁명단들이 손을 모아 구스타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박을 했고, 갑작스럽게 온몸이 포박된 구스타프는 바짝 경계심이 오른 것은 물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잡았다는 것에 오히려 화가 났는지 엘리카에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구스타프가 얼마나 화를 내던, 소리를 지리던 엘리카는 상관없다는 얼굴로 구스타프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구스타프의 품을 뒤져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쪽지를 꺼내어 그가 보는 바로 앞에 엘리카는 쪽지의 형태를 확인시켜주듯 보여주었다.

“그거 아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클라우드 오라버니랑 다르게 비밀을 반드시 태우는 것이 아닌, 본인 품에 꽁꽁 숨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요.”

“아, 안 돼! 그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구스타프는 단숨에 사색이 되어 도리질을 쳤지만 이미 엘리카의 손에선 쪽지가 떠난 후였다. 그녀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은 헤르세인은 차분한 눈으로 쪽지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렸다.

“프레이 가의 차남인 구스타프 공자에게. 이 전서구를 받은 즉시 불태울 것은 물론, 나의 엄명을 받아 그대의 땅을 밟고 있는 헤르세인 왕녀를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을 것. 또한 철저히 독살이나, 암살로 위장하여 왕실이 관여한 일이 아님을 증명할 것. 이 일이 성공할 시, 나 윌리스 왕태자의 이름으로 그대를 진정한 프레이 가문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혹시나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은지 그 증거가 헤르세인의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헤르세인이 쪽지에 적힌 글을 읽는 동시에 곁에 있던 그레이스 후작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구스타프를 보며 마른입을 뗐다.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 뒷공작을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하, 아마 그 쪽지를 보낸 것은 윌리스 왕태자가 아닌 카타리아 왕후일 것입니다. 아무리 왕좌의 자리가 탐나고 급할지라도 윌리스 왕태자의 성정으론 이렇게 뒤에서 일을 꾸밀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제 아들이 왕좌에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는 카타리아 왕후의 입장은 다르지요. 지금당장 급하고 전하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이는 그녀이니까요.”

“예,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윌리스 왕태자가 보낸 것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이 일 덕분에 윌리스 왕태자와 왕후의 발을 묶을 증거가 손에 들어온 셈입니다.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리해진 상황이 온다면 이 증거를 쓸 생각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을 후작께서 보관해주셨으면 합니다.”

헤르세인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은 후작은 펼쳐져 있던 쪽지를 고이 접어 품속에 단단히 빠지지 않도록 집어넣었다. 단알에 와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긴 했으나 헤르세인은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던 아니던, 결과적으로 쪽지의 내용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엘리카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다. 쪽지는 클라우드와 구스타프에게만 전해졌다 해도, 결국 두 사람이 없으면 당장의 가문의 실세는 그녀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자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엘리카를 향해 물었다.

“엘리카 공녀, 한 가지 묻죠. 쪽지의 글처럼 나를 독살하거나 암살할 기회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붉은 혁명단의 힘으로 두 오라비를 밀어내고 당신은 나를 제물로 하여금 가문의 힘을 얻을 기회도 있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요. 어째서인가요?”

납치문제와는 별개로 엘리카에게 있어,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엘리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가 전하를 납치한 것은 사실이나 감히 전하를 죽일 생각은 털끝만큼 없었습니다. 전하를 죽이는 것보다 저는 전하를 인질로 하여금 왕실과 거래하는 것이 더 당장 이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또, 클라우드 오라버니와 구스타프 오라버니의 싸움으로 저까지 끼어 그 피해를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납치를 당하고 사실을 말한 시점에서부터 헤르세인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저 어째서인지 두 오라비들처럼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만 있었을 뿐. 헤르세인은 빠르게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리고 정리를 끝내며 엘리카에게 프레이 가의 일을 전적으로 맡길 것을 임명했다.

“지금 상황으로서 봐선 프레이 가문은 물론, 단알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은 엘리카 공녀뿐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알을 안정시키는 것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을 돕는 것. 이 일은 그레이스 후작과 내가 끝까지 도울 테니 엘리카 공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

“날 암살하라는 쪽지를 받아 그것을 숨긴 프레이 가의 차남, 구스타프 리본 프레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나 당장 단알은 힘든 상황이고 나를 암살 하는 것뿐만이 아닌, 가문내의 전쟁을 일으킨 형제의 죄가 크니, 이 일은 전적으로 프레이 가문에서 해결할 일인 것으로 생각되어 프레이 공자에 대한 처분은 엘리카 공녀, 당신의 손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 그 일이 끝나면 가주의 자리는 엘리카 공녀, 당신의 것입니다.”

혹시나 엘리카가 혈육이란 정에 망설이지 않을까하여 헤르세인은 하루라는 시간의 배려를 주었지만 정작 엘리카는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고 선택을 했는지 시간을 기다릴 것 없이 날카로운 검을 들어 구스타프의 앞으로 바짝 섰다.

“구스타프 오라버니.”

“에, 엘리카! 서, 설마 이 오라비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검 한번 못 잡아 본 네가 어떻게 나를―!”

“제가 정말로 검 한번 못 잡아 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라버니. 사병들을 치료하면서 묻은 피보다 제가 내려친 검에 물든 피가 더 많아요. 오라버니. 그리고 오라버니는 결국 끝까지 가주의 자리를 놓지 못하셨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저는 보여요. 오라버니가 얼마나 가주의 자리를 원하는지.”

“에, 엘리카. 우, 우리… 말로 하자꾸나… 아무리 그래도 우린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지 않느냐! 그래! 내가 가주가 되면 네가 키워낸 붉은 혁명단을 이용해서 우리 함께 단알을──.”

결심한 엘리카의 손짓에는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클라우드를 보낸 것처럼 구스타프 역시 엘리카는 제 손으로 마지막 혈육을 완전히 끊어내 버렸다. 구스타프의 피로 얼룩진 검과 허무하게 눈을 감아버린 오라비의 모습까지. 엘리카는 검을 거두며 씁쓸히 속삭였다.

“오라버니에게 용서를 빌진 않겠어요. 하지만 오라버니… 붉은 혁명단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단알을 지키고자 칼을 든 평범한 이들이니까요.”

구스타프의 죽음으로 프레이 가의 형제의 싸움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리고 프레이 가문으로 시작되어 엘리카의 단합으로 만들어진 붉은 혁명단 역시, 더 이상 도적질을 하고 귀족들에게 검을 빼드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화와 안정을 바란 단알의 사람들이었을 뿐.

헤르세인은 망설임 없이 오라비를 죽인 엘리카를 위로하지도, 그렇다고 격려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녀 가문의 일이었고 이 일 역시 그녀가 짊어져야할 가주로서의 무게였다. 새로운 프레이 가주의 탄생과 사브레 왕국의 최초로 여 가주이자 백작이 될지 모를 존재. 물론 왕실에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리는 없었다.

하지만 당장 프레이 가문은 가주가 절실했고 안정이 필요했으며 누구보다 단알의 사정을 빠삭히 아는 자가 절실했다. 더불어 프레이 가의 피를 이은 친인척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단알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엘리카 만큼 가주의 자리에 앉을 인물인지 판단을 한 틈도 없었다. 더불어 헤르세인과 엘리카는 서로의 뜻을 모아 동맹을 맺은 상태. 헤르세인은 엘리카를 전적으로 도울 생각이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또 다른 가문의 힘을 얻을 생각이었다.

이제 두 걸음. 얼마나 왕좌를 향해 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정도면 큰 성과인 셈이었다.

“아까의 말처럼 엘리카 공녀… 아니, 이제 프레이 백작이라 불러야 겠지요?”

“아닙니다. 편히 엘리카라 계속 불러주세요.”

“그럼, 엘리카 공녀. 단알은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가문이 안정되는 즉시 붉은 혁명단은 반드시 무장해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단알을 위해 싸웠다고 해도, 결국 귀족들을 노려 도적질을 한 무장집단. 그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가주로서의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존재가 그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 전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단알을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저 역시 단알이 안정되는 즉시 전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건데 엘리카와의 관계는 틀림없이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덜컹이는 마차 안에서 헤르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수도를 향해 달리는 마차와 단알에서 끝낸 왕녀로서의 첫 임무이자 시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당한 성과와 뜻밖의 수확을 얻은 셈이니 크게 불만은 없었다.

언제 저를 죽일지 모를 암살의 위험이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오히려 단알보다 수도로 올라가는 지금의 상황이 편했다. 물론 수도로 올라가 왕성에 도착하면 또 다시 그들과 왕좌를 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타지보다 성에서 경계를 받는 쪽이 차라리 속편하다 할 수 있었다.

‘단알, 그리고...’

프레이 가의 새로운 주인이 된 그녀 엘리카. 단알을 떠나기 전, 엘리카는 다시 한 번 헤르세인에게 맹세의 약속을 건넸다.

"전하께서 주신 기회를 빌어 꼭 단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전하께서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단알의 걱정은 없었다. 오랫동안 낡고 낡았던 프레이 가에 새로운 가주가 들어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었고 당분간은 그레이스 후작이 조력해줌으로서 프레이 가문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단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겠지만 그 문제를 빼고서 후작의 반응은 어딘지 조금 불만이 담겨 있었다.

"헤르세인 전하, 저희 가문이 프레이 가문과 협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하를 납치한 엘리카 공녀… 아니, 새로운 프레이 가주에 대한 죄를 물으시고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제야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레이 가주의 사정일 뿐 그녀는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레이스 후작이 그럴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후작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알고 있다는 끄덕임으로 그를 진정시켜야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정과는 별개로 나를 납치한 중죄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오히려 지금당장의 문제는 카타리아 왕후입니다. 서둘러 단알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녀의 죄까지 일을 처리하면 피난민들과 붉은 혁명단이 단알의 땅을 오히려 분리시키거나 폭도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녀의 죄는 나중에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물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후작이 보기엔 그저 너그러워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너그러움과는 별개로 그녀가 저를 납치한 죄를 알고 있기에 그냥 지나칠 생각은 없었다. 몸에 성한 곳이 없다 해도 그녀는 붉은 혁명단을 하여금 자신을 납치했으며, 또한 납치를 당한 것으로 윌리스 왕태자와 카타리아 왕후에게 그런 약점이나 빌미를 줄 순 없었다.

언제 그들이 자신이 납치당했음을 알아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권력의 최상위 포식자는 카타리아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였으며 자신의 행동하나하나 모를 것이 없는 그들이기에, 또한 다른 귀족들에게조차 나약하기만 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다.

‘이제 곧 수도가 코앞이야.’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떠 단알에서부터 점점 울창한 숲으로 변하는 창밖의 풍경을 한눈에 담아낼 수 있었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타 황량하고 썰렁하기만 했던 단알의 땅에서 점점 푸른 녹음을 울창이 번지고 있는 숲의 모습. 그리고 저 멀리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알록달록한 벽돌과 높은 지붕들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히 빛을 내고 있었다.

헤르세인이 수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일찍이 접한 카타리아 왕후는 썩 표정이 좋지 못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헤르세인을 단알에서 죽이지 못한 것. 윌리스 왕태자 몰래, 다빈느 후작과 일을 도모해 아직 가주가 되지 못한 프레이 가문의 두 후계자에게 혹할만한 쪽지를 보냈으나 결국 두 후계자는 헤르세인을 죽이지 못했다.

암살은커녕 서로치고받기 바빴는지 사생아 출신이라는 첫째의 죽음 소식이후 그녀는 더 이상 단알에서 소식을 받길 관둬버렸다. 헤르세인을 죽이고자 오랫동안 프레이 가를 주시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암살명령을 내렸음을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일은 꼬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 증거를 일찍이라도 만들지 않고자 카타리아 왕후는 미리 손을 뺀 상태이지만 여전히 단알에서 헤르세인을 죽이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 계집이 기어코 수도로 올라오고 있네. 이제 어찌해야한단 말인가? 기회는 진즉에 날아갔고 오히려 귀족들이 단합하여 내민 시험을 큰 성과로 끝냈으니, 그 기세등등한 꼴을 내가 어찌 봐야 된단 말인가!?”

“면목 없습니다, 왕후폐하.”

“그게 자네 탓이겠는가? 일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한심한 프레이 가 때문이겠지.”

왕후는 인상을 구긴 채로 이마에 손을 얹어 여전히 탐탁지 않은 손짓으로 애꿎은 탁자만을 툭툭 두드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다빈느 후작은 무언가 떠올랐는지 약간의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러고 보니… 곧 왕태자전하의 탄생일이 아닙니까?”

“후작은 지금 이 상황에 윌리스의 탄생일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예? 그것이 아니오라….”

부모로서 자식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은 백성뿐만이 아닌, 귀족에게도 왕족에게도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왕후는 한껏 예민해져 있었는지 윌리스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나 이미 그녀의 우선순위는 헤르세인을 눈앞에서 치우는 것 뿐 이었다. 그러나 괜스레 화를 내던 왕후는 번쩍 눈을 떠, 후작에게 윌리스의 탄생일 날짜를 정확히 물었다.

“다빈느 후작.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이 정확히 탄생의 날, 아이아의 5월의 열 번째 날이 맞는가?”

“예, 정확히 맞습니다만… 어찌 그러시는지?”

다빈느 후작은 설마 아들의 생일을 정확히 모르겠냐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그가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던 왕후의 머릿속은 이미 차근차근 계획이 짜여 지고 있었다. 어째서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황당함과 이 기회만이 헤르세인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는 희망. 왕후는 새빨갛게 칠해진 입꼬리를 끌어올려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와, 왕후폐하?”

“다빈느 후작.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좋은 생각이라 하시면?”

“헤르세인 고 계집을 눈앞에서 치울 절호의 기회 말이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후작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인이거나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타인의 생각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나 오랫동안 정치에서 눈치로 단련된 후작은 빠르게 그녀가 말하고자함을 알아챌 수 있었다.

“좋은 기회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되면 저희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왕태자전하의 탄생일 때 일이 크게 벌어진다면….”

이렇게 큰 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연회가 크고 보는 눈들이 많은 만큼 주의를 하고 심열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일이 틀어진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쪽은 왕태자는 물론이거니와 왕후의 세력들. 후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만, 정작 카타리아 왕후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붉은 입술을 비틀었다.

“그러니 계획이란 게 필요치 않겠는가? 무턱대고 내 아들의 탄생일에 그 난리를 피우면 당연히 윌리스에게만 화를 입는 것을 내 어찌 모를까? 앞으로 윌리스의 탄생일은 기껏해야 2주 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네. 그때 동안 우린 윌리스가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눈치 챌 수 없게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할 것이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예, 하지만 왕후폐하, 왕태자전하께 살짝 알려 드리는 것이….”

그때, 왕후는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후작에게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절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윌리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간 내 후작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알겠는가?! 내 아들은 결코 국왕폐하처럼 지저분한 피를 뭍이고 왕좌에 앉혀선 안 되네! 내 아들은 기필코 지금의 폐하보다 선대, 선선대의 국왕들보다 찬란하게 빛을 내며 그 자리를 정당히 앉아야 한단 말이네!! 윌리스만큼은 꼭 그래야 해!!”

“송구합니다. 왕후폐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피로 하여금 피로 적셔 지금의 자리에 앉은 현왕, 위스턴 국왕. 실록에 적힌 역대 국왕들조차 형제의 전쟁이나 또는 피의 전쟁으로 왕좌를 쟁취한 국왕들은 많았지만 아비가 살아있음에도 폐륜을 저지르며 형제를 죽인 채, 왕좌에 오른 이는 위스턴 국왕이 처음이었다.

바깥의 사정을 바싹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후작은 그럼에도 세상에 떠도는 유명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다. 위스턴 국왕이 왕좌에 앉은 지도 십여 년이 넘은 시간. 하지만 위스턴 국왕의 평판은 백성들 사이에선 좋지 못했고, 더욱이 위스턴 국왕이 왕좌에 앉은 이후로 왕국의 안정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미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막심한 손실을 입은 상태. 이대로 계속 위스턴 국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왕국은 완전히 흔들릴 것이며, 몬테올 왕국뿐만이 아닌, 이번엔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사브레 왕국을 허점을 노려 침범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이럴 때 일수록 왕실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되었고 특히나 귀족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나 귀족파 세력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을 더욱이 흔들리게 해선 안 되는 법. 왕당파는 언제나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세력을 유지해야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따라 세력이 커지거나 또는 모이는 법.

헤르세인 왕녀의 출현으로 굳건했던 왕당파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선대 국왕의 직계혈통이자 왕좌에 앉기도 전에 형제 손에 비참히 죽어버린 에른스트 왕태자. 비록 ‘왕녀’란 것이 걸리나 그녀는 누가보아도 윌리스 왕태자보다 가장 왕좌에 가까운 직계혈통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미 중립파를 버리고 헤르세인 왕녀의 세력으로 돌아선 그레이스 후작 역시 어떠하던가. 중립파일 때는 그저 어느 편을 설 수 없는 후작 가문에 불과한 가문이었다. 하지만 중립을 버리고 하나의 큰 세력이 되어 돌아온 지금의 그레이스 후작은 중립파도, 온건파도, 귀족파들 조차 흔들릴 만큼 헤르세인 왕녀의 세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된 셈이었다.

아직까지 그레이스 후작만 등에 업은 햇병아리에 불가한 헤르세인 왕녀이나, 권력은 결국 커지는 법. 언제 헤르세인 왕녀의 세력이 더 커지고, 다른 귀족들이 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더불어 단알의 일을 해결하고 수도로 귀환하고 있는 왕녀의 상황이 어떠하던가. 그 일로 현재 귀족들은 웅성거리기 바빴고 왕녀에게 붙는 세력은 더 늘어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왕후는 아니었다. 후작은 이 같은 조언을 하고 싶음에도 왕후의 성정을 잘 알았고 그녀는 노련한 정치가 역시 아니었다. 그럼에도 후작이 왕후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였다. 제 손으로 윌리스 왕태자를 왕좌에 앉히는 것. 그리고 그 보답으로 가문의 명예는 물론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귀족에겐 그만한 야망이 있어야 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손에 놓을 수 있었다.

“다빈느 후작.”

후작은 더 이상, 생각하지도 떠올리지도 않았다. 헤르세인 왕녀는 분명 직계혈통이란 무기로 서서히 귀족들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왕녀는 불리한 위치였다. 그리고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담그려는 샛노란 햇병아리. 왕후의 말처럼 그 풋내기 왕녀가 점점 제 세력을 불려 더 큰 날개 짓을 하는 독수리로 변하기 전에 눈앞에서 치우면 그만이었다.

“예, 왕후폐하. 말씀하시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전에 후작께 은밀히 청할 것이 있네.”

“은밀히라 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말한 ‘그것’을 빠른 시내에 구해줬으면 하네. 아무래도 그것으로 하여금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 같으니 말이네.”

‘그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묻지 않았으나 후작은 굳이 물을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어차피 구해오는 것은 자신이었으며 그것을 구하는 동시에 손에 넣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이었으니까. 후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그만 짧은 담소를 마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럼, 왕후폐하 소신은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담소는 즐거웠네. 다빈느 후작. 그럼 다음 담소 때를 기대하도록 하지.”

“예, 왕후폐하. 다음 담소 때는 왕후폐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끼이익하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다빈느 후작은 응접실을 여유 로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아직까지 응접실에 남아 다 식어버린 찻잔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왕후는 본래는 입에도 대지 않을 찻잔을 들어 올려 짙게 끌어올린 붉은 입술과 함께 식어버린 차 한 모금을 즐겼다.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헤르세인이 제일먼저 한 일은 귀족들에게 단알에서의 일을 보고를 하는 것. 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불이라도 켠 자들처럼 자신의 흠짓 하나라도 잡고자 특히나 왕당파와 귀족파들은 헤르세인의 손짓과 눈짓하나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상, 단알에서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준 시간만큼 나는 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만족할만한 성과가 아닌지요?”

왕녀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고자 귀족들이 단합하여 만들어낸 임무. 헤르세인의 보고 하나하나에 모든 귀족들이 반박할만한 점은 없다시피 했다. 제일 먼저 몬테올 국경과 근접해 있는 단알의 문제점을 헤르세인은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단알이 안정되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왕당파 중, 특히나 윌리스 왕태자를 열렬히 지지하는 몇몇 귀족들에겐 헤르세인의 성과는 탐탁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모두 생각은 똑같이 품고 있으나 선뜻 뱉어내지 못한 발언이 왕당파에서 하나 둘씩 쏟아져 나왔다.

“하오나, 헤르세인 왕녀전하. 전하께서는 프레이 가의 여식이 프레이 가문의 새로운 가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셨고 그녀가 가주가 되었음을 흔쾌히 인정하셨다 말씀하셨으나, 죄송하지만 여인은 가주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녀전하. 아무리 프레이 가문에 직계가 여식 한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해도, 여인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본래라면 프레이 가문 내의 방계 쪽을 알아봐 양자로 입적하여 가주로 만드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있는 귀족들 중, 외동딸만 있는 귀족들만 해도 열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제 여식에게 가주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데릴사위를 들여 가주의 자리를 물려받게 하거나 가까운 친지의 양자를 들여 그들을 가주로 내세웠지요.”

“예. 전하. 전하께서 이번 단알의 일을 해결하신 건 잘 된 일이지만, 가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새 너도 나도 한 목소리로 이때다 싶어 헤르세인을 억누르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헤르세인에겐 큰 문제는 되지 못했다. 다만, 이 상황을 헤르세인 뿐만이 아닌 그레이스 후작조차 예상을 했기 때문에 수도로 완전히 도착하기 전, 잠시 후작의 저택에 들른 헤르세인은 후작의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전하께서는 당장 단알의 일을 해결하셨지만, 완전히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음을 알고계실 겁니다. 피난민 문제와 붉은 혁명단이란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제일 문제는 프레이 가주이지요. 전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역사에도 현재에도 그 어느 기록에 여인의 몸으로 가주의 자리에 앉아 가문을 이끈 여인은 없습니다. 가문을 이끈다 해도, 후계자나 남편을 잃은 가문의 부인들이 잠깐의 임시로 가주로서의 권력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인들이 가문의 안주인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과는 다르게 프레이 가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녀가 유일한 프레이 가주이자 직계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여인이 가주가 되었다는 전례가 없기에 귀족들은 이 문제로 걸고 계속 전하를 압박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가주가 되기 위해선 현재 국왕폐하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윌리스 왕태자의 직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작의 말씀은 이 말인가요? 현재 엘리카 공녀는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 그녀가 가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단알의 상황이 제자리 걸음일거라… 이 말이지요?"

"예… 전하. 현재로선 상황이 저희에겐 아직까지 불리합니다."

그레이스 후작이라는 거대한 가문의 힘이 등 뒤를 버티고 있으나, 왕좌에 앉기 위해선 또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선 후작만큼의 또 다른 귀족들의 힘이 헤르세인에겐 절실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이 생각하기엔 엘리카는 틀림없는 프레이 가문의 가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또한 여인이란 이유만으로 은근슬쩍 자신의 자질을 깎아내는 것은 물론, 조부이신 선대 국왕의 직계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여인이기에 왕좌에 오를 수 없다는 부정의 눈짓을 보내는 귀족들의 발언을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는 없는 법.

역사엔 그랬을지 몰라도, 시대는 변하는 법이다. 자신이 여인이고 왕녀인 것을 떠나 아버지를 죽인 위스턴 국왕의 핏줄을 절대로 왕좌에 앉힐 생각은 더욱이 없었다.

헤르세인은 살짝 눈에 힘을 주어 침이 튀도록 마치 저를 가르치려는 귀족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긴 채, 나직이 입술을 열었다.

“즉, 그 말은 나 역시 왕좌에 앉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내가 왕녀이기에 자격조차 없다?”

그 순간, 헤르세인의 힘 있는 목소리에 저들끼리 입을 모아 한마음이 되던 왕당파 귀족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잠시 입을 벙긋이다가 입을 다물었지만, 그럼에도 눈치가 없는 몇몇 귀족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오나, 사실을 말하자면 전하께서는 왕녀이기 이전, 여인이십니다. 즉, 사브레 왕국의 역사에서도 왕녀가 왕좌에 앉은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전하께선 단순히 직계혈통이기 때문에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 아니 저 사람이─!”

“이보게! 아무리 그래도 전하 앞에 할 말, 못 할 말이 있는 것을!!”

당장 눈앞의 복수가 가장 정실하긴 하나, 헤르세인은 저렇게 눈치 없이 고집스럽게 제 의견을 피력하는 귀족의 모습을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차별적인 발언을 떠나 아직까지 대 다수의 귀족들. 특히나 귀족파와 왕당파는 고집과 고지식함이 뚜렷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순 있지만 오랜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일수록 새로운 개혁 변화의 바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장내. 방금 전까지 헤르세인에게 한껏 경계와 비웃음을 담아내고 있던 귀족들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순식간에 지워냈는지 개판이 되어버린 대 회의장 속에 헤르세인은 고요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텀이 짧은 호흡을 끝낸 헤르세인은 귀족들을 소란을 끝내고자 입을 떼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라인하르트 후작이 모든 소란을 종결시켰다.

“모두 조용! 왕녀전하를 앞에 두고 지금 뭣들 하는 짓인가!”

후작의 덕분에 소란스럽던 상황은 종결되었으나, 헤르세인 만큼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나섰어도 되었을 간단한 일이나, 굳이 라인하르트 후작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왕당파이기 이전, 그의 아버지가 아니던가. 하지만 헤르세인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상황을 조용히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아직까지 정치판에 적응되지 않은 그녀로선 감사할 일이었다.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숙임으로서 라인하르트 후작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다. 그리고 그것을 후작이 보았는지 아님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알 수 없으나, 헤르세인은 조용해진 정적을 틈 타, 다시금 입술을 뗐다.

“상황이 잠시 어지러웠으나, 이번엔 그럼 내 쪽에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말처럼 내가 왕녀이기 때문에 왕좌에 앉을 수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앞으로 사브레 왕국의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하, 그 발언은 나라가 망조에 들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와중에 기어코 끼어드는 귀족의 황당하면서도 어이없는 물음에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춰 그 어이없는 질문을 건넨 귀족에게 경고를 전했다.

“아직, 내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못 들었습니까? 내가 한 말 중 그 어디에 망조란 말이 있는지요? 지금부터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질문만 퍼부을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나는 감히 왕족을 무시하고 제 발언에만 급급한 귀족과는 상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 말을 함부로 자르고 자기 발언만 생각할 귀족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시지요. 나 역시 그런 귀족과 괜한 힘을 뺄 생각은 없습니다.”

경고가 다행이도 먹혀들었는지 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하곤 입을 다문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 아무도 나갈 생각조차 없는 대 회의실을 보며 헤르세인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럼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하지요. 현재 사브레 왕국뿐만이 아닌, 다른 왕국도 소국도, 제국도 오랜 역사를 이어 적자승계로 혈통을 잇는 것은 물론 대 다수의 왕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태어나기 전까지 모르듯 나는 내 미래도 알 수 없을뿐더러 사브레 왕국 미래 또한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좌의 주인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국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의 후손이 왕자로 태어나고 또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대가 끊기고 방계마저 사내의 씨가 말라, 왕실에는 왕녀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고작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방계의 사내를 왕좌에 앉히고자 나라의 안정을 뒤로 미룰 생각입니까? 당장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며 폭도를 일으킬지 모를 상황에?”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현실이겠으나 언젠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를 미래이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그 점을 지적해 귀족들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할 필요가 있었고, 언제까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할 수는 없었다.

헤르세인의 발언이 중립파와 온건파 귀족들에겐 잘 먹혀들었는지 모두가 동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귀족들은 상당수였다.

“전하의 말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왕실로선 피가 말린 중대한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부마가 있겠습니까? 왕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때에 따라선 왕녀와 혼인한 부마를 왕좌에 앉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하.”

그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물론 왕녀쪽이 나랏일에 무능하다면 부마를 왕좌에 대신 앉힐 수는 있었다. 하지만 부마보다 왕녀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자리를 물려받아 앉는 건 왕녀였다. 헤르세인은 다시 입을 떼어 이번엔 왕실의 정통성을 걸고 반문했다.

“그럼, 그 순간 여태까지 이어온 사브레 왕국의 정통성이 깨지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사브레 왕국의 역사엔 직계와 방계의 피가 섞인 왕실 혈통의 선대 국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계의 피가 섞여있다 해도, 정통성에 어긋남이 없는 유지된 혈통이지요, 그런데 왕자가 없단 이유 하나로 멀쩡한 왕녀를 놔두고 왕실의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부마를 내세워 왕좌에 앉힌다? 그것은 왕실의 순수 정통성을 깨는 것이며 사브레 왕국의 1대 국왕부터 이어진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귀족은─!”

“지금, 귀족이랑 왕실의 처지가 감히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족도 귀족도 결국 오래도록 짙게 이어진 혈통과 명예를 좇는 순수혈통 주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귀족과는 다르게 왕족의 사정은 매우 달랐다. 귀족과 똑같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근본이 다른 것이 왕족이었으며 왕족은 결코 귀족들과 똑같을 수 없었다. 귀족보다도 더욱 높은 곳에 앉아 군림하는 것이 왕족이며 귀족들조차 감히 꿈 꿀 수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 오직 왕족의 혈통 많이 왕실의 대를 이을 수 있으며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선택과도 같다 할 수 있었다.

물론 순수혈통 주의 따위 헤르세인에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를 혈통주의 시대. 하지만 헤르세인은 직계혈통이란 무기로 하여금 왕좌에 앉기 위해선 혈통이란 것을 반드시 내세워야만 했다. 특히나 여인이 가주가 되는 것을 부정함에도 가장 왕족의 혈통을 따지는 것은 권력의 기반이 될 귀족들이었다. 때문에 헤르세인은 이 혈통성을 어떡해서라도 밀고나가야만 했다.

“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단알이고 그 일을 완벽히 해내기 위해선 새로운 프레이 가주가 완벽히 가주로서의 입지를 다져 단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가주로서 인정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진 생각은 다른 법이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여인이라고 가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가주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확인하면 그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태자 전하.”

언제 대 회의실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있었는지 헤르세인의 눈이 윌리스 왕태자에게로 향해 있자, 귀족들이 너나할 것 없이 그에게 예를 갖추고자 부산스럽게 움직일 때였다. 윌리스 왕태자는 손을 들어 그들의 인사를 막아섰다.

“모두 예를 갖출 건 없네. 나는 그저 헤르세인의 단알에 관한 보고를 들으러 왔을 뿐이니. 그리고 이번 단알의 일을 해결한 헤르세인에게 포상은 물론, 나 역시 단알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단알이 안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네. 그대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라겠네. 비록 우리가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단알이 무너진다면 사브레 왕국의 오랜 영토를 잃는 셈이 아닌가?”

그 누구도 윌리스 왕태자의 말에 가시를 세우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은 없었다. 저마다 눈치를 보며 왕태자의 말에 따르겠다는 동시다발의 대답만 있을 뿐. 하지만 그 속에 오로지 헤르세인과 윌리스 왕태자의 눈은 엇갈리고 있었다.